

이건식 일산직업능력개발원장
"복지의 미래는
팽창보다 전문화 필요"
16·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3월 22일) · 주간

제938호 2013년 5월 1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 〈장아함경〉

스스로 안을 관찰하라.
성냄과 다툼의 근본을 끊어내고
원한이 있다면 그 마음을 막아라.

일제, 남산에 최대 관음사 세우려했다

사이토 총독 발원문 원본 본지 입수 최초 공개

일제가 서울 남산에 세계 최대 규모의 관음성지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한국을 속국으로 삼으려 했다는 자료가 최초로 공개됐다.

이는 일제 강점기 당시 제3, 5대 총독을 지낸 사이토 마코토(齋藤 實, 1858~1936)가 직접 쓴 발원문(발원장) 원문으로 최근 방한한 이치노헤 스님이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을 통해 본지에 제공한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문화 침략'을 표방한 사이토 마코토가 어떻게 조선을 속국화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다.

사이토 마코토의 발원장에 따르면 "조선 불교와 일본 전통과 같지만 아직 서로 융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자는 신불 가호를 설법해 정신적 결합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서히 융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선과 일본의 관음신앙이 같다고 밝힌 사이토 마코토는 "지금 관음상을 조동종 조계사(현 동국대)에 기증하고 약초사에 관음성지를 개설해 일본과 조선이 공통된 신앙 아래 정신적 융화가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기술했다.

또한 자신이 관음 신앙을 가지고 있고, 조선 총독으로 노력한 점을 들며 영원히 자신의 법회를 한국에서 영위해줄 것도 요구했다.

1931년 10월 작성된 발원문은 조동종 조계사 주지 다카시나 로센에게 전달됐고, 사이토 마코토는 1935

한국 · 일본 정신적 합일 획책
관음상 조성 초동 약초사 봉안
1940년 약초관음사 남산에 중건
3만 2천평 부지 대규모 불사
관음신앙 통해 신민화 노려

년 4월 약조정 약초사(현재 중구 초동)에 관세음보살입상을 조성했다.

세계 최대규모의 관음성지를 세우겠다는 사이토 마코토의 발원은 1933년 약초관음봉찬회(이하 봉찬회)의 발족으로 구체화됐다. 봉찬회는 취지서와 규정을 마련하고 대대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사이토 마코토는 세계 최대 관음사찰 건립을 마지막까지 보지 못한다. 일본 내부 정치 갈등에서 밀린 그는 1936년 청년 장교들에게 저격당해 사망했기 때문이다.

사이토 마코토가 사망했지만 약초사에 관음성지를 조성하겠다는 일제의 의지는 식지 않는다. 봉찬회는 신축 관음당을 설립한다는 이유로 경성부 남한정 산 10번지(현 남산예술원 웨딩홀)의 국유림 3만 2000평을 부지로 1940년 8월 '자운산 약초관음사' 창립허가원을 총독부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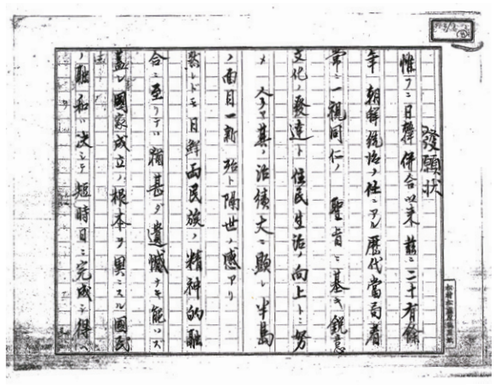
이후 몇몇 불당의 불사를 진행하면서 사이토 총독의 머리칼을 봉안하고 그의 공덕비를 건립했으나, 오각의 관음전은 도면만 남아 건립 여부는 알 수 없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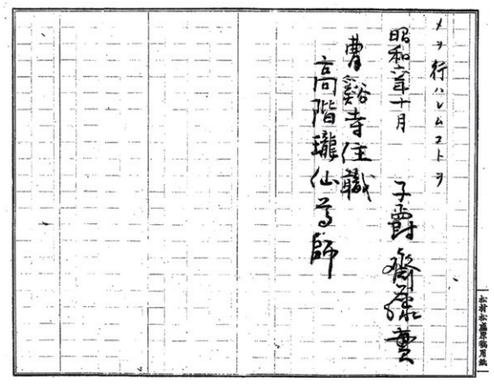
일본의 패전 후 약초관음사는 원불교가 인수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으로 운영하다가 현재는 예식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4월 21일 남산 약초관음사 터를 답사한 이치노헤 스님은 "답사를 통해 기단 석재 등 사찰이 있었던 터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주위 경관도 매우 수려하다. 문화 정치를 표방했던 사이토 마코토는 일본 도쿄의 최대 관음사찰인 아사쿠사 센쇼지와 견줄 정도의 격식있는 사찰을 만들려고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이치노헤 스님은 약초관음사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과 의미들을 조명한 논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함께 답사한 종걸 스님도 "약초관음사와 사이토 총독의 발원문을 통해 일제가 종교를 통해 조선을 어떻게 장악하려 했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사이토 총독은 자신이 조성한 관세음보살이 조선의 수호불이 되게 하겠다는 당치도 않는 발원을 했다"며 "현재 관음상과 함께 봉안된 창덕궁에서 하사한 대반야경 600권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 명확한 연구를 통해 당시 시대를 조명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쓴 발원문의 첫 페이지〈사진 왼쪽〉와 마지막 페이지〈사진 오른쪽〉. 사이토 총독은 한국불교 관음신앙을 이용해 황민화 정책을 꾀할 약초 관음사 건립을 발원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이치노헤 스님 방한 기사 8면〉

10.27법난위 3년 기간 연장

국회, 10.27법난법 개정안 법사위 제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지현)의 활동이 2016년 6월30일로 3년 연장된다. 사무처 신설과 기존 시행령에 명시됐던 역사관 건립 및 운영사업을 법안에 규정토록 하는 수정안이 4월 22일 국회 국방위를 거쳐 법사위에 제출됐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회정각회 회장 정갑윤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로 제출한 '10.27법난 피해자와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방위와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면서 수정된 것이다.

수정안은 법난위가 그동안 꾸준히 전개해오던 사안들 중 피해자 범위 확대, 소관부처 이전 문제 등의 내용이 제외됐다. 당초 조계종은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존의 법에 규정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 외에 강제로 공권력에 피해를 입은 자, 강압에 의해 직위에서 해직된 자, 10.27법난 당시 조계종 승적을 가진 자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국방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피해자 범위를 기존의 법대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로 한정했다.

정혜숙 기자

자승 스님, 평화위한 독도 방문 추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4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이성한 경찰청장의 예방을 받고 "일본 우경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평화와 안보를 위해 독도를 방문해 등을 밝히고 경찰들을 위문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경찰청장은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이 독도를 직접 방문해 대원들을 위로해주면 대원들도 위안을 얻을 것 같다"며 기뻐했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공동 캠페인

재학기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에게 불서를 선물합시다

중앙종회의장 향적 스님 등 캠페인 동참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 스님이 포교원과 본지의 공동 캠페인에 동참하는 금일봉을 희사했습니다. 또한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 문화부장 진명 스님을 비롯해 재가단체들도 캠페인 후원에 십시일반 동참했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성원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향적 스님
중앙종회의장


지홍 스님
불광사 회주


진명 스님
문화부장


이상우 이사장
동산반야회


남상민 원장
한국예절문화원

■ 문 의 : 02)2011-1903 (조계종 포교원)
02)2004-8258 (현대불교)
■ 동참계좌 : 국민 006-01-0785-361 ㈜현대불교신문사

어린이 불서를 법공양 받고 싶은 독자와 사찰에서는 문의 전화나 이메일(motp79@hyunbul.com)로 신청해 주십시오.



희망과 행복의 '燈' 불 밝혔다

세상에 희망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하는 불기 2557년 봉축등이 불을 밝혔다.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4월 23일 광화문 광장에서 봉축 장엄등 점등식을 봉행하고 본격적인 부처님오신날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매년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행하던 점등식으로 20년 만에 광화문 북쪽 광장으로 옮겨 봉행돼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점등 직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기원문을 통해 "전통문화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선조의 빛나는 정신으로 모든 생명이 안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밝은 지혜가 없이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우쳐 남과 북이 공존과 상생, 신뢰와 믿음으로 대화하고 교류하겠다"고 기원했다.

글= 신중일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이치노헤 스님 "아베는 뻔뻔한 인물"

4월 23일 기자회견서

본지의 지난해 8.15광복 특집(901호)와 올해 3.1절 특집 기고(930호)를 통해 소개된 일본 조동종 이치노헤 쇼고 스님이 잇달은 일본 정부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치노헤 스님은 4월 23일 동국대에서 열린 〈조선 침략 참회기〉출판 기자회견에서 "아베 수상이 대리인을 통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주변국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그는 그 정도로 뻔뻔하다. 고이즈미 前 수상 같은 인물"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아베 수상의 목적은 권력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고 있다. 결국 참의원 선거에서 우익들의 표를 얻으려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신중일 기자



938호 INDEX

종합 2·3
차별금지법 법안 철회
천태종 일심국제선원 기공
진각종 새 집행부 출범
조계종 간화선 중흥법회
시방세계 5
불교심리 연구 "나도 살고 싶었다"
봉은사 사찰음식 경연대회 6
청계사 108선원 순례 12



알기 쉬운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72번길 17 ☎ 전화 010-7415-0803 / 051)343-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순수한 알아차림’이라는 어린아이를
그대의 아이로 알고 찾으라.
이 아이는 태어난 적도 죽은 적도 없느니라.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기쁨에 넘칩니다. 식구가 한 명 더 늘면 가정의 연대감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후에 그 아이들은 부모와 재산을 돌보게 됩니다. 부모의 과한 집착은 아이들에게 때로는 기쁨보다는 괴로움을 주게 됩니다. 특히 자식이 먼저 죽게 되면 부모들은 너무도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많은 경우 부모들이 나쁜 행도을 해서 무언가를 얻게 되면 그것을 아이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종용합니다. 자신이 모른다 하더라도 인과응보에 따라 서로 해를 찍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부모들은 나쁜 짓을 하여 오점을 남더라도 부를 축적하도록 부추깁니다. 또한 자식들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나쁜 행동으로 부모에게 해를 끼칩니다.

당신의 자손으로 순수자작이라는 선천적으로 내재돼 있는 아이를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당신은 망상에 가려져 이 아이를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맑은 마음으로 명료하게 찾는다면 그는 당신 곁에 있을 것이고 당신이 죽더라도 그를 당신에게서 떼어내지 못합니다. 오직 그만이 원초의식과 공성의 합일인 마음의 본성이라는 고향으로 당신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개신교 반대로 ‘차별금지법’ 좌절되나

민주당 김한길 · 최원식 의원 법안 철회키로

일부 개신교계의 주도로 반대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민주통합당 김한길 · 최원식 의원이 철회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사실상 개신교계의 상식 밖의 반대 운동에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김한길 · 최원식 의원은 4월 17일 차별금지법 발의 철회의사를 밝히고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동참해주신 의원님들께 올리는 글’을 발표했다.

두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고 재논의를 통한 단일안을 추진코자 한다”며 법안 철회의 목적이 단일화 된 법안 상정의 목적임을 밝혔다.

하지만 철회 배경에 개신교계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음을 에둘러 전했다. 두 의원들은 “차별금지법안 발의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 · 예방할 수 있도록 기본법을 제정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하지만 발의 후 일부 교단(개신교)의 반대 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됐다”며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물론 법사위 소속 의원 및 위원회 행정

항의전화 · 서명 압박 이어져
“단일화 법안 발의” 해명
인권은 정략 대상 아냐

자승 스님 등 불교계
“차별금지법 제정돼야”

실까지 항의전화로 업무의 차질을 빚었고 의원을 상태로 낙선 운동의 압박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현대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교단을 포함해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진보 정치권은 두 의원의 철회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명을 통해 “입법 발의가 철회된다면 보수 기독교 세력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개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초유의 사례가 될 것”이라며 “두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은 정치적 입지와 부담을 이유로 국가에서 수호해야 할 인권의 가치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불교계는 공식적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은 시대적 과제인만큼 꼭 성사돼야 한다는 분위기다.

실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월 22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개신교계가 동성애 반대를 이유를 들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다문화, 인종, 다종교에 대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이다. 다종교, 다문화 시대에 차별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들도 비슷한 입장을 피력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퇴휴 스님은 “인권은 보편적 규범이자 가치”라면서 “‘차별을 금지하자’는 선언적 법안을 동성애를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대다수가 개신교인인 서구 국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국 개신교계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상임대표(서강대 교수)는 “개신교가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사실상 몽니”라며 “불교계가 차별금지법이 인권적 가치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제안해야 하며 불교계 단체들도 나서서 제정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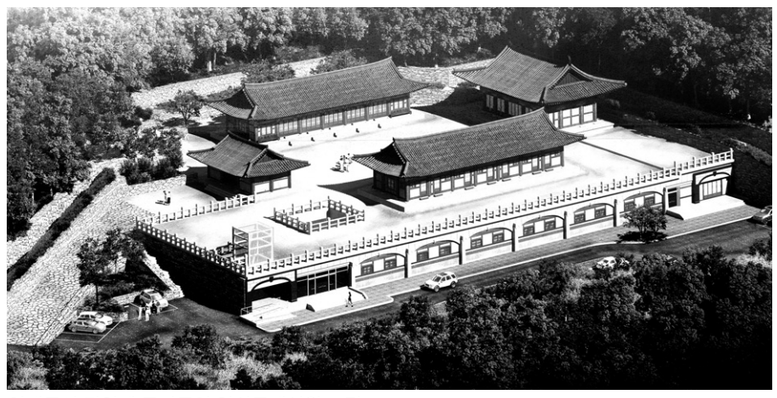
천태종, 복합문화공간 일심국제선원 기공

국제선원 등 5개동 갖춰
내년 10월 말 완공 예정

불교문화를 포함한 한국전통문화를 국내외인들에게 알리고 수행 체험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천태종 일심국제선원이 건립된다.

천태종(총무원장 도정)은 4월 20일 충북 단양군 영춘면 신축공사 현장서 ‘일심국제선원 건립 기공식’을 봉행했다. 기공식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운덕 대종사, 총무원장 도정 스님, 송광호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일심국제선원은 총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7,825㎡(2,370평)에 국제선원 1동(33.54평), 문화체험실 2동, 한마음문(천왕문), 공양실 및 강당 등 5개동으로 구성된다.


천태종이 단양에 준비중인 일심국제선원 조감도

총무원장 도정 스님은 “일심국제선원은 누구나 찾아와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과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삶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복합 수행문화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선원은 단양과 충북을 널리 알리는 또 하나의 명품 문화자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진각종, 통리원 · 교육원 등 새 집행부 출범

4월 26일 총무부장 덕정 · 교무부장 원명 · 기획실장 혜언 정사 등

진각종 제29대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4월 26일 진각문화전승관 내 통리원장 집무실에서 통리원과 교육원 부, 실, 국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새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통리원 총무부장에는 밀엄심인당 주교 덕정 정사가, 교육원 교무부장에는 혜정심인당 주교 원명 정사, 기획실장에는 보광심인당 주교 혜언 정사, 사회부장에는 심지심인당 주교 호당 정사가 임명됐다.

밀교신문 제18대 편집인에는 기획실장을 맡은 혜언 정사가 위촉됐다.

이에 앞서 신임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진각문화전승관 내 총인예경실에서 성초 총인으로부터 임명장을 전달받았다.

한편 진각종 교육원장에 아축심인당 주교 경당 정사가, 진각대학원장에는 시경심인당 주교 회성 정사가 내정됐다. 교육원장과 진각대학원장 내정자는 향후 종의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 김주일 기자

14교구본사 범어사 방장후보 선출

5월 21일 산중총회 개최

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주지 수불스님)가 오는 5월21일 오후1시 경내 설법전에서 방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

종헌 제105조 및 산중총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이번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은 14교구 재적 스님으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스님, 14교구에서 임명 받아 2년 이상 상근한 국장급 이상 종무원, 14교구 말사 주지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비구니 스님 등이다.

거주승 신고기간은 4월27일부터 5월3일이며 구성원 명부 열람기간은 5월12부터 14일까지다. 신중일 기자

신흥사 주지후보 우송 · 영수스님 등록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주지후보에 현 주지 우송스님과 건봉사 전 주지 영수스님이 입후보 했다.

3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0~22일 후보등록을 진행한 결과 우송스님과 영수스님이 최종 등록했다고 밝혔다. 신흥사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오는 5월 2일 개최된다. 신중일 기자

의정부 행복특별시 · 의정부 시승격50주년

제9회 경기북부
市사랑자비나눔 음악예술제

[무학대사 일대기]

일시 : 불기 2557(2013)년 5월 3일(금) 오후 6시 ~ 9시
장소 : 의정부시 실내체육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산 80-1)
문의 : 031)828-6885 공연문의 : 031)875-6214

모 시 는 글

경기북부불교연합합창단의 축제 한마당인 **“제9회 경기북부 시 사랑 자비나눔음악예술제”**가 8년 만에 의정부시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공연은 의정부시 승격 50주년을 축하하는 그 첫 행사로, 백성들이 살 맛 나는 세상의 건설을 꿈꾸며 치열한 구도의 삶을 보이신 **“무학대사의 일대기”**를 경기북부불교연합합창단의 합창과 대중가수인 장사익과 홍경민의 축하공연으로 펼쳐집니다.
경기도민과 의정부시민의 축제의 한 마당인 시 사랑 자비 나눔 음악예술제에 부디 함께 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7 (2013)년 5월 3일

제 9회 경기북부 시 사랑 자비 나눔 음악예술제
봉행위원장 경기도북부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정수
집행위원장 의정부시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대홍 합장

행사프로그램

1부 봉축 법요식 [오후 6시]
[증명] 자승 큰 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개최기 이양식]
봉행위원장 (정수스님) ▶ 의정부시 불교사암연합회회장(대홍스님) ▶ 의정부시장(안병용) ▶고양시장(최성) ▶ 고양시불교사암연합회장(도원스님)

2부 무학대사 일대기 [오후 7시] · 협 연 :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1막 탄생 ····· · 지휘자 : 정회정 · 반주 : 현정실 · 고양시/파주시 연합합창단
제2막 출가 그리고 수행 ····· · 지휘자 : 김성범 · 반주 : 김미선 · 남양주시/포천시 연합합창단
제3막 태조 이성계와의 만남 ····· · 지휘자 : 오승희 · 반주 : 김경진 · 의정부/양주/동두천 연합합창단
제4막 살 맛 나는 세상을 위하여 ·· · 지휘자 : 이준형 · 반주 : 서명자 · 경기북부불교연합합창단

3부 특별공연 · 장사익, 퓨전엠씨(비보이) ,홍경민


[장사익]

[홍경민]

[경기북부불교연합합창단]

주최 : 경기도북부불교사암연합회 주관 : 의정부시불교사암연합회 / 의정부시
연주 : 경기북부불교연합합창단 협연 :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협찬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파주시 / 포천시 / 가평군/ 양평군 / 연천군 - 불교연합회 일동
후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 한국불교태고종 | 대한불교천태종 | 대한불교관음종 | 대한불교 총화종 | 불대한불교전통원 PAJU 파주시 | Yangju 양주시 | 포천시 | BBS 불교방송 | 불교TV | 불교신문 | 법보신문 | 월간대불교신문사 | 주간불교

“간화선은 모든 근기를 아우르는 수행”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간화선 중흥 법회서 법문

이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식들의 릴레이 법문을 들을 수 있는 법석이 펼쳐졌다.

조계종과 전국선원수좌회는 4월 2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간화선을 중흥을 위한 대법회의 입재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밀운 스님, 원로의원 성우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무여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스님들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갑윤 국회 정각회장 등 사부대중 2천여 명이 참석했다.

첫 선지식으로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증명 법사로 참여해 수승한 간화선의 가치를 설했다.

이날 진제 스님은 입재법문을 통해 “역대의 모든 불조께서 심인법인 끊어지지 않도록 견성법을 지도했는데, 250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의 선불장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요즘 들어 선원 내 관법 수행(위빠사나)이 유포된다하니 안타까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선원 내 위빠사나 유포
안타까워… 바른 지도 필요
법회로 간화선 가치 알길

간화선에 대해 스님은 “모든 근기를 아우르는 수행법이자 일체의 다른 방편을 구하지 않고 바로 여래지에 이르는 경절문(徑截門)”이라며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 바르게만 지도받으며 한 생에 마칠 수 있는 참선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서구 지성인과 종교인들은 종교를 떠나 마음닦는 수행을 생활화하고 있다”며 “그들은 개개인의 수행이 인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간화선은 21세기 인류의 밝은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정신문화”라고 확언했다.

“이제는 우리의 정신문화인 참선수행법을 세계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힌 진제 스님은 “이번 법회를 통해 올바른 간화선의 가치를 정립하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날 법회와 함께 선원 수좌 스님들의 복지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선서화전도 함께 개막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와 로비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경봉 청담 서옹 성철 월하 혜암 탄허 원담 석주 월산 스님 등 한국 근현대 불교를 대표하는 선사들의 글씨와 그림 800여점이 전시된다. **〈본지 4월 10일자 20면 보도〉**

또한 ‘북전강 남향곡(北田岡 南香谷)’으로 불리는 전강 스님과 향곡 스님의 선서화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조계종과 전국선원수좌회는 4월 24일 간화선 중흥을 위한 대법회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했다. 첫 법문은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나섰으며, 5월 2일까지 선지식들의 릴레이 법문이 이어진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개막 컷팅식을 가진 선서화전. 5월 2일까지 진행되며 수익금은 선원 수좌 스님들의 복지에 사용된다.

한편, 간화선 중흥을 위한 대법회는 5월 2일까지 봉행되며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 원로의원 월탄 스님, 오등선원 조실 대원 스님, 축서사 문수선원장 무여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지리산 상무주암 현기 스님,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 원로의원 고우 스님의 법문이 이어진다. **글=신중일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지금 당장 부처처럼 살자”

도법 스님, 유니온신학대 국제 컨퍼런스 강연서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스님이 세계 종교인들에게 부처처럼 살아갈 것을 강권했다.

도법 스님은 4월 19일 저녁 7시(미국 시각) 세계적 참여불교인과 해방신학자들 앞에서 화엄경의 본래부처론과 동체대비행에 바탕을 둔 생명평화 사상을 역설했다.

‘나의 불교수행, 화엄세계관과 생명평화운동-지금 당장 붓다로 살자, 붓다로 행동하자’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도법 스님은 생명평화무늬를 소개하는 것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스님은 “온 우주의 유형무형의 모든 존재들이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며 살도록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생명평화무늬”라면서 “모든 존재들이 나의 생명을 낳고 길러내는 거룩하고 신비한 모체”이므로 “당연히 지극 정성을 다하여 서로 잘 모시고 섬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법 스님은 모든 종교가 갈 길은 생명평화의 길이라고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스님은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인내와 관용과 비폭력 평화의 마음으로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며 함께 살아가는 생명평화무늬의 길”이라며 “생명평화의 삶, 생명평화의 세상은 모든 인류의 영원한 염원이며 21세기 시대정신이다. 우리 종교가 나서서 실현해야 할 21세기 절체절명의 화두는 바로 ‘지구촌 생명평화 공동체’”라고 역설했다.

한편, 도법스님은 17일, 18일 진행된 각종 토론회에 참여했으며 19일 오후 2시엔 참여불교 동서양의 대화에 법륜 스님, 슐락시바락사 등 세계적인 참여불교인들과 함께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도법스님은 20일 폐회식에서 화엄경을 낭독했으며 울리히 두흐로브(독일 하이델베르그대 교수), 폴 니터(미국 유니온신학대학원 교수) 등의 종교인들과 단독 대담을 가졌다. **신중일 기자**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이 4월 19일 유니온신학대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공익사업 불교NGO 6곳 선정

더프라미스 · 위드아시아 · 마주협 등

안전행정부 주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대상으로 불교 NGO단체 6곳이 선정됐다. 안전행정부는 4월5일 201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대상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1319개 단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불교계 단체는 더프라미스, 위드아시아,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국제연꽃마을, 우리민족서로돕기,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등 6곳이 선정됐다. 글로벌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분야로 이름을 올렸다.

더프라미스는 ‘미얀마 지역 개발 활동가 한국 초청 교육 및 훈련’ 사업으로, 위드아시아는 ‘Dream나래’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는 ‘나마스떼 네팔 앤 코리아’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중국 조선족소학교 도서관 환경개선 및 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는 ‘의료진 파견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국제연꽃마을은 ‘베트남 광남성 어린이집 건립사업’으로 지원을 받게 됐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포교원’ 사칭 주의보

조계종 포교원을 사칭한 법당을 개설해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판매한 일당이 검거돼 불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4월 23일 조계종 포교원을 사칭한 법당을 차려놓고 천도재를 지내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물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한 혐의로 A(60)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전과 6범인 A씨는 서울 불광동에 '삼불사 포교원,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이름으로 법당을 설치한 뒤 지난달 5일부터 최근까지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교의식을 대가로 10만~300만원을 받은 뒤 보석매트와 건강식품을 선물을 주는 형식으로 물품을 판매해 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은 “해당 사례는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종단 명의를 무분별하게 도용한 대표적 사례”라며 “가짜 법당에 대한 불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화성태안3지구 주민 화쟁위에 중재 요청

‘화성태안3지구 원주민 대책위’는 4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에 중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탄원서에서 “정부와 불교계가 ‘화성태안3지구사고’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천성산이나 사패산보다 더 심각한 소모적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화쟁위원회 탄원 사유를 “화쟁위원회가 양 극단의 입장을 절충해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대화의 접점을 찾아나가고, 갈등의 실상을 정확히 보고 양측 태도를 종합해 접점을 도출해 나가는 역할에 주목해 정부 · 용주사 · 원주민 간 갈등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기관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화성태안3지구사고’는 문화재 보호 등 명목으로 택지개발이 중단된 36만평을 둘러싸고 벌어진 정부 · 용주사 · 원주민간 분쟁이다. **신중일 기자**

노동관련 문제, ‘도반’에서 해결하세요

조계종 노동위 · 불교상담개발원 4월 25일 상담소 현판식

종교계 최초 노동자를 위한 심리치유센터가 설립됐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와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4월 25일 신도회관 사무실로 이전한 불교상담개발원에서 노동자 심리치유센터 ‘도반’ 개소식을 진행했다.

노동자심리치유센터 ‘도반’은 노사분규 ·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마음을 달래줄 노동전문 상담소다.

노동위와 상담개발원은 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호협약을 체결해, 노동자와 정리해고자들에게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노동위원회는 노동 현장에서 상담이 필요한 노동자를 발굴해 선정하고, 불교상담개발원은 노동위를 통해 연계된 노동자들의 심리검사, 개별상담, 집단상담 등을 진행한다.

노동전문 심리상담가인 박현진 참만남가족상담센터 상담사와 이경애 심리상담소장, 선업 스님을 중심으로 불교상담개발원 상담사들의 협력으로 운영된다.

종호 스님은 개소식에서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2500여 명에 달하고, 비정규직 · 정리해고 문제와 노동 · 자본의 불합리한 관계와 노동강도로 노동자들의 어깨가 무겁다”며 “도반을 통해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도반 개소식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노동위원장 종호 스님, 사회부장 법광 스님, 상담개발원장 도현 스님, 양승윤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나은 기자**


조계종 노동위원회와 상담개발원은 4월 25일 노동자 심리상담센터 ‘도반’을 개원했다.



일 주 문



수계산림대법회 개최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4월 23~ 24일 범어사 경내 대웅전과 보제루에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보살계 수계산림 대법회를 개최했다.



〈자비의선물〉 5만개 발송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은 4월 22일부터 부처님오신날까지 전 · 후방 군법당에 〈자비의 선물〉 5만개를 발송한다.



서산사명장학금 전달

사회복지법인 봉은 대표 진화 스님은 4월 21일 법왕루에서 봉은장학생 275명에게 서산사명 장학금을 전달했다.



약사여래대불 점안

부산 자비암 주지 자관 스님은 4월 21일 자비암 경내에서 도심포교 21년 기념 약사여래대불 점안식을 개최했다.



사상구불교연합신도 회장 취임

이상갑 부산광역시시의원은 4월 24일 파라곤호텔에서 사상구불교연합신도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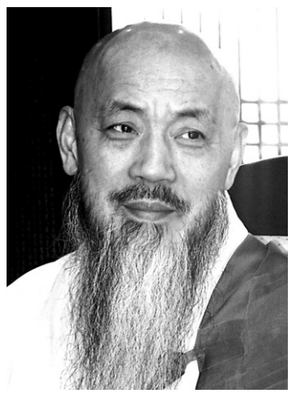


대장경축전 명예홍보대사 위촉

국악명장 김준호 씨는 4월 23일 한국무용가 손심심 씨와 함께 대장경세계문화축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아프리카에 韓불교 학교 세우길"

탄자니아 토지 '아름다운 동행'에 기증한 동봉 스님



아프리카 부지 4만여 평 '쾌척'
조계종 전문학교 건립 급물살
故이태석 신부와 인연 깊어
말라리아 환우 돕기 지속 추진

"모든 것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제가 종단에 아프리카 토지를 기증한 것도 아름다운동행서 아프리카에 학교를 건립하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4월 24일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아프리카 탄자니아 소재 토지 4만여 평을 기증한 경기도 광주 우리절 주지 동봉 스님〈사진〉은 기부를 한 계기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말머리를 풀었다.

이날 동봉 스님이 기증한 토지는 탄자니아 수도 다르에스살람 토지 8만3000m²과 킬리만자로 마랑구게이트 1만1600m² 등 2필지다. 스님 역시 이곳을 학교 부지로 생각하고 구입했으나 종단에서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부지를 선뜻 기증한 것이다.

동봉 스님이 아프리카 구호와 포교에 관심을 가진 것은 우연한 기회였다. 2004년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난 스님은 그곳에 한국불교가 전무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사재를 털어 아프리카 말라리아 환자들을 지원하며 학교 건립의 서원을 세웠다.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된 지 100년이 좀 넘었는데 아프리카에만 250여 개의 한국교회가 진출해 활동하고 있더군요. 한국불교는 공식적으로 17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곳의 종단도 진출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에도 한국불교를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단에서 활동한 故이태석 신부를 만난 것도 이때다. 당시 이 신부는 동봉 스님을 '동봉 신부'로, 동봉 스님은 이 신부를 '태석 스님'으로 서로 부를 만큼 막역한 사이가 됐다. 둘 다 어려운 이들을 위한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급속하게 가까워질 수 있었다.

"이태석 신부와는 형제와 같은 사이였습니다. 같이 학교 부지를 살펴보기도 했죠. 한국에 들어간다는 전화가 마지막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동봉 스님이 학교 부지를 기증함에 따라 아름다운동행에서 추진하는 아프리카 학교 건립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현재 아름다운동행은 상주 직원을 통해 아프리카에 농업전문 학교를 건립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다. 탄자니아 정부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아름다운동행은 오는 5월 28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아프리카 학교 건립 부지와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선포식을 열 계획이며. 자신이 매입한 학교 부지를 종단이 잘 이끌어 줄 것을 동봉 스님은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이제 아름다운동행과의 인연으로 더 크고 여법하게 불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저는 그간 지속해온 아프리카 말라리아 환우를 위한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이번 기증이 한국불교의 아프리카 구호에 조그마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호국연무사 종각 낙성식 봉행



군종교구(교구장 자광)는 4월 19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종각 낙성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 이기흥 중앙신도회 회장, 김상기 前육군참모총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총화종, 복지문화교육전승관 낙성



대한불교총화종 총본산 수진사(주지 남정)는 4월 23일 대웅전에서 복지문화교육전승관과 연화세계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밀운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과 한일불교교류협회 이사장 니시오카 료코,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사부대중 4000여명이 동참했다.

복지문화교육전승관은 건평 7603㎡(2300여평) 규모로 복지공간과 문화 및 교육 공간 등 2개동으로 조성됐다. **노덕현 기자**

옥천사 회주 법조 스님 회고록 발간



포항 옥천사 회주 법조 스님의 고희례 및 회고록 출판기념회가 4월 18일 포항 필로스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렸다. 회고록 〈불속에서 핀 연꽃〉을 부처님 전에 봉안한 법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함께한 많은 인연 속에서 참 잘 살아 왔으며 도반 모두가 수행길의 도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목탁 스님, 뚜라 우쉐만 미얀마하원의장과 오찬



(사)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 목탁 스님은 4월 24일 롯데호텔에서 방한 중인 뚜라 우쉐만 미얀마하원의장 일행과 오찬회동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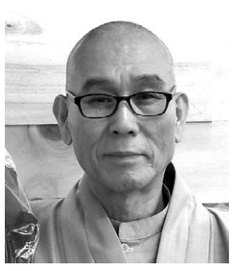
오찬에는 하원의장과 우켄쉐이 미얀마 국회의원(전경련 회장), 뉴흐라이 미얀마 한국대사 등이 함께했다.

이번 방한은 1월 강창희 국회의장의 미얀마 방문에 따른 답방이다. 이 자리에서 우쉐만 하원의장은 "목탁 스님의 미얀마에서의 꾸준한 봉사활동과 민간교류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향후 여러 경로의 발전적 교류를 기대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목탁 스님은 "한국에서 미얀마를 바르게 알리게 위해 다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우쉐만 하원의장 일행은 방한 일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윤병세 외무장관, 강창희 국회의장등과 면담, 기업방문, 한국개발연구원 방문 등을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교정교화 포교할 때 가장 힘나"

현문 스님, 법의 날 '국민포장' 수상



10여 년간 교정교화 포교에 헌신해온 현문정사 주지 현문 스님〈사진〉이 4월 25일 대법원에서 열린 제50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현문 스님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안양교도소 교정협의회 불교 분과위원으로 재직하며 30여회에 걸쳐 불교분과 월례회의, 교정위원 간담회, 교정협의회 총회 등에 참석해 교정 · 교화 현안을 심의 · 의결하는 등 교정협의회의 활성화에 공헌했다.

또한 스님은 50회에 걸쳐 불교 종파교화를 비롯해 수계식, 독경대회, 수용자 교리지도를 실시해 7000여 명의 수용자에게 신심을 키우고 갱생의욕을 진작시키는 등 범죄예방 활동에 기여했다.

현재 현문 스님은 동작구 불교연합회 교무이사, 생명환경자연보전 실천회 이사, 사단법인 한국불교 교화복지 선도회 등을 맡고, 불우출소자 직장 소개 등을 통해 갱생의욕 고취에 헌신하고 있다.

현문 스님은 "재소자들이 인간다운 불자로 살기를 발원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며 "교정 포교활동에 전념한지 12년이 됐는데,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나은 기자**

"수좌 스님들 복지 위해 써달라"

일면 스님, 선원수좌복지회에 1000만원 전달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조계종 호계원장 · 사진)이 선원수좌복지회에 복지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일면 스님은 4월 24일 호계원장실에서 선원수좌복지회 이사장 의정 스님(용문선원 선원장)과 이사 정찬 스님(대흥사 선원 유나)에게 기금을 전달하며 "수좌 스님들은 한국불교의 희망이며 자랑으로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잘 모셔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와 정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슴이 아팠다"고 전했다.

이에 의정 스님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일면 스님의 큰 도움을 잊지 않고 수좌복지를 개선해 수행공동체를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전국선원수좌회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일찍부터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 지난 2010년 발간한 〈선원청규〉 속에 불교적 의미에서의 장기기증을 수록해 장기기증 운동이 확산되는데 기여했다. 또 의정 스님을 비롯해 설정 스님(덕숭총림 방장), 혜국 스님(석종사 금봉선원 선원장) 등 수좌회를 대표하는 스님들이 직접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해 장기기증운동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나은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세계적 여성 명상 지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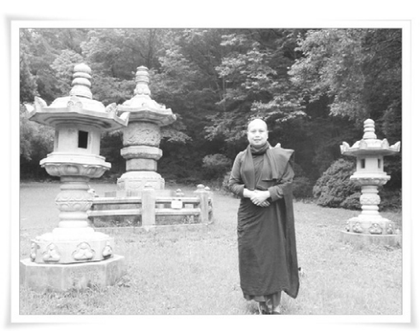
디빵까라 세얄레이 초청10일 집중수행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의 가르침을 그대로

사마타(선정)와 위빠사나(통찰)수행을 단계별로 지도합니다.

수행의 시작에서 깨달음에 이르기 까지 체계적인 시스템

개인 면담 지도를 받으며 수행 할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초심자에게는 명상의 주된 주제인 아나빠 나 사띠(호흡관)와,
사대(지,수,화,풍) 관찰방법이 주어지며 이후 집중과
지혜의 계발에 따라서 개별적인 가르침을 받습니다.







◆ 수행일정안내 ◆

- 일 시 : 2013년 5월 6일 ~ 5월 15일 (9박 10일)
- 장 소 : 봉인사 한길정진원 (www.bonginsa.net / bonginsa@hanmail.net)
- 참 가 비 : 45만원 (스님 : 18만원)
- 입금계좌 : 농협 355-0000-5973-03 (예금주 : 봉인사)
- 준 비 물 : 개인세면도구, 개인컵
- 접수문의 : 031)574-5585, 070-7766-6547

***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배우는 뜻깊은 이자리에 모인 모든 존재들을 위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하실 분들을 두손모아 기다립니다.

제26회 청소년전통예술경연대회

청소년교화연합회는 항상 청소년들과 함께 합니다.!

청소년교화연합회(총재박현성)는 부처님 오신날과 『2013 청소년이 만들어가는 청소년 세상』의 해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오는 5월 26일 일요일 오후2시 동국대학교 중강당에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주최 청소년교화연합회가 주관하며 여성가족부, 대한불교진흥원, 동국대학교,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청교련 지부 · 지회가 후원하는 【제26회 청소년전통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가대상 및 인원 : 800 여명(경연참가 및 관람객)
· 참가팀 – 현재 전국 초 · 중 · 고등학생, 전통문화동아리활동 학생, 청소 단체에 소속된 청소년
· 관람객 – 본 단체회원 청소년 및 일반인

▣ 경 연 부 문
· 전통예술부문 – 국악연주, 탈춤, 고전무용, 사물놀이, 마당극, 농악, 판소리 등 우리 전통예술부문
※예선 통과 팀(개인) 중 각 분야별 추첨을 통해 출연순서를 정하여 경연

▣ 심사위원장 · 김장순(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연구원장)

▣ 특 별 공 연 · 평양민속예술단 공연 · 무형문화재 김장순 공연 · 동대문독서실 수화동아리 공연 · B-boy Dansing

▣ 시 상 · 대 상 1팀 : 여성가족부 장관상 – 상금 및 부상
· 최우수상 2팀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상 – 상금 및 부상
· 우수상 2팀 :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 상금 및 부상
· 장려상 1팀 : 본회 총재상 – 상금 및 부상
· 인기상 1팀 : 본회 총재상 – 상금 및 부상
※ 훈격 및 시상금은 변경될 수 있음



|주 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주 관| 청소년교화연합회
|후 원| 여성가족부,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전국 지부 및 지회, 동국대학교, 대한불교진흥원

참가 문의 : 02)733-5138, 735-8165 전송 : 02)722-6623
e-mail : yeba@chol.com / homepage:www.yeba.or.kr

사단법인 청소년교화연합회

– 청소년전통예술경연대회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지원 합니다 –

자살 시도 소녀 울부짖음…“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밖에 없어”라며 자살 직전 울부짖는 주인공.

불교심리치유극 초연… ‘나도 살고 싶었다’

조계종 포교원 · 불교상담개발원

“야 너 돈 좀 있냐? 가진 것 좀 내놔봐. 갑자기 출출하니 배가고프네. 우리 지금 너한테 돈 빌리는 거야. 빼앗는 거 아니다? 그리고 너 좀 씻고 다녀라. 냄새나니깐…. 그리고 요새 누가 이런 옷 입고 다녀? 하여간 재수가 없다니까….”

“이놈의 여편네가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하려해? 이혼은 절대 안 돼!”

“나는 네 애비랑 절대 같이 못살아. 나 혼자 나가 살련다. 아이구 못살아!”

여중생인 지혜는 쉬는 시간마다 계속되는 학급 동료들의 괴롭힘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담임선생님에게 이야기 하면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고,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아버지와 이혼을 입에 달고 사는 매 맞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상황을 말할 틈은 보이지 않는다.

“엄마, 아빠…. 나 좀 봐줘. 나 너무 힘들어. 행복하게 살고 싶어. 왜 우린 이렇게 살아야 돼? …(중략)… 엄마 미안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밖에 없어.”

결국 학교폭력과 가정불화에 시달리던 지혜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고통을 말 할 수 없는 상황에 절망감을 느끼며 자살을 시도한다.

“자살문제 수면위로 올린 좋은 계기”

‘자살 · 학교폭력’ 주제로 역할심리극

‘자살 영가 위로 편지’ ‘아미타경’ 독송

창립 13주년 자살예방세미나도 열려

4월 25일 늦은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살고 싶었지만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여중생 지혜의 이야기가 즉흥극 형태로 진행됐다.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지원 스님) 포교연구실과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창립 13주년을 맞이해 불교심리치유극 ‘나도 살고 싶었다!’를 개최, 관객들과 인간의 생명과 자살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맞대는 시간을 가졌다.

불교 심리치유극은 ‘EBS 부부가 달라졌어요’ 등에서 심리극으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박희석 마음숲심리상담센터 소장의 사회로 선보였다.

박희석 소장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절망감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관객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공연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즉흥극 형식인 심리극(psychodrama)은 상담자가 등장인물인 내담자에게 역할과 상황을 주어 자신의 삶을 단순히 말로 표현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연기를 하게 해 억압된 개인의 심리적 문제와 사회관계적 문제를 탐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심리치유극에서 박희석 소장은 실제 내담자 대신 배우들과 함께 연극을 진행했다. 주인공인 지혜를 중심으로 둘러싼 학교와 가정환경에서 겪는 감정과 갈등을 표출하게 해 심리치유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주인공이 힘든 현실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결심하고 뛰어내리기 전 독백하는 장면이 나오자, 공연장 전 좌석을 채운 객석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인다.

공연이 끝난 후 ‘영가에게 보내는 편지’ 시간이 이어졌다. 박희석 소장은 관객들에게 나눠준 종이에 자살한 영가들을 위한 위로의 편지를 쓰도록 주문하고, 사연을 소개했다.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용서를 빌게요. 부디 극락왕생하시어, 부처님 자비광명 속에서 이생에서 누리지 못한 행복을 누리소서.”

“조카야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웠으면, 그 길을 선택했겠니. 도와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이어서 정수 스님(불교상담대학 교수)의 집전으로 도현 스님을 비롯해 (포교연구실장), 혜안 스님(포교사무국장) 등 10여 스님이 영가천도를 위한 ‘한문 아미타경’을 독송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10년째 자살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더 이상 자살은 남의 일이 아니고 가족을 포함한 주변 모두의 안타까운 일이자 비극이고 상처인 것이다.

도현 스님은 “자살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픔을 고스란히 감내할 유가족들, 그리고 사회가 함께 지고가야 할 준엄한 과제”라며 “이번 불교심리치유 연극이 자살이라는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우리 사회에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연을 관람한 이현정(29, 서울 서대문구)씨는 “연극을 통해 자살한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었다. 보통 자살한 사람의 유가족은 자살 사실을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만남의 장(場)을 만들어 고통을 치유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살예방과 함께하는 불교’ 세미나

한편 불교상담개발원은 공연에 앞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1부 행사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자살예방과 함께하는 불교’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최훈동 한별정신병원 원장이 ‘자살과 불교’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박종익 중앙자살예방센터 장이 ‘노인자살의 원인과 문제점’을, 이범수 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가 ‘노인자살의 불교적 접근’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범수 교수(동국대 생사의례학과)는 불교의 노인자살 예방 대응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국 불교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주장했다.

이 교수는 노인자살예방에 대해 간접적이고 단편적이며 비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문제로 삼았다. 설법을 통한 신앙교육적 방법으로는 노인들의 자살생각이나 시도를 교정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자살에 이르는 행위는 연속선상에 있는 과정이어서 단편적이기 보다 유기적 대책의 병치(竝置)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 이 교수는 불교계 자산활용에 주목했다. 그는 “예수재와 7 · 7재 등 천도재는 망자의 영혼을 천도하는 의식일뿐만 아니라 유족들을 위무하는 심리치유프로그램”이라며 “천도재의 의미를 바탕으로 집단상담 원리를 적용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이 교수는 불교계 노인자살 예방 활동 방안도 제시했다. 일선 사찰 등에서 죽음과 노인자살예방 활동을 위한 배양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칭 ‘가피회’ 나 ‘미타회’ 같은 죽음준비교육의 하부조직 발족이 그것이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분야에 대한 연구와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며 “또한 자금이 뒷받침 돼야 하므로 포교원 등 상급단체에서는 유관단체들이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지도를 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과 불교상담개발원이 개최한 불교심리치유극 ‘나도 살고 싶었다!’의 한 장면. 중학생인 지혜는 쉬는 시간마다 계속되는 괴롭힘으로 자살을 결심한다.



관객들이 나눠준 종이에 자살한 영가들을 위한 위로의 편지를 쓰고 있다.



정수 스님(불교상담대학 교수)의 집전으로 도현 스님(포교연구실장)을 비롯해, 혜안 스님(포교사무국장) 등 10여 스님이 영가천도를 위한 ‘한문 아미타경’을 독송했다.

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세울 혁신적인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아이센스 탄생!



신제품 경전학습기

보고 · 듣고 · 배우는~

첨단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불교대학에서 의식을 공부하시는 주지스님,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 불경 해석 학습기기!

염불(念佛), 염송(念誦) 모음

▣ 염송경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불설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 보현행원품, 화엄경 약찬게, 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 법성게,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팔대참회문, 대불정능엄신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팔양신주경, 보왕삼매론

▣ 염송의범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 · 49재편, 시식 · 영반편, 장의편, 점안편, 이운편, 의식편, 기타편

경전학습기에는 영어 · 중국어 · 일어의 회화기능 외 여러가지 부가기능까지~

- 통역기능 : 기존 번역기와는 차별화된 120문장의 정확한 4개국어 통역기능까지
- 회화강좌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생활회화 강좌기능
- 전자사전 : 옥스퍼드, 동아프라임, 민중엣센스, 현대옥편, 수능 및 토플단어장 시중에서 25만원에 판매하는 전자사전과 동일한 컨텐츠 탑재
- 녹음기능 : 고성능 마이크가 내장된 선명한 음질의 녹음기능

불교서적전문 인터넷쇼핑몰 [불서책나라]
전화로 주문하시면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6279-2379

“사찰음식, 도시락으로 편히 드세요”

봉은사, 4월 24일 제1회 사찰건강도시락 경연 대회









① 이날 대회에는 예선 42개팀 중 10개 팀이 본선에 올라 열띤 요리경연을 펼쳤다.
② 1등을 차지한 박희경 · 김보연 팀의 ‘봄과 꽃들의 향연’
③ 이날 선보인 도시락들은 현대인들이 주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으로 조리됐다.

10팀 출전 아이디어 돋보여… 1위에 박희경 · 김보연 팀

아이들도 접하기 쉽도록 어른 · 어린이용 등 두 종류로 제작

상품화 추진해 수익금 독거노인 돕기에 사용 예정

서울 봉은사에 봄내음이 풍겨나는 사찰음식 잔치가 펼쳐졌다.

사찰음식 대중화를 위해 봉은사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봄의 설레임, 사찰의 맛’을 주제로 개최한 이날 대회에서는 사찰음식을 현대인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시락 만들기가 진행됐다. 예선에는 42개 팀이 참여했으며, 본선에는 10개팀이 올라 열띤 경연을 펼쳤다.

오후 3시부터 진행된 본선은 70분간의 조리과정을 거쳐 심사위원 심사와 품평단 인기상 투표 등이 진행됐다.

첫 30분간은 심사위원의 질문 없이 요리실습이 진행됐다. 다양한 효소 등을 가져온 참가자부터 직접 케이스를 제작해 출전한 이들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뽐냈다.

이날 대회에서는 ‘봄과 꽃들의 향연’으로 우엉튀김 등을 선보인 박희경 · 김보연 팀이 1등을 차지했다. 2등은 ‘산사의 추억’ 도시락을 만든 박현진 · 박진우 팀, 3등은 ‘산에 들에 도시락’의 문정희 · 장송애 팀에게 돌아갔다.

이날 경연에서는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 소장 적문 스님과 사찰음식점 발우공양 대표 대안 스님, 신승균 파르나스호텔 대표셰프 등 10명이 심사를 맡았다. 이날 심사의 초점은 수행과 건강이라는 사찰음식의 기본 정신을 담고 있는지와 맛과 영양, 대중화 가능성 여부 등이었다.

양파 등을 재료로 사용해 1등에 선정된 ‘봄과 꽃들의 향연’은 어른용과 어린이용 두 가지로 제작됐다.

특히 어린이용 도시락은 사찰음식을 어린이들도 쉽게 접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 대안 스님은 “사찰음식은 기본적으로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착안한 여러 아이디어들이 돋보였다”며 “종단에서도 관심을 갖고 사찰음식 대중화를 추진하는 만큼 많은 대회가 열릴 것이다. 참석한 분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사찰음식의 대중화에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승균 셰프도 “기본에 충실한지를 중점적으로 보았다”며 “요리의 작품성과 대중성이 기본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사찰음식을 도시락을 통해 현대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대회 목적”이라며 “이날 대회에는 화려한 여러가지 요리가 있지만 주안점을 편리성 등에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연대회 내내 봉은사 향적원에는 200여 대중이 모여 사찰음식 전시를 보고 인기상을 투표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사찰음식 도시락 가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 직장인은 “회사 인근 도시락 가격이 보통 6~7000원 선으로 8~9000원 선이면 상품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에서 중식당 여러 개를 경영하고 있는 박송도 씨는 “현재 경연에 나온 음식 재료나 인건비 등을 생각하면 2만원 이상을 책정할 수 밖에 없다”며 “호텔을 통해 기업 워크샵에 제공하는 등 재료를 좋은 것을 쓰는 등 고급화 전략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통음식 개발자인 서정쿠킹 대표 서정옥 씨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가격은 1만원 이내”라며 “조리과정을 단순화하고 케이스 등을 대량생산 한다면 대중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300인분의 연잎밥을 만들어 보시한 봉은사 사찰음식교육팀에서도 사찰음식 경연을 보며 놀라움을 표했다.

사찰음식교육팀 채경희 씨는 “사찰음식이 이렇게 아름답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올지 몰랐다”며 “향후 사찰음식을 할 때 먹는 사람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또 맛있게 먹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음식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봉은사는 향후 사찰음식 조리법을 이용한 다양한 건강 채식요리 개발에 나서는 한편 이날 수상작 일부를 상품화해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대만·일본 사찰음식 한자리에

평택 수도사 5월 11일 사찰음식 대향연 열려

한국 · 대만 · 일본의 사찰음식을 맛보고 관람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소장 적문)는 5월 11~17일 평택 수도사에서 ‘한국 · 대만 · 일본 사찰음식 대향연’을 개최한다.

행사는 5월 11일 오전 9시 수도사 석조33관음보살 점안식을 시작으로 주한미군 · 외교사절이 참석하는 사찰음식 만찬, 한국 · 대만 · 일본 사찰음식 작품관람으로 진행된다. 이어 오후 5시에는 산사음악회도 열린다.

12일에는 사찰음식 무료공개 강좌 및 실습이 진행된다. 또, 한국전통사찰음식연구소 연구회원들의 모임도 열린다.

13일 오전 10시에는 다문화가정 무료 시식 및 선물 증정이, 오후 2시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료실습강좌가 진행된다.

14일 오후 2시에는 아토피 환우, 15일 오후 2시에는 전국 대학 조리 관련 학과의 대학생, 16일 오후 2시에는 아주대 암환우를 위한 무료실습강좌가 열린다. 마지막 17일에는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이 봉행된다. 사찰음식 무료실습강좌는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수도사 주지 적문 스님은 “본 연구소는 개원 21주년을 맞이해 원효 스님의 깨달음이 깃든 천년고찰 수도사에서 사찰음식 대향연을 준비했다”며 “이번에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위로하고 동북아와 대한민국 안보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평택 주둔 미군을 초청해 노고를 격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031)682-3169

이나은 기자

천진불 그림 솜씨 뽐내는 자리 열려

동련, 5월 22일까지 연꽃문화제 예선대회 개최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심산)은 5월 22일까지 전국 11개 도시에서 나누어 제29회 연꽃문화제 예선대회를 연다.

연꽃문화제는 어린이 불자들이 상상하는 부처님과 불교를 글짓기 · 그림으로 표현하는 축제다. 올해 시제는 ‘나의 꿈’ ‘내 마음 속 부처님’ ‘나라 사랑의 길’로 10개 지역에서 릴레이로 예선이 열리며 동련 사무국으로 직접 우편 접수 가능하다.

연꽃문화제는 4월 27일 강원지역을 시작으로 △광주(4월28일, 광주 무각사) △전남(4월28일, 순천 동천고수부지) △서울 및 경기(5월4일, 의왕 청계사) △대구(5월9~11일, 대구 두류야구장) △부산(5월11일, 부산 용두산공원) △울산(5월17일, 울산 정토사) △밀양(5월19일, 밀양 용궁사) △경남(5월4일, 미정) △제주지역(5월22일, 공모전) 등지에서 실시된다.

각 지역별로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장상 등 다양한 상과 상품, 기념품 등이 수여된다. (051)864-4569

이나은 기자



대불청, 서포터즈 위한 콘서트 열어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는 4월 25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1층 홍보관에서 ‘쓰담쓰담 통(하니 얼마나) 통(쾌한가) 콘서트’를 열었다.

행사에는 연등회 자원봉사를 위해 교육을 받고 있는 외국인 서포터즈가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공연은 가수 겸 작곡가 김현성씨의 진행으로 만해 스님과 법정 스님의 시와 산문을 음악으로 들려주고, 가수 백자와 신재창 씨의 공연도 선보였다.

두 번째 콘서트는 5월 30일 ‘고은 시인의 명상과 선’을 주제로 한 시들이 음악 형식으로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나에게 맞는 명상법 찾자

풍경소리학교, 명상 에니어그램 진행

지하철 풍경소리(대표 선묵혜자)가 이끄는 풍경소리학교는 5월부터 명상 에니어그램, 아야선 체험교실 등 신규 응용명상 강좌를 연다.

‘명상 에니어그램’은 동양적 지혜를 기반으로 성격유형을 파악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도구인 에니어그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명상법을 찾아보는 프로그램이다. 5월 7일에 개강해 6주간 매주 화요일 오전 · 오후로 운영되며 이윤정 마인드코칭연구소장이 진행을 맡는다.

이 밖에 ‘무료특강 삼세번-난승법사의 아야선 체험교실’은 5월 2~16일까지 3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아야선 체험교실은 자신의 마음에 주의를 기울여 타인 혹은 환경과 내가 부딪히는 ‘아야~선’을 찾아 이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명상심리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도 마음챙김 명상교실(좌선과 걷기 명상을 통한 알아차림), 나를 찾는 소셜리딩(독서토론과 명상), 부모를 위한 공감대화법(자녀와 평화롭게 대화하기), 어른이놀이터(어른들을 위한 에너지 충전 워크숍), 나와 당신을 만나는 사진교실(사진으로 관계 맺기), 미술 쌩초보교실(인물화/소묘/드로잉) 조현의 몸치유교실(건강이론, 기공과 체형교정) 강좌가 5월 첫 주 동시에 개강한다. (02)736-5583

이나은 기자

PX 없는 최전방에 ‘자비의 선물’ 간다

불교여성개발원, 군장병 3천명에 간식 전달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최전방에 있는 군장병에게 ‘자비의 선물’이 전달된다.

불교여성개발원 명상리더십센터(센터장 황수경)는 5월 1일 서울 종로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에 모여 ‘자비의 선물’ 3000개를 포장해 화천 7사단 3연대를 포함해 양구 · 인제 · 고성 · 강릉 · 철원 등의 연대로 보낸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최전방 부대에는 외출과 면회가 불가능한 북한군 철책선에서 근무 중인 GOP, GP 장병을 위한 매점(PX)이 없어 물품이 부족하다.

또한 실탄을 소지하고 있어야하므로 항시 긴장상태를 놓지 못해 정신 · 육체적 스트레스가 많다”며 “군인들의 수고를 위로하고자 불교여성개발원 회원들과 함께 ‘자비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상리더십센터는 현재 ‘자비의 선물’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

후원금은 병사 한 명당 3300원이며 후원자는 ‘자비의 선물’ 뿐 아니라 군법당에 가족등, 영가등, 생일, 승진, 합격축원을 할 수 있다.

후원금 접수 및 선물포장 봉사에 관한 문의는 불교여성개발원으로 하면 된다. (02)722-2101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3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5월 중
◆ 개강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화제의 신간 한글 법화경



一大事 因緣

이 세상(三界)이 편한함이 없는 것은 마치 불난집과 같으며, 많은 괴로움이 가득차서 가히 힘이 겁나고 두려우니라..... 그 가운데 중생은 모두 바로 나의 아들이거늘 ..... 오직 나 한 사람만이 능히 구원하고 보호 하느니라!

한글 법화경은 구마라집 한역 묘법연화경을 한글로 풀이한 경전이다.

법화경은 불성(佛性)인 참 생명의 영원실상을 명쾌하게 들어내어 인간의 상상을 뛰어 넘는 경전으로 대우주를 지배하는 최고의 힘 그 자체라 하겠다. 능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과 번뇌를 여의케한다. 우주와 같은 마음을 직시하고 법화경을 되풀이하여 읽고 쓰면 더욱 참 맛이 우러나오는데 영원한 생명의 노래가 된다. 매일 읽고 쓰게된 공덕은 불가사한 현상의 기적으로 실제 일어나 신비의 체험은 다반사(茶飯事)며 삼세제불 부처님의 축복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은 실천적인 생활불교의 이정표이며 신앙적이라 영험실화가 가장 많음을 알게 될것이다.

중생이 본래 부처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라.
큰 법을 온세상에 널리펴라.
법화 행자여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 법보시 주문은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송월스님옮김 / 신국변형판 / 584쪽 / 정가 20,000원

불교성서

“부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
THE LIFE AND HIS TEACHING OF BUDDHA GOTAMA SAKYA



정가 30,000원

제 1편 : 부처의 생애
제 2편 : 부처의 가르침

불교의 창시자이신 석가모니 부처(sakyamuni Buddh)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이며, 불교교단이 어떻게 형성되어 발전되었는가를 그의 생애의 기록을 통하여 생생히 이해할 수 있다.

- 부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은 곧 진리의 말씀.
- 불교란 「삶의 바른길」의 실천을 통해 불교의 이상인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

건강하게 사는 법 — 신비의 호흡요법



정가 12,000원

건강하고 행복한 삶
그 어느때 보다 건강을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

히말라야의 영원한 스승 바바지를 통하여 인간의 육체와 정신의 올바른 호흡을 제시하고 인간의 우주적 역할과 영원한 존재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명상과 요가의 수행법 그리고 호흡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전국 서점, 인터넷 판매중!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인터넷쇼핑, 보험 등으로 기부하세요”

다양한 기부방법, 불교계 복지기관 도울 수 있어

“기부는 어렵다, 돈이 많아야 한다, 대상을 찾기도 쉽지 않다.”

흔히 ‘기부’를 떠올리면 이런 생각부터 들기 마련이다. 그만큼 기부는 우리에게 아직까지 자연스런 일은 아니다. 내가 가진 것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남에게 주는 행위라는 좋은 명분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누구나 당연히 하는 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남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내 주머니 사정이 뻔하기 때문일 것이다. 기부도 남을 돕는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가진 것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불교계 복지단체는 기부쇼핑몰, 네이버 해피빈 등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기부금을 모으고 있다. 불자들의 후원으로 모인 기부금은 복지관 운영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 인터넷 서핑 시간을 조금만 할애해서 기부활동에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 예비 사회적 기업 블루게일은 기부금 조성 종합쇼핑몰 ‘나눔브릿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사회복지 수요자와 기업, 개인 단체기부자를 연계해주는 사회복지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눔브릿지’는 기부를 필요로 하는 복지단체, 대학, 재단, 협회 등에 기부쇼핑몰 플랫폼을 개설해 주고 상품 주문 · 경제, 콜센터 운영을 맡아 판매되는 상품의 5%가 자동 기부되게끔 만드는 시스템이다.



‘나눔브릿지’를 통해 기부 쇼핑몰을 운영하는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쇼핑몰 구매금액 5% 자동 적립
승가원 · 경주장복…기부보험 판매

기부자는 추가 비용 없이 기부를 하고 싶은 기관을 선택, 해당 복지기관에서 ‘나눔브릿지’를 통해 운영하는 기부 쇼핑몰에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상품들을 구입하면 된다. 구입 후 구매 금액의 5%가 해당 기부처에 본인 명의로 전달된다.

현재 불교계에서는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서호노인복지관,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이 나눔브릿지를 통해 기부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기부 포털 사이트 해피빈(happybean.naver.com)을 통해 보다 손쉽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 1개에 100원의 가치를 지닌 ‘콩’ 아이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의 클릭 한번으로 돈들이지 않고 간편하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해피빈 기부의 큰 장점이다.

해피빈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검색창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천태종 사회복지재단’ ‘승가원’ ‘연꽃마을’ ‘생명나눔실천본부’ 등 불교계 복지법인을 검색 후 관련 복지기관에 기부하면 된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해피빈 블로그에 ‘이달의 환우’를 선정해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누적기부액 800만 원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복지기관 모두가 생명나눔실천본부처럼 관심을 받는 것은 아니다. 모금함이 개설된 지 1년이 지나도 참여도 0명, 기부금 0원으로 모금운동을 종료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한 복지관 관계자는 “홍보 부족 · 전담 인력이 없어 지속적인 관리가 힘들다는 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모금함이 무성의하게 만들어져 네티즌들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종신보험을 통해 손쉽게 어려운 이들을 위해 보시할 수 있는 후원방법도 있다. 바로 ‘기부보험’이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태원)과 교보생명은 ‘참사랑 기부보험’ 협약을 맺고 참사랑종신보험, 정기보험의 두 가지 형태를 판매하고 있다. 35세 성인남성이 주계약 1천만원, 만기 20년의 보험을 만기 시까지 납입할 경우 사망 시에 1000만원이, 만기까지 생존할 경우 305만원의 보험금이 승가원에 기부된다. 이밖에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삼성생명과 사망보험을 복지관에 기부하는 ‘기부보험’을 협약해 판매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노인부모 보호 위해 각계 전문가 모여

서울어르신상담센터, 공개상담사례회의…희유 스님 제6대 관장

신경정신과전문의, 사회복지학교수, 상담심리전문가 등 각계전문가들이 모여 노인상담사례 개입의 통합적 접근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 부설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는 4월 24일 한국불교역사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차 공개상담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는 노인상담 실무자를 대상으로 ‘노인부모 보호를 위한 개입사례’를 주제로 복합적인 노년기 특성과 그에 대한 개입 방안을 다루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성희 교수(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전문가 박애선 소장(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경정신과전문의 신승철 원장(큰사랑노인전문병원), 사회복지전문가 남석인 교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가 참여했다.

한편 서울노인복지센터 제6대 관장으로 희유 스님이 취임했다. 희유 스님은 2007년 홍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맡은 후 초대관장으로 부임후 현재까지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 지역사회와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했다. 현재 동국대 행정대학원에서 박사과정(복지행정학과)중에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제6대 관장으로 취임한 희유 스님

희유 스님은 이날 인사말에서 “이번 공개상담사례회의는 노년 상담의 복합적 문제에 대한 통합적 개입방법을 살펴 볼 수 있을뿐 아니라 상담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체계성을 갖출 수 있는 기회와 노년기 상담의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장(場)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지역 어려운 청소년위해 써주세요”

중랑구사암聯, 동행에 장학금 지정 기탁



중랑구사암연합회 소속 5개 사찰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월 23일 아름다운 동행에 장학금 2600만원을 지정기탁했다.

중랑구사암연합회 소속된 5개 사찰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역의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장학금을 쾌척했다.

법장사(주지 퇴휴), 보현정사(주지 정오), 성덕사(주지 원성), 한성사(주지 법농), 극락사(주지 철우) 등 중랑구사암연합회 소속 사찰들은 4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중랑구 지역 청소년 및 대학생 장학금 2600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지정기탁했다.

이날 자리에서 법장사 주지 퇴휴 스님은 “중랑구 봉축법회에서 매년 지역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해에는 이와 별도로 종단과 함께 이웃을 도울 방법을 생각하다가 동행을 통한 지정기탁을 생각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아름다운 동행 이사장)은 “사찰은 지역의 문화와 복지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며 “중랑구 5개 사찰의 사례를 보고 다른 교구의 수말사들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어려운 이들을 위해 마음을 더 내주시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번 기금은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중랑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되며 ‘중랑구 지역 청소년 및 대학생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템플스테이로, 학업스트레스 힐링하자

목동청소년수련관, 5월 4~5일 백련사서

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관장 지완)은 학업과 일상에 지친 청소년들을 위해 5월 4~5일, 경기도 가평에 백련사에서 1박 2일 간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템플스테이는 108배, 예불, 참선, 발우공양 등 자신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되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시간들로 마련된다.

목동청소년수련관은 “특히 백련사에는 잣나무 숲 트래킹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자연환경과 함께 하는 건강한 여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템플스테이는 초등3학년 이상 청소년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목동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www.wawa.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련관은 5월 25일 오후 1시 서울 양천구 목동 파리공원에서 청소년, 지역사회기관, 마을공동체가 함께하는 ‘착한 마을축제’를 개최한다.

행사는 희망마을, 끌림마을, 감동마을 등 3가지 테마로 열린다.

희망마을에서는 지역기관, 마을공동체, 청소년동아리가 연계해 나눔 장터 및 먹거리 장터를 열고 얻어진 수익금을 저소득, 위기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한다.

끌림마을에서는 청소년의 새로운 경험과 행복한 주말여가시간을 위한 다양한 테마의 체험활동(진로 등) 및 이벤트를 운영한다.

또한 감동마을은 축제 속 또 하나의 즐거움으로 목동청소년수련관 오케스트라 및 청소년동아리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질 계획이다. 와 연계하여 나눔 장터 및 먹거리 장터를 열고 얻어진 수익금을 저소득, 위기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한다.

착한마을축제는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유아부터 청소년,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축제 당일 현장접수 후 바로 참여 가능하다. (02)2642-1318

이나은 기자

생명나눔, 5월 4일 ‘희망걷기대회’ 연다

장기기증희망등록과 자살예방 홍보를 위한 걷기대회가 열린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5월 4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공연장에서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늘푸른 희망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6회를 맞는 희망걷기대회는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대하고 생명존중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대회현장에서 장기기증 및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을 받으며 치료비 지원금 전달식과 청소년 대상의 별별 노래자랑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여의도 공원 둘레 4㎞를 걸으며 희망편지쓰기, 페이스페인팅, 포토존 등 부대행사를 즐길 수 있다.

선착순 1000명에게 기념 티셔츠를 제공하고 아이패드 · 자전거 등 경품도 추첨할 예정이다. (02)734-8050 이나은 기자

이천시장애인복지관, 5월 31일 볼링대회

이천시장애인복지관(관장 신운화)는 5월 31일 오전 9시 경기 이천 미란다볼링장에서 ‘제3회 전국지적장애인볼링대회’를 개최한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태원)과 이천 신협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장애인복지관 및 생활시설 등 32개 기관, 100명의 선수, 자원봉사자와 진행요원을 포함해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방법은 남자 선수 2명, 여성 선수 1명의 혼성단체전으로 진행되며 남녀 성비에 따라 최대 20점의 핸디가 주어진다.

경기는 예선전과 본선, 이벤트 경기 등 3게임이 진행되며 성적에 따라 최대 15팀에게 상금이 수여된다. 대회를 통해 총 상금 200만원이 대상자들에게 수여되며 트로피와 메달, 기념품, 경품 등 다양한 부상이 주어지게 된다. 이나은 기자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 법 자 세 교 정 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 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교 육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병·의원 진흥회 회장 / KBS / MBC출연,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 순환기성 질환 임상 교육시간 : 5 ~ 10회 환영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진골 척추교정법 교육 안내문

상담전화 016-560-7868

척추교정 및 인체의 균형(밸런스) 조절교육
외과전문의 및 한의사, 건강에 관심있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익혀야할 척추교정법!

MBN 천기누설 방송 (2012. 9. 20)에 소장이 직접교육시켰던 외과의사 및 한의사와 같이 출연하여, 척추변형과 오장육부 질병의 중요성에 대하여 방송에 출연한바 있음. (네이버 “진골척추” 검색 동영상으로 방송을 볼 수 있음) 소장은 2006년부터 한의사 수백여명과 다수의 외과의사들을 상대로 척추교정과 인체의 균형을 통합적으로 교육시킨 사례가 있는 교육의 전문가임. 진골척추교정법은 카이로프라틱이 아닙니다!

암, 치매, 각종 통증! 척추교정으로 대부분의 질병 다스릴 수 있다.

30년 통증해결사 (MBN 천기누설 18회 ‘척추편’ 방영)

진골척추 교정법연구소 임상만 소장은 현대인들의 허리 관련 통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법을 알려 주고 있어 화제다. 진골척추교정요법은 경추, 흉추, 요추 천장관절의 미세한 비틀림에서 비롯된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오는 근관절질환과 내장질환, 피부질환, 치매의 병변등은 척추 교정법만으로 해결되며, 통증이 개선되고 몸이 편안해 지는 교정요법이다. 진골척추교정법은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직접적으로 뼈를 만지고 굳혀 나가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근육이 발달한 젊은 사람일수록 치료기간이 짧고 노약자나 여성들의 경우 근육이 약해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대체로 치료시간이 짧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치료법이라고 임 소장은 밝혔다.

척추교정분야에서 30년의 경험으로 근골격계 통증의 경우 5분정도의 척추교정요법으로 아주 극심한 만성통증 환자의 경우라도 통증이 해결되며 치료 성공률도 99%의 성공률로 언론매체에서도 알려진바 있다. 임 소장은 오랫동안의 연구 끝에 진골척추교정법을 창안했다.

대표적인 척추질환으로는 두통, 목의통증, 어깨통증, 엉덩이통증, 손과 발의통증, 관절통 디스크, 좌골 신경통, 사고로 인한 목의 통증등 100여가지가 넘는다. 이 밖에 위장장애, 고혈압, 간질환, 요실금, 신경질환에도 척추교정으로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임 소장의 탁월한 능력은 고질적인 아토피, 습관성 유산 불임등을 치유시켜 수많은 한의사들이 배우고 추천해 주고 있다. 뿐만아니라 경희대 한의대 교과 과정으로 채택되었고 그 기술의 뛰어남은 대내외적 으로 입증해 왔다. 이와 함께 암 통증 개선에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항암치료의 부작용감소로 환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MBN TV 방송에 출연하여 척추통증에 관한한 유명 인사였던 임 소장은 척추의 형태만 보고도 통증이나 병의 유무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한다.

임 소장은 향후 진골척추교정법의 뛰어난 부분을 현대적이고 과학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2013년 3월 30일 토요일자 6면
2013 POWER & TOP LEADER 기사중에서

“잊고 있는 역사 되새길 마지막 기회”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4월 25일 예방한 이치노헤 쇼고 스님에게 “용기있는 출판에 감사하다”며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이치노헤 스님이 4월 21일 남산 약초 관음사였던 웨딩홀에 남아있는 석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치노헤 쇼고 스님 방한 주요 일정

4월 21일
남산 약초관음사 유구 답사

4월 23일
〈조선 침략 참회기〉 출판 기자회견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와 간담회

4월 24일
〈조선 침략 참회기〉 출판 기념회

4월 25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예방
현대불교신문사 방문
불교평론 4월 열린 논단 강연

4월 21일 남산예술원 웨딩홀 입구. 일본 조동종 아오모리 운쇼지 주지 이치노헤 쇼고 스님과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이 자리했다. 한일 양국의 두 스님이 웨딩홀을 찾은 이유는 이곳이 일제 강점기 당시 남산 약초관음사가 있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두 스님의 답사는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세계 최대 관음성지로 발원해 건립된 남산 약초관음사의 흔적을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부지 일대를 둘러보니 당시 사찰의 석등이 웨딩홀의 장식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사찰의 기단 석재 일부도 확인됐다.

유구들을 찬찬히 둘러본 이치노헤 스님은 “일본에도 일제 시대를 연구하는 학자가 별로 없고, 불교사는 더욱 전무하다”며 “이 시대가 제대로 연구돼야 동아시아 전체를 제대로 조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약초관음사 터는 50년만 지나면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지금 시대는 한일의 아픈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Last Chance)”라고 강조했다.

종걸 스님도 “아픈 역사를 망각해서만은 안된다.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세세한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이치노헤 스님의 방한 주요 목적은 자신의 저서 한국어판 〈조선 침략 참회기〉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4월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스님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불교가 유입됐던 배경에 대해 “백제에서 전해된 일본불교는 유입 당시부터 지배계층을 위한 종교였던 탓에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것이 식민시대 조동종이 조선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러 · 일전쟁을 반대하다 처형된 우치야마 구도 스님이 있었다. 식민정책에 반대했던 일본 불교계 인사들을 발굴하는 것이 내게 남은 과제”라며 “책의 인세를 받지 않겠다. 좀 더 많은 한국인이 이 책을 읽고 일본 불교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의 강연도 이어졌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상임공동대표 퇴휴)는 4월 23일 조계사 대설법전에서 이치노헤 스님과의 간담회를 열었으며, 4월 25일 〈불교평론〉 열린논단 강연에 참여했다.

23일 간담회에서 이치노헤 스님은 한국 불교시민사회단체에게 “인권, 평화,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불교가 제대로 갈 수 있다”며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을 믿고 똑바로 가라”고 당부했다.

열린논단에서는 “일본불교계가 한국에서 행한 침략 옹호 행위를 참회하는 등 양심선언이 이어져야 한다”며 “먼 미래를 내다보고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 방문도 이뤄졌다. 4월 25일 이치노헤 스님이 예방한 자리에서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한일 역사 문제 등으로 어려운 시점에 〈조선 침략 참회기〉라는 책을 낸 것은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치하하기도 했다.

한편, 이치노헤 스님은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신중일 · 노덕현 · 정혜숙 기자**

‘올바른 역사’ 화두로 만난 韓日 스님

아름다운 인연– 종걸 스님과 이치노헤 스님


일제시대의 뒤틀린 역사를 화두로 살아가고 있는 종걸 스님〈사진오른쪽〉과 이치노헤 스님〈사진왼쪽〉.

한국 유일 일본식 사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은 고맙다. 잊혀져 가고 있던 동국사에 일제 참략을 참회하는 비를 세우고 이를 비판하는 책까지 출판한 한 일본 스님이.

일본 조동종 운쇼지 주지 이치노헤 쇼고 스님은 미안하다. 일본의 과오를 참회하고 속죄하는 길이 사료를 통해 알리는 수 밖에 없어서.

종걸 스님과 이치노헤 스님은 국적과 언어만 다를 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도반이다. 두 스님의 만남은 일본식 사찰 동국사에 대해 알고 싶다는 이치노헤 스님의 요청을 받은 2011년 김호성 동국대 교수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종결 스님은 첫 만남의 당시를 강렬하고 통하는 것이 있었다고 술회했다. 개인부터 올바른 교류를 해야 한다는 가치관도 통했다.

“처음 만났는데 이치노헤 스님이 나를 ‘전생의 부인’이라고 부르더군요. 운명적 만남이라는 의미지요. 일본 불교는 격식을 따져서 사업 진척이 잘 안되는데 이치노헤 스님은 빠르게 일을 처리해줍니다. 동국사 참사문비 건립도 이치노헤 스님의 추진력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참사문비 건립을 먼저 요청한 것은 종걸 스님이다. 올바른 교류를 위해서는 이 같은 참회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치노헤 스님은 흔쾌히 수작해 ‘동국사를 지원하는 모임’과 함께 비를 세웠다.

동국사에 세운 참사문비 때문에 이치노헤 스님은 우익들의 공격에 노출되기도 했고, 자신의 종단 조동종은 저작권을 들어 비 철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스님은 두려워하면 아무 일도 못한다고 강조했다.

“종걸 스님이 저에게 자주 해준 말이 있습니다. ‘제 옆에 부처님이 계시니 아무 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불법을 따르면서 제 길을 갈 뿐입니다.”

실제 이치노헤 스님은 일본 위안부 할머니와 결연해 후원하고 있으며, 수요집회도 참가해 일본 대사관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했다. 이 같은 일련의 행동은 모두 부처님 제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게 이치노헤 스님의 지론이다.

같은 길을 가는 두 스님이기에 비틀어진 한일관계를 정상화에 대한 해법도 비슷하다. 연구를 통한 올바른 역사 찾기와 아래로부터의 교류이다.

“과거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현재도 미래도 올바로 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종교와 정치는 철저하게 분리돼야 합니다. 저는 정치가 종교를 전쟁의 도구로 사용했던 과거를 고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이치노헤 스님〉”

“한일관계는 매우 특수한 관계입니다.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교류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래로부터의 교류가 올바로 이뤄진다면 정부 차원의 교류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를 가져옵니다.〈종걸 스님〉”

글= 신중일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일본불교, 과오의 기록을 담다

이치노헤 쇼고 스님, 〈조선 침략 참회기〉 한국어판 출판

‘이 독경은 메이지의 원훈 이토 공(이토 히로부미)을 하얼빈 역에서 쓰러뜨린 자객 안중군의 아들 중생 군이 공이 서거한지 30년 세월이 지난 오늘, 기이하게 같은 달에 공 영전에 아버지의 죄를 눈물로 사죄하여 그 영혼을 위로함과 동시에 아버지의 추선 공양을 올리고… 〈후략〉’

이는 1939년 10월 15일 〈경성일보〉에 보도된 ‘이토 히로부미도 받아들였다 박문사 사죄의 법요’ 기사 중 일부다. 당시 신문에는 조동종 박문사 주지 우에도 슌에이가 안중근의 위패를 안준생에게 건네는 사진도 실렸다. 일본 불교 종단인 조동종이 나서서 안중근의 아들에게 이토 히로부미에게 참회시키는 아이러니컬한 모습을 만들어낸 것이다.

일본 불교 조동종이 아시아 · 태평양 전쟁 당시 조선에 와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낱낱이 파헤친 〈조선 침략 참회기〉가 발간됐다.

저자는 일본 조동종 아오모리 윤쇼지 주지 이치노헤 쇼코 스님. 원제는 〈조동종은 조선에서 무엇을 했나〉로 지난해 발간돼 일본 전국도서관협회 우수 도서로 선정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당시 日조동종 승려들 전쟁 지원 첨병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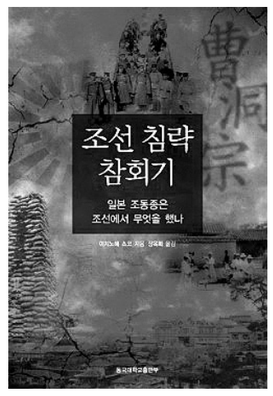
10년 간 자료 수집해 “역사 인식 바로 세우길”

이치노헤 스님은 책을 통해 한일 합방부터 일본의 패전까지 조동종이 당시 조선 반도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철저한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고증하고 있다.

조동종 승려 다케다 한시가 1895년 명상황후 시해에 깊이 관련된 사실부터 청일 · 러일전쟁 등에서 종단 승려들이 첨병 역할을 한 것, 한일합방을 축하하기 위한 축하 법요를 봉행하고 전국에 포교소를 개설해 황국신민화에 앞장선 것들을 명백히 책을 통해 밝히고 있다.

현 신라호텔 자리에 이토 히로부미를 현창하기 위한 박문사를 세우는 데 조동종 승려들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이 자리에서 안중생이 이토에게 사과를 하게 한 역사의 아이러니를 담았으며, 군산의 수탈사와 함경북도 군사도시 나남의 패전 후 풍경까지 세세히 그려놨다. 또한 군산 동국사의 참사문비를 세우기까지 과정도 생생히 기록했다.

일본 조동종 이치노헤 쇼고 스님. 자신의 책 〈조동종은 조선에서 무엇을 했나〉의 한국어판을 출간했다.


이치노헤 쇼고 지음/장옥희 역/동국대출판부

이 같은 방대한 조선 침탈사를 저술할 수 있던 것은 전적으로 이치노헤 스님의 원력이었다. 스님은 10년 간 일본, 한국을 오가며 사재를 털어가며 사료를 모았다. 오로지 제대로 된 불교사를 조명하고 싶어 이뤄진 대작 불사였다.

이치노헤 스님은 4월 23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점기 불교사를 연구하는 학자는 일본에도 별로 없다”며 “제대로 된 불교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사료를 모아서 기록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로 한일 양국 도서관과 기록보관소를 찾아 잠들고 있던 사료를 발굴했다. 인터넷 옥션에 올라와 있는 당시 상황을 기록한 엽서들도 구입했다”며 “이렇게 모은 사료들은 책을 저술한 후에 군산 동국사와 동국대, 군산시에 전부 기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치노헤 스님이 자신의 종단의 치부를 세상에 알리면서까지 전하려는 것은 무엇일까?

이치노헤 스님은 역사의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스님은 “일본인은 당시의 시대를 잊으려하고 있다. 한국의 젊은 세대들도 이 시대에 대한 역사 의식이 희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역사는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다. 역사의식이 없다면 올바른 미래로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이 분단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이 책을 통해 일본 불교가 한반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가 노력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책의 마지막, 이치노헤 스님은 동아시아 근대 불교사는 현대로 이어지고 있고, 조동종의 포스트콜로니얼(후기식민사회)은 아직도 방황하는 중이라고 쓰고 있다. 한일 양국의 불교계가 근대를 바로 볼 때 아픔의 연쇄 고리를 끊어 낼 수 있는 지혜를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치노헤 스님은 던지고 있다. **신중일 기자**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해원정사 추모원(납골당) 안내

천하의 명당

예로부터 집터를 잘 골라야 집안이 번성하고, 조상의 묘터를 잘 골라야 후손까지 번성한다고 하였습니다. 해원정사 추모원은 일자문성 삼봉산을 마주한 자궁혈에 위치하여 모든 조건을 고루 갖춘 명당 중의 명당으로, 자손들은 수명장수하고, 하는 일에는 최고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리적 편의

해원정사 추모원은 광주 시내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유족들이 언제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또한 일조량 좋고 쾌적하며 산세의 푸근함이 느껴지는 이곳에서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후대의 번영을 기원함으로써, 가신 분과 보내시는 분 모두가 함께 안락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도량의 복덕

매일 도량에 울려퍼지는 목탁과 염불소리는 돌아가신 영가의 천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유가족에게도 큰 복덕이 되어 돌아오며, 후손들의 삶을 편안하게 합니다.



해원정사 추모원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385번지
전화 (062)234-4576, 222-7979 / 인터넷 주소 : www.해원정사.kr

“배움·가르침에 높낮음이 없었던 분”

탄허 스님 탄신 100주년 교육이념 세미나

“1967년 역경원이 만들어지며 탄허 스님이 원장으로 계실 당시 역경 연수원 신분으로 가까이서 큰 스님을 모셨습니다. 매번 강연 때마다 탄허 스님이 제일 먼저 강연장에 오셔 계시는 것입니다. ‘스님, 스님께서 공부로는 첫째 둘째 손가락 꼽는 거로도 부족한 정도인데 어찌 제일 먼저 와서 앉아 계십니까.’ 큰 스님께서 그때 나무라는 말투로 말하셨습니다. ‘불치하문이라’ 공부에는 어린 사람에게도 묻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스님의 학자로서의 정신이 지금 저의 자세를 갖게 했습니다.”

근현대불교의 선지식 탄허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스님의 인재양성과 교육이념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월정사와 한국불교학회 공동 주최로 4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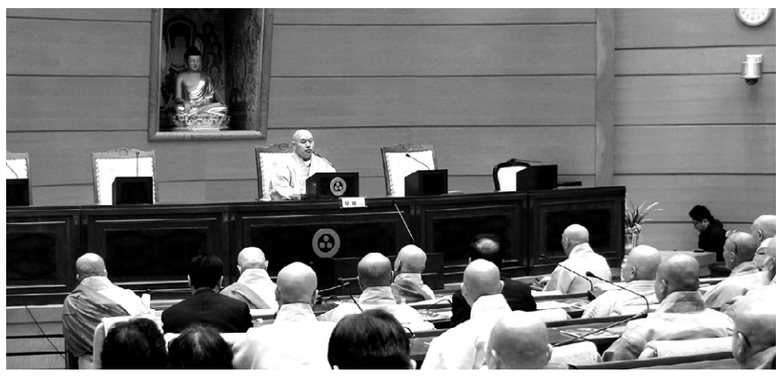
이날 기조발제에서 탄허 스님의 법제자 무비 스님은 탄허 스님과의 인연담을 추억하며 화엄경을 빼놓고서는 탄허 스님을 알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무비 스님은 “이후 부산 삼덕사에서 신화엄경합론 교열에 참석했는데 큰 스님은 하루 12시간 씩 교열을 보시면서도 삼보법회나 고려대 강연을 한번도 빼놓지 않으셨다”며 탄허 스님의 정진에 대해 소개했다.

무비 스님은 “역경을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항상 ‘공부해라. 이것 하는 이유도 보고 공부하라고 하는 거다’ 고 하셨다”며 “큰 스님의 원동력은 후학양성에 있었다”고 밝혔다.

무비 스님은 “큰 스님께서 ‘신화엄경합론’을 출간 하신 뒤 2년 뒤 월정사에서 화엄산림법회가 열렸다”며 “그 때가 큰 스님의 영산회상이 아닌가 싶다”고 술회했다.

무비 스님의 기조발제 이후 6명의 관련 학자와 전문가들이 나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무비 스님이 탄허 스님의 교육이념과 사상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300여 대중이 운집했다.

역경도 후학위한 교재편찬 일환
불치하문, 용맹정진 항상 강조

윤선태 동국대 교수는 ‘탄허 스님의 인재양성과 교화활동’에서 “탄허 스님이 교육불사를 강조한 이유는 교육이 가장 큰 기쁨이었고 그 깨달음과 조우한 순간이었기 때문”이라며 “그 방대한 역경사업 조차 인재양성을 위한 교재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도 ‘탄허의 경전번역의 의의와 강원교육에 끼친 영향’에서 “불교 소의경전을 거의 완역 간행한 작업 자체가 1956년 인재양성을 위한 오대산 수련원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이원석 동국대 교수는 ‘출가 이전 탄허의 전통학술 수학과 구도입산의 궤적’에서 “출가 이전 탄허 스님에게는 부친의 역경, 필기의 중시와 후천개벽사상, 삼교합일과 정통한학교육 등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는 ‘탄허 스님의 교육이념과 정신’에서 “탄허 스님의 교육은 불교를 정점으로 한 동양사상의 생활화와 현대화였다”라고 표현했다.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탄허의 주역선해 역주와 노자 장자 역해’에서 “탄허 스님이 남긴 수많은 교재들은 일종의 법사리”라며 “수많은 내전의 현토구결, 강술 역해, 외전 역주 등은 한국불교와 사상연구의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동국대 교수 자현 스님은 ‘탄허 스님의 미래인식과 현대사회의 다양성’에서 “탄허 스님의 사상에는 화엄이라는 모든 가치들의 다양성을 용인하는 정신이 내포돼있다”며 “가치 충돌로 국가와 민족 성장이 저해되는 지금. 탄허 사상이 반드시 재해석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월정사 회주 현해 스님을 비롯해 탄허문화재단 이사장 혜거 스님,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등 문도들과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등 300여 대중이 모여 국제회의장을 가득 메웠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고승들의 시문학 세계를 논하다

동방대학원대 제1회 학술발표회 성황

한국 고승들의 선시를 최초로 고찰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동방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는 4월 23일 동방대학원대학교 강의실에서 초파일 기념 제1회 학술발표회 ‘근대 한국고승의 시문학 세계’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의 ‘선시란 무엇인가?’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이종찬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의 ‘한국선시의 특징’, 진관 스님의 ‘백용성 스님의 시문학 세계’, 지원 스님의 ‘효봉 스님의 선시세계’ 등이 발표됐다.

법산 스님은 ‘선시란 무엇인가?’ 기조발제에서 선시에 대해 ‘깨달음의 노래’이며 ‘오도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출한 언어’라고 정의했다. 법산 스님은 선시를 오도, 종법, 권행, 선기, 종고, 입적 등으로 분류해 고찰 한 뒤 “이는 문자적 시구를 가차하였을 뿐 공안과 다를바 없으므로 이를 이해하는 것은 또다른 망상에 떨어질 것”이라며 “언어의 그물에 걸리지 말고 직잠으로 직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찬 동국대 명예교수는 ‘한국선시의 특징’에서 “언어 자체가 어떤 것을 상징화한 것이기에 언어소통 중 가장 정확한 전달 단계가 상징”이라며 “선적 경지를 상징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선시”라고 설명했다. 이 명예교수는 선시 기법을 대칭개념을 대립시킨 후 합일시키는 쌍관, 선의 상징을 표현한 비유, 절약된 언어표현인 절려, 사물을 이해하는 여러 방법을 되풀이 하는 점층 등 4가지 방법으로 나눠 설명했다.



이종찬 명예교수가 선시 구성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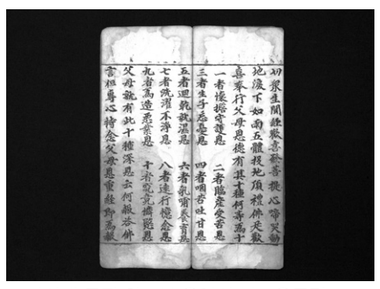
진관 스님은 ‘백용성 스님의 시문학세계’ 발제를 통해 “용성 스님은 선시를 창작하지 못했다”며 “그 이유는 출가해 승려로 살았던 때는 격변과 혼란의 시기였으며, 수행자로서 역할을 다하려 했을때는 문자를 중요시여기지 않았던 역사만을 추종하던 때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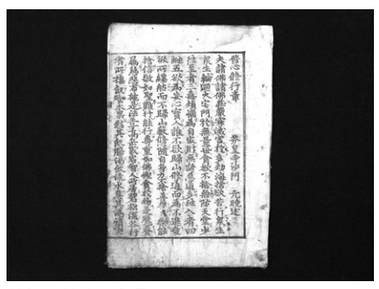
지원 스님은 ‘효봉 스님의 선시세계’에서 “효봉 선사는 일상을 벗어나지 않고 진리에 부합하려는 불반상이합도의 측면이 선시에 나타난다”며 “이는 실천수행을 독려하기 위함으로 선시가 활용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동화사 이순재간행법화경


용연사 육공각법화경


고려시대 목판 최고본 용연사 부모은중경


용연사 발심수행장

현존 최고(最古) 법화경 2책·은중경·발심수행장 발견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 결과
동화사·용연사·파계사 등에서 총 978건 조사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현각)이 실시하는 불교기록문화유산 조사사업에서 보물급 불교 고문헌들이 발견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대구 동화사와 신둔사, 용연사, 파계사에서 불교 고문헌 조사작업 결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유일본인 〈묘법연화경〉 2책과 〈부모은중경〉 1책, 〈발심수행장〉 등 총 4책의 보물급 문헌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묘법연화경〉 2책은 성달생 서본(書本)으로서 최초발견된 것이다. 조선전기 판본으로 추정된다.

1564년(명종 19) 이순재(李順才) 가문에서 간행한 〈묘법연화경〉은 간행 사실은 알려져 있었지만 실물이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문헌들은 서지학적으로 〈묘법연화경〉 번각의 시기별 변화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와함께 확인된 〈부모은중경〉 고려시대 목판본으로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 가운데 가장 시대가 올라가는 최고본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

송일기 중앙대 교수는 “1300년경에 판각된 것으로, 현재 통용되는 〈부모은중경〉과 달리 상중하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존 최고의 목판본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결락상태가 없이 완전한 판본이라면 충분히 보물로 지정될 만하다”고 그 가치를 전했다.

이와 함께 〈발심수행장〉도 지금까지 발견된 것보다 시대가 앞서는 것으로 학술·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현재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현존 최고본 판본들이 발견돼 주목을 받았다. 1378년에 간행된 〈부모은중경〉은 도상이 있는 판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1400년에 간행된 〈목우자수심결〉은 현존 최고본이며 성암고서박물관과 경기도 지장사에 동일본이 소장되어 있다. 1405년에 간행된 〈묘법연화경〉은 성달생 서본 가운데 가장 시기가 앞선 것이다. 1536년에 간행된 〈경덕전등록〉 역시 현존 최고본이며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동일본이 소장되어 있다.

한편, 2012년 7월 29일부터 10월 말까지 계속된 조사에는 연인원 399명이 투입돼 고문헌 875건과 목판 86건, 금석문 2건 등 모두 978건의 자료를 조사했으며 고문헌에 대한 정밀촬영을 통해 20,399건의 사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노덕현 기자

日고려미술관 비공개 한국문화재 조명

목조불상을 비롯해 일본 교토 고려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문화재를 집중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소장 석문)와 문화유산연구소(소장 이태호)는 4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정조문과 일본 교토 고려미술관’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고려미술관은 재일동포 사업가인 故 정조문(1918~1989) 사장이 평생 모은 한국문화재 1700점을 바탕으로 1988년 설립했다.

고려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불교미술품은 34점으로 불상은 금동여래입상, 철조여래좌상, 목조아미타삼존불감, 석조여래좌상, 목조동자상 등 14점이다.

이중 그동안 연구가 진행된 것은 1689년 호남 지역에서 조성된 목조아미타삼존불감이 유일하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고려미술관 소장 불상에 대한 연구발표가 공개됐다.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은 고려미술관에 소장된 목조보살입상이 16세기 후반 제작됐을 것으로 주장했다.

박원규 충북대 교수는 목조보살입상, 목조아미타삼존불감, 목조동자상, 목조여래좌상 등 4점의 불상에 대해 나이테를 이용해 연대를 측정했다. 그 결과 불상의 주된 몸체에는 버드나무류, 은행나무, 측백나무과가 쓰였으며, 비자나무 밑판이 사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 불상에 대한 절대연도 부여에는 실패했다.


故 정조문 사장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선 △고려미술관과 정조문(정희두 고려미술관 상무이사) △고려도자 문화와 일본 고려미술관 소장품(박정민 한울문화재연구소 팀장) △고려미술관과 덕성여대 박물관의 공동전시에 대해(박은순 덕성여대 교수) △고려미술관 소장 화각자료에 대하여(카타야마 마리코 고려미술관 학예연구원) △고려미술관 소장 교피이층농 연구(최영숙 홍익대 강사) 등 논문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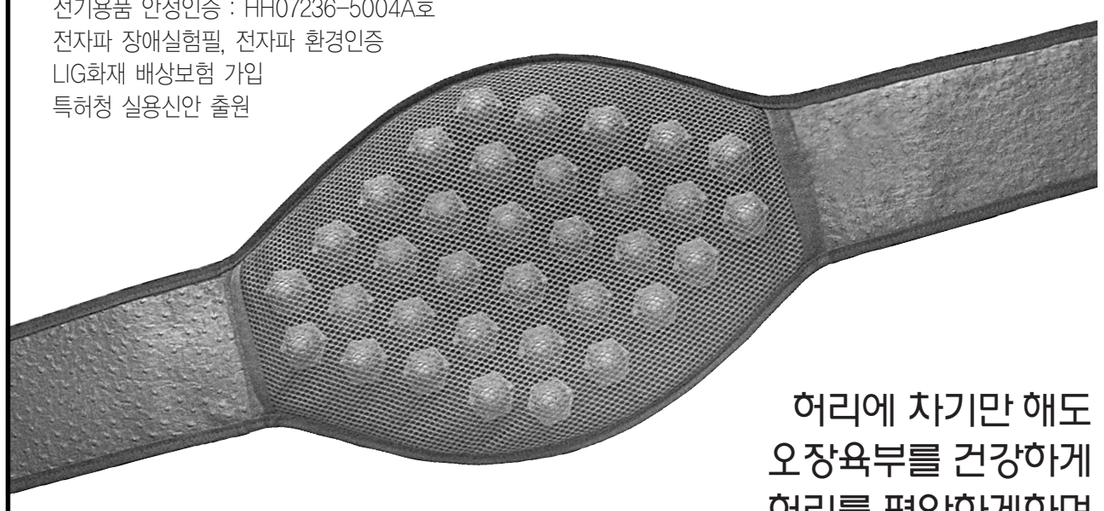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환우가족들에게 따뜻한 자비 손길을

화순 유마사 보안회, 병원서 불교상담활동 진행

전남 화순에 위치한 전남대병원은 암 환자를 비롯한 중증질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찾는 곳이다. 이 병원 지하 1층에는 불심으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곳이 있다. 바로 불교관이다.

호남지역 국립병원 내 위치한 유일한 불교시설이자 법당인 불교관은 2007년 어렵게 만들어졌다. 그 불교관을 만든 이가 바로 화순 유마사 주지 일장 스님이다.

일장 스님과 유마사 병원봉사불자 모임인 보안회(회장 천화심)는 4월 24일 불교잡지와 신문을 환자들에게 돌리며 상담활동 등을 진행했다. 이날 이들은 수술 등으로 절에 갈 수 없는 불자환자들에게 병원 내 신행활동을 일러줄 뿐만 아니라 불자가 아닌 환자들에게도 단주를 건네며 쾌차를 기원했다. 이들은 매월 병동을 순회하며 환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보안회 회원들은 매일 당직을 정해 24시간 법당을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그 누구나 종교를 불문하고 법당에서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아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일장 스님과 보안회는 명절과 부처님오신날 등에는 전체 환자 800여 명에게 떡과 작은 선물을 전하는 한편, 형편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아픈이들의 마음 속 이야기를 들은지 7년. 그 터전이 됐던 불교관이 병원측의 배려로 올해 1월 새롭게 확장됐다. 그동안 불교관은 기독교관에 비해 협소하고 외부로 소리가 울려퍼져 예불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었다.

환자 및 가족 신행상담 인기
불자 아니어도 따뜻이 반겨줘
24시간 열린법당, 1월 확장해 오픈


화순 전남대병원 불교관에서 자원봉사에 앞서 담소를 나누는 일장 스님과 보안회 회원들.

그동안 법당 운영과 환자 지원 기금은 50여 정기후원자들과 15명의 보안회 회원들이 맡았다. 이들의 노력을 들은 불교계에서 도움의 손을 뻗으며 증개축이 진행되게 됐다. 2011년 범능 스님과 화순 만연사에서 1000만원을 전달했으며 송광사 방장 스님도 사비를 털어 기금을 전달했다.

불교계의 관심에 병원 측은 불교, 천주교, 기독교 종교관 보수를 결정하며 공간을 공평하게 배분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롭게 단장되는 불교관은 환자들의 다양한 기도와 신행상담이 이뤄지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

일장 스님은 "대부분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 이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다"며 "그들의 힘들었던 인생사를 들으면 저절로 돕고 싶은 마음이 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이들 중 불교계의 보살핌이 없어 평생 불교를 믿다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개종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움을 느껴 병원 봉사를 시작했다"며 "불교계가 어려운 이들을 보살피는데 더욱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아버님을 간병하다 스님을 따라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강미라 회원은 "시아버님이 폐암으로 고생하실 때 스님의 따듯한 말과 기도 덕분에 온 가족이 몸 뿐만 아니라 마음이 고통을 덜었다"며 "그 덕에 아직 시아버님이 살아계신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다른 환우들에게도 전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 봉축 기원등 점등식 봉행



점등식에 참가한 각종단 대표들이 점등 스위치를 누르며 축원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뜻을 바로 알고 세계평화와 민족의 화합,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부처님 오신날 봉축 기원등 점등식이 4월 21일 전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이 날 점등식에는 전북봉축위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도광 스님, 보문종, 용화종, 진각종, 천태종 등 각 종단을 대표스님들과 김완주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주시장, 포교신행단체장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점등식은 불교연합 합창단의 축가를 시작으로 삼귀의, 반야심경, 찬불가, 선언문 낭독, 점등, 축원, 봉축 불꽃놀이 순으로 진행됐다.

봉축위 부위원장 도광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세계 인류 평화와 7000만 민족의 화합을 염원한다. 이날 밝히는 기원등이 무명을 밝히고 불안과 공포를 없애주는 지혜와 자비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축원했다.

봉축위원장 원행 스님은 법어를 통해 "봉축 기원등의 의미는 베품과 나눔, 화합과 소통을 실천하며, 불자로서 이해하고 관용해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라며 "지역분쟁, 세대·계층간 분별, 전쟁과 테러,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이 성취되고 지혜를 체득하는 부처님 오신날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이라는 주제로 한달 간 진행될 전북지역 봉축행사는 대규모 연등축제를 비롯해 군부대, 교도소,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나눔, 어린이 청소년과 노인을 위한 특별행사 등 다양한 봉축행사가 열린다.

한편, 지역 스님들과 김완주 도지사등 지역기관장, 불교 지도자들은 기원등 점등식에 앞서 불교와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어르신에게 행복의 밥상을 드려요"

자비신행회, 지역사찰과 연합해 어르신 식당 운영

오전 10시, 광주 동구 장동교차로에 위치한 어르신식당에는 지역의 어른들이 의자에 앉아 문이 열리기를 기다린다.

"오늘 멋쟁이가 되셨네요. 맛있게 점심 드세요."

잠시 후 11시 문이 열리면 윤희경 팀장의 반가운 맞이 인사와 함께 하루의 만찬이 시작된다.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매일 70여분의 어른들에게 점심을 제공한다. 많은 인원에게 음식을 제공할 재원과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인원은 회원제로 한정돼 있다. 개별 면담을 통해 장애인, 독거노인을 우선으로 선정해 음식을 대접하고 있다.

어르신식당 자원봉사는 대부분 증심사와 문빙정사, 영광사 등 사찰신도들이 맡고 있다.

4월 25일 점심에는 매주 목요일 봉사를 맡고 있는 증심사 주지 연광 스님과 증심사 신도 10여 명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여기에 노희용 동구청장과 동구청공무원 불자회(회장 김재흥) 회원들도 힘을 보탰다. 본격적인 배식 시간이 됐지만 배식순서표가 배분돼 혼잡하지 않았다.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사진 왼쪽)와 증심사 주지 연광 스님이 어르신들께 배식봉사를 하고있다.

이날 어르신식당에서 봉사활동을 한 노희용 동구청장은 "이곳이 동구에서 가장 맛있는 점심을 드리는 곳"이라며 "따뜻한 봄이지만 모두들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르신식당을 담당하는 윤희경 팀장은 "매일 식사 외에도 매월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미용봉사, 생일을 맞이한 어른신들 잔치, 국악공연이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순희 할머니(72)는 "이곳만큼 맛있는 곳은 없다"며 "늘 다양한 반찬과 봉사자들의 정성이 음식에 담겨있어 편안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자비신행회는 지난 4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와 7시 힐링아카데미와 불광출판사와 공동으로 '제2기 빛고을 불광MY리더스클럽'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도영 스님, 고향어르신 경로잔치 개최

완주 송광사 회주 도영 스님(前조계종 포교원장)이 남몰래 수년째 고향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잔치를 연 사실이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도영 스님은 4월 25일 전북 부안 목원 예식장에서 주산면 지역 어르신 300여 명을 초청해 경로 위안 잔치를 열었다.

경로잔치는 품바 명인공연, 한마음 예술단의 민요, 노스텔지어의 통기타 공연으로 흥겨운 하루를 지냈다.

도영 스님이 고향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잔치를 열고 있는 사실은 주변에서도 모를 정도로 조용히 추진돼 가까운 지인을 제외하고는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도영 스님은 경로잔치 인사말에서 "좀더 크고 좋은 곳에서 어르신들을 모실수도 있지만 어르신들 식사가 마땅치 않아 따뜻한 공양을 대접하고 싶어 예식장으로 장소를 정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스님은 또 "어르신들이 즐거워하고 옛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공연을 준비했다"며 "건강하고 행복한 여생을 즐기시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청소년 문화잔치 '동백연' 열어

학생·학부모 1500명 참석, 전통문화 체험해

청소년들에게 효행과 애향심,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예비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한 '제37회 동백연 청소년 문화예술 경연대회'가 4월 26일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에서 열렸다.

선운사와 고창문화원이 공동주최한 '동백연'은 유치부 어린이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과 학부모 1500여명이 참여해 문화예술 경연과 민속경연 등을 통해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동백연은 선운사 동백나무 숲 앞에서의 동백제례에 이어 백일장, 미술, 만담설화, 타악 경연, 무용, 판소리, 시조경창 등 문화예술 행사와 제기차기, 투호, 긴줄넘기, 팽이치기, 굴렁쇠 굴리기, 학부모 윷놀이, 등의 민속부문, 탁본, 향토문화알기, 도예(자기 만들기), 전통매듭 만들기, 호패 만들기, 가훈쓰기 등 체험행사가 펼쳐졌다.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개막식에서 "선운사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함께 미당 서정주 시인을 비롯한 많은 문화 예술인들이 탄생하는 등 시문학과 판소리의 배경이 되기도 한 곳"이라며 "1500년의 역사를 지닌 선운사에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형 동백꽃을 만드는 아이들의 모습.

올해로 37회째를 맞이한 동백연 청소년 문화예술경진대회는 조선 성종 14년 행호선사가 조성한 선운사 동백꽃을 시원으로 창설됐다. 이후 전북 대표 향토문화예술제로 자리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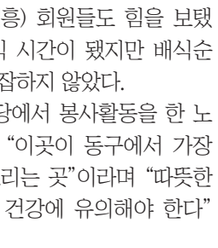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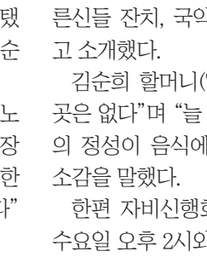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힐링 열풍 속 불교의 사회적 역할 논의

부산불교여성포럼… 4월 23일 제1회 세미나 개최

부산불교여성포럼(회장 윤정자)이 불교발전을 위한 제1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불교의 사회 참여와 사회적 역할'을 재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4월23일 국제신문 소강당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총 4명의 발표자가 출연해 불교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현익채 법사(전 금정중학교 교장)의 '불교발전을 위한 제언'이란 기조 발제로 시작한 이날 세미나는 양은순(문화와 문학타임 발행인)씨의 '불교와 차문화', 최윤식(동명대 불교문화학과)교수의 '불교수행의 뇌과학적 고찰', 양외금(동의대)교수의 '힐링 열풍과 불교의 사회적 역할'의 순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윤정자 회장(부산 능인선원 신도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의 결과가 부산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대승보살의 용기와 신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고, 불자의 역할과 사명감을 깨달아 부산 불교를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불교여성포럼은 '불교의 사회 참여와 사회적 역할'을 재조명하는 제1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가족법회 개설·내면 치유 방안 등 불교발전 위한 제언 이어져

현익채 법사는 "불교 발전을 위협하는 3가지 큰 사회적 현상으로 △출산율의 급락 △PC와 인터넷의 등장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여가선용과 같은 문화적 욕구의 증대"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10가지 방안으로 △불교의 사회적 역할 증대 △직업포교사 제도 도입 △가족법회 개설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동명대 불교문화학과 최윤식 교수는 "전통적 불교수행법에 과학의 옷을 입히면 불교 수행을 더욱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힐링 열풍과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발표한 동의대 양외금 교수는 "현대인들은 '내적 자연 치유', '자기 만족'과 같은 내면의 문제에 골몰하기 시작했다"며 "이런 문제를 다루는 불교의 가르침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열쇠요 나침반"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불교여성포럼은 지역 각계 여성 불자 리더들이 중심이 되어 2012년 7월 부산 능인선원에서 창립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화합의 장 '청도 유등제' 개막

4월 20일 청도천 일대서

제7회 청도 유등제가 4월 20일 청도천 파랑새다리 일대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막이 올랐다.

축제 첫날은 주민과 관광객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운 스님의 법고공연과 반야합창단의 육법공양이 펼쳐졌다.

또한 법요식과 법등식에 이어 청도 반야합창단의 축가와 가수 안치환의 공연 등으로 꾸며진 축하음악회가 열렸다.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청도 유등제는 종교행사를 넘어 축제로 자리잡았다"면서 "청도군이 발전하고 군민들이 화합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도 유등축제 개막식 장면

청도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지연 스님은 봉행사에서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살려 유등제를 차원높은 문화행사와 체험행사로 탈바꿈시켰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선덕여왕 숭모제 팔공산 부인사서

신라 선덕여왕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제27회 선덕여왕 숭모제가 4월 24일 팔공산 부인사(주지 종진)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제 9교구 소임스님들과 지역기관장 및 단체장 등 사부대중 약500여명 동참했다. 이날 숭모제는 헌공의식을 시작으로 참봉례, 정재의식 등이 이어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27회 선덕여왕 숭모제

부산 광명선원 이전개원

부산 광명선원(주지 금강스님)은 4월 22일 동래구 온천3동으로 포교당을 이전하고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을 증명법사로 삼존불 점안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을 비롯, 불모산 영산재 회주 석봉 스님, 해동용궁사 주지 정암 스님, 이진복 국회의원 등 시민불자 300여명이 동참했다.


4월 22일 광명선원 이전 개원식

이전 개원한 광명선원은 전체 330㎡ 규모로 기존 선원이 있던 곳보다 지하철에 가까워지고 공간도 더욱 확장됐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주지 취임행사 대신 자장면 만발공양

광원 스님 포교 새바람 일으켜

부산 범어사 해운대포교당 반야원(주지 광원 스님)은 주지 취임 행사를 대신해 지역 노인들을 위한 '효도 자장면 만발공양' 행사를 개최했다.

4월 24일 해운대 장산노인복지관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300여명을 초대해 자장면과 차를 대접하는 훈훈한 자리가 됐다.

주지 취임행사를 대신한 이날 만발공양을 위해 자장스님으로 유명한 선원사 주지 운천 스님을 비롯 김윤순 부산불교합창단 연합회장, 이철상 시의원 등 30여명의 봉사자도 함께 했다.


반야원 자장면 공양 행사

광원 스님은 "미국 포교활동을 정리하고 10년만에 한국에 오니 모든 것이 낯설다"며 "해외포교의 경험을 바탕으로 포교의 새바람을 열어 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디자인 하듯 등 달아야

부처님 오신 날이 가까워지면서 사찰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행사준비며, 사찰안팎 청소는 물론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기 위해 연등도 달아야 하기 때문이다.

불가에서는 향, 등, 꽃, 과일, 차, 쌀과 같은 여섯 가지 의미 있는 것들을 부처님 전에 올려 부처님을 의지하고 그 공덕을 찬양하며, 유화선순(柔和善順)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살행을 다짐하는 불교의식을 치르는데, 이것이 곧 육법공양(六法供養)이다.

어렸을 적 부처님 오신 날 절에 가면 마당 가득 걸어놓았던 등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어머니와 같이 절 마당에 걸어놓은 많은 등 가운데에서 우리 등이 어떤 것인지를 찾았던 추억은 잊을 수가 없다. 대학에 다니던 시절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들고 학교에서 조계사까지 걸었던 기억 또한 생생하다.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며 절 마당에 기둥을 세우고 줄을 달아 연등을 거는 일은 일 년 중 절에서 치러야 하는 일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절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기 위해 등을 다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의 신심 있는 불자들이 맡아서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세상이 바빠지고 복잡해지다보니 등 다는 일도 그 절의 신도들이 하지 못하고 일꾼을 사서 하는 것이 현실이다.

마당에 등을 달던, 절가는 길에 등을 달던, 등을 다는 일은 우선 분명한 계획을 세운 후에 실행해야만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 몇 개의 등을 달아야 하는지, 그 정도의 등을 달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의 기둥을 써야 하는지, 기둥간격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한 계획도 없이 등을 달아서는 연등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연출하기 어렵다.

아직도 대부분의 절에서는 아름답고 질서정연하게 등을 달아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보기에도 어설픈 철제 파이프를 세우고 그것을 의지해서 줄을 얼기설기 엮고 거기에 등을 달아놓는 것이 보통이다.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나면 철거할건데, 뭘 그렇게 신경을 쓰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찰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사찰을 장엄하는 하나의 경관요소라는 것을 안다면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 부처님 오신 날에는 절마다 부처님 도량을 제대로 장엄할 수 있도록 등을 달아 불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면 좋겠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사찰에 등을 다는 일은 하나의 중요한 디자인 행위이다. 경상북도 ㅂ사찰

3, 6일간의 깨달음 금강단식
손에 잡히는 참선
왜 참선인가! 몸과마음, 바꾸지 않고 달라지는 것이 깨달음이다
바보는 바보대로 그대로 깨닫는 것이다
금강단식 효과 : 면역성 피부미용 아토피 금연금주 즉각해결 고혈압, 당뇨, 성인병 정신 우울증 예방치유 다이어트 1일 최고 3kg / 한달 25kg
금강단식은 활인선원에서만 행해지는 참선과 병행한 유일한 단식이며, 기존 단식처럼 억지로 참고 견디거나 위험부담이나 부작용이 없으며, 음식을 끊음을 통해 새로운 정신세계와 삶에 대한 눈을 뜨는 마음공부인 수행이다. 신체적으로 다양하게 어려움을 겪는 분이나 해결하기 힘든 정신적 한계나 갈등에서 벗어나, 본래자신은 완전무결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인생 대전환할 수 있는 산사의 분위기와 환경에서 일생일대의 대보람을 찾을 수 있다.
단기출가 : 30일 · 50일 · 100일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참선과 단식 체·질·단·식
체질 단식
수련회 6일 5월 3(금) ~ 8(수) 6월 6(목), 11(목)
선 화 3일 5월 3(금) ~ 5(일) 6월 6(목) ~ 8(토)
깨달음이란? 머리가 둔하면 둔한 대로 머리가 흐리면 흐린대로 깨달아지는 것이다.
행복제작소 제주원명선원중앙선방 활인선원 ☎1644-5266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비봉산
자세한 내용은 www.hwalin.net 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신제품 (특허제품)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DWKS-108A
DWKS-108B
연등(등표) 발판사다리

DWKS-3000A
DWKS-3000B

DWKS-5000A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가깝고도 먼 사찰, 도심 속 성지서 '법향'을 만나다



조계사 봉축연등은 순례단의 환희심을 자아냈다.



법정 스님의 진영과 유품이 모셔진 진영각에서 차분히 앉아 스님의 무소유정신을 되새기는 순례단의 모습



법정 스님의 유품을 유심히 보는 순례단원들



길상화 보살 추모비 앞에서 설명을 듣는 순례단원들



호박주스 한잔은 종교간 벽을 허물기에 충분했다.



화계사에서는 잠시 입정에 들기도 했다.

청계사 108선원 순례단, 해제 기간 사찰 순례

서울 조계사 · 길상사 · 경국사 · 흥천사 · 청량사 · 화계사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는 4월 22일 서울 조계사와 길상사, 경국사, 흥천사, 청량사, 화계사를 참배하는 제3회 '마음따라향기법문 108선원순례'를 개최했다.

이날 순례에는 순례단 단장 성행 스님을 대신해 성연 스님이 지도법사로 참석했으며 자연 유경희 순례단 회장 등 단원 28명이 함께 했다. 제2회 108사찰과 선원 순례는 4월 15일 방생법회를 겸해 백천사에서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산에 들에 들꽃들이 만개한 4월 봄날, 108사찰과 선원 순례단이 북한산 자락의 도심사찰로 순례길을 나섰다. 지난 1월 불국사 등 신라고도 경주로 첫 순례를 떠난지 다시 100일만의 순례였다. 하얀 벚꽃과 비슷한 새하얀 순례복을 맞춰 입은 28명의 순례단원들은 화창한 날씨 속에 발걸음도 가볍게 사찰 순례를 진행했다.

'마음따라향기법문 108선원순례'는 안거기간에는 선원을 중심으로 순례가 진행되며 안거 해제 이후에는 사찰 위주로 순례가 진행된다. 이번 순례는 의왕에서 가까우면서도 쉽게 찾지 못했던 서울 서북부의 고찰들을 둘러보는 여정이 이어졌다.

고령의 순례단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평소 찾지 못한 사찰들이었다. 이른 아침 가장 먼저 찾은 사찰은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였다. 조계사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한창 연등을 만들고 다느라 분주했다. 바쁜 와중에도 조계사 호법국장 서송 스님은 조계사를 대표해 순례단을 반갑게 맞이했다.

"조계사는 1910년 조선시대 이후 사대문 안에 최초로 창건된 사찰입니다. 각황사를 지금의 위치에 옮겨짓고 삼각산에 있던 태고사를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여 태고사라고 하다가 1955년 조계사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순례단 단원들은 귀를 쫑긋세우고 스님의 설명에 열중했다. 조계사 대웅전에는 여느 사찰과는 다른 사각등과 대형등 등 특이한 등들이 달려있었다.

순례단원들은 조계사 연등을 보며 감탄을 토했다. 조계사 대웅전과 극락전을 참배하며 순례일정을 부처님께 고한 순례단원들은 버스를 타고 다시 길을 나섰다.

도심길을 달린지 몇분이 지나자 봄꽃들이 피어난 북악산이 순례단을 반겼다. 북악 스카이웨이를 따라 꽃구경도 잠시 길상사가 살포시 보였다.

길상사에서는 홍정근 맑고향기롭게 사무국장이 길상사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 안내했다. 자신이 있음으로 인해 주지나 여러 대중이 번잡해질 것을 우려해 법정 스님이 단 한번도 묶어간 일이 없었던 길상사 진영각(전 행지실). 법정 스님이 입적 전 마지막으로 묶었던 이 곳이 대중들에게 공개됐다. 진영각은 올해 3얼에야 공개된 곳이다.

순례단원들은 법정 스님의 진영과 유골이 뿌려진 곳과 스님이 강원도 수류산방에서 쓰던 유품과 스님의 저서 등을 보며 평소 스님이 강조한 '무소유' 정신을 다시금 되새겼다.

백내장 수술 이후 관리 기간임에도 순례에 나선 정각심 보살은 "눈이 아파도 조금이나마 건강할 때 많이 다녀야겠다는 생각에 동참했다"며 "예전에 젊었을 때 다녔던 기억이 떠오르니 더 좋다"고 말했다.

조계사서 봉축 등보며 환희심
법정 스님 무소유 정신 마음에 새겨
흥천사 문제 십시일반 돕기도
화계사서 유쾌한 해설들으며 회향

홍정근 사무국장은 길상사를 보시한 김영환 보살(길상화)과 시인 백석과의 사랑이야기를 풀어내 순례단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김영환 보살은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16살 때부터 기생이 되었지만, 문학에 큰 재능을 보여 수필도 발표하며 유명했었습니다. 젊은 시인 백석을 본 순간 둘은 한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당시 백석의 나이는 25세, 김영환 보살의 나이는 21세였습니다. 백석은 '자야오가'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을 보고 김영환 보살에게 자야라는 아호를 지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기생과 살림을 차린 것을 못마땅해 했던 백석 부모의 반대로 백석은 다른 여자와 결혼하며 결국 만주로 떠나게 됩니다. 김영환 보살은 자신이 기생 출신이었기에 못이룬 사랑에 한이 맺힙니다. 평생을 쓰지않고 모아 이룬 것이 바로 길상사 전신 대원각이었습니다. 말년에 김영환 보살이 입적하시기 전 묶었던 곳이 자야헌입니다. 평생 백석을 잊지 못한 것입니다."

순례단원들은 이들의 애뜻한 사랑에 안타까움과 부러움을 함께 표했다. 이날 길상사에는 평소 종교간 소통과 화합을 중요시한 법정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한 수녀님들의 방문도 이어졌다. 순례단은 수녀님들과 챙겨온 다과를 함께 먹으며 담소를 나눴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여주에서 왔습니다. 수련기 수녀들입니다."

"불교에서는 정식 승려가 되기 전을 사미, 사미니라고 합니다. 깃에 붉은 동정을 단 스님들입니다."

"네, 불교는 이렇게 순례하는 재가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단복도 맞춰입고 보기 좋습니다."

맛있는 호박주스 한잔은 종교의 벽을 허물기에 충분했다.

다시 길을 나선 순례단은 前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주석처였던 경국사를 둘러보고 흥천사에서 점심공양을 진행했다. 흥천사는 최근 분규사찰이었던 것을 조계종에서 인수한 사찰이다. 때문에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곳들이 많았다.

자연 순례단 회장은 "흥천사 상황이 안좋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이 곳을 찾았다"며 "십시일반 모은 보시금이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열악한 사찰 상황으로 인해 공양도 관음전에서 진행됐다. 순례단원들은 자신이 먹은 음식그릇을 설거지 하며 일손을 덜었다.

순례단의 발길은 청량리에 위치한 청량사로 이어졌다. 현재 비구니 사찰인 청량사는 만해 한용운 스님이 머물기도 했던 곳이다. 신라말 창건된 곳으로 1987년 명성왕후의 묘인 홍릉이 조성되며 현재자리로 옮겨졌다. 비구니 스님들이 거주하는 사찰답게 정돈된 경내가 눈에 띄었다. 깔끔하게 다듬어진 화단과 풀밭은 순례단의 마음까지 차분하게 했다.

순례단이 끝으로 찾은 곳은 화계사였다.화계사는 외국인 스님들의 수행처인 국제선원이 있기도 한 곳이다. 이날 화계사에서는 외국인 수행과 템플스테이를 담당하는 화계사 연수국장 지오 스님이 순례단을 맞아 부처님 8상성도에 대해 재미있는 해설을 진행했다.

지오 스님은 "부처님께서 태어날 때 한손은 하늘을 한손은 땅을 가리키시며 외치신 천상천하유아독존이 현재는 싸이의 '젠틀맨'으로 다시 나투었다"며 "한국인도 외국인도 모두 손을 들고 외치는 그말,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말이 바로 부처님이 이땅에 오신 뜻"이라고 말했다.

순례단은 지오 스님의 해설에 이어 짧은 시간 참선과 소원지 소지의식을 진행하며 순례의 아쉬움을 모두 떨쳐버렸다.

선인행 보살은 "서울이 가깝지만 쉽게 못오던 곳"이라며 "순례를 통해 탐진치의 마음을 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밝게 웃었다.

어버이날 어르신들과 스님들께 올리는
최고의 효도선물
TDP 인체공명파 온열치료기 神燈

어르신들의
어깨, 목, 허리, 무릎의 만성적인 근육통 완화! (체온요법으로 건강 예방 증진)
아침 저녁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참기 어려운 통증, 잠을 자다가도
불쑥 갑자기 끊어지는 듯이 아프게 찾아오는 통증, 온몸 구석구석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고통, 지하철 버스 손잡이도 잡을 수 없을 만큼 아픈 팔,
어깨 근육 통증, 이제 걱정마십시오. 본 의료기기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체온요법이란?
오장육부를 알맞은 온도로 기능회복을 시키고, 인체 통합시스템인
면역계와 호르몬계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질병(환부)부위는 냉(冷)에서 비롯된 병적 부분을 온열요법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파 광선조사기의 파장은 공명작용으로
피하심층까지 침투하여 손상된 세포조직이 활성화되어 건강은 물론
심신까지 안정화 시킵니다.

TDP 인체공명파 온열치료기 神燈 용도
1) 병의원 보조 치료기 (소염 진통 증상완화 – 혈류량 증가)
2) 구급치료기 (복통, 설사, 화상, 신경통 등 각종 통증 완화)
3) 신경안정화기능과 교통사고 후휴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관절결림의 감소와 연조직 곰팡이균 감염 등 효율적 효과를 보여줍니다.

■ 상담 및 구입문의 :
수입총판 휴먼라이프 서울지사 02)739-5008
※ 종로구 수송동 두산위브 440호에 체험방 '운영중'에 있습니다.

CQ-BS8 (바이오램프)
CQ-31(TDP)

세계적인 명품
음이온 패드 & 생리대
세계 최초 특허제품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144개국 사용 중

이런분들께 적극 권장합니다.
· 여성 : 생리통, 월경불순, 요실금, 소변통, 각종염증, 치질, 변비
· 남성 : 허리통증 개선, 피부염, 전립선비대증, 어깨통증, 낭습, 습진, 피로감 해소

음이온의 놀라운 8대 효과
항균작용, 통증완화, 냄새제거 면역력 강화, 피로감 해소, 내분비 개선, 신진대사 촉진, 염증예방

음이온 패드, 생리대
음이온 마스크

위나라이트 코리아 종로지점
상담 및 문의 02)739-5008. 010-2353-2010
서울 종로구 수송동 두산위브 440호

삼보양초
삼보양초의 장점
1) 심지가 견고하며, 최고급의 파라핀으로 제작되며 그을음이 적으며 오래 탑니다.
2) 냄새는 맑고 향기로우며, 촛물이 깨끗하고 투명하다. (최상품의 삼보향초)

삼보양초의 종류
1) 원기둥 홈초(대) 1박스 20개. 9만원
2) 돈타레 홈 (중대) 1박스 40개 9만원
3) 밀대 (중) 1박스 50개 8만원
4) 등신불 (소) 1박스 40개.....9만원

▣ 삼보양초는 종도사찰에 필수적인 물품들을 종단차원에서 공급하여
▣ 품질은 우수하게, 가격은 저렴하게, 주문은 편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불교용품상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택배비 포함)
▣ 전화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사업자번호 : 615-82-71773 (한국불교재단)
주 문 전 화 : 010-9421-0772, 010-5789-6630
사업부계좌 : 농협 302-0587-1926-11 이창민
(사)대한불교삼보종 총무원 사업본부

불교와 미학

극락정토의 미적 세계

죽음마저도 밝게 묘사한 이상향, 극락

찬란한 빛의 궁전, 화려한 보배로 장식한 누각, 난간에는 오색 깃발이 펄럭이고 보배로 만든 그물이 일곱 겹으로 드리워져 있다. 금모래가 깔려 있는 칠보의 궁전 연못에는 여덟 가지 공덕의 물이 가득 차 있고 그곳에 갖가지 색깔의 연꽃이 피어 저마다의 자태를 폼 내고 있다.

그곳으로 가는 유리로 된 투명하고 평탄한 길을 걷고 있노라면 빛을 반사하며 반짝이는 보배 나뭇잎 사이로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여의도 윤중제 흩날리는 벚꽃처럼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다.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가릉빈가 등 진귀하고 아름다운 새들이 천상의 음악을 노래하고 있다. 그 노래를 듣는 자는 깊은 평화와 환희 속에서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잊어버리리라.

만약 누군가가 그곳으로 데려다주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어릴 적 엄마 아빠 손잡고 탔던 놀이동산의 놀이기구 같이 신나고 크루즈선보다 더 화려한, 하늘을 마음대로 나는 용 모양의 호화로운 쾌속 여객선을 타고 간다면, 늦지 않도록 서둘러야 하리라.

예약한 사람들이 모두 승선하면 배는 떠날 것이다. 뱃머리에 선 뱃사공은 돛을 높이 세우고 방향타를 서쪽으로 돌려 출발을 서두르고, 막 불어온 순풍은 순조로운 항해를 예견하듯 시원하다. 승객들은 기쁨에 들떠 어서 출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어서 배를 타시오."

"다 탔습니까?"

어수선한 부두에서는 내가 탈 배를 놓치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싹 차려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잠깐 한눈을 팔다간 놓칠지도 모른다.

지난번 항해 때는 어느 여인이 가족들과 작별인사 하느라 잠시 지체하여 배를 타지 못한 일이 있었다. 언제나 이처럼 허둥거리다가 배를 놓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뒤늦게 소리를 질러보았으나 이미 떠난 배를 되돌릴 수 없었다. 다행히 자비로운 뱃사공이 던져준 밧줄을 용케 붙들어 밧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서쪽나라까지 갔다고 한다. 그래도 용맹심과 끈기가 있었는지 그 여인은 십만 억 나유타 국토를 지나가는 긴 여행 내내 악착스럽게 밧줄에 매달려 버텼다고 한다.

모두 행복한 여행, 그 여인이 그토록 악착 같이 가려고 했던 그곳, 그곳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라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와 나직한 목소리로 신나는 여행을 예약해두었다고 속삭인다면?

불교에서 죽음은 이처럼 밝고 건강하며 때로 익살스러운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 아미타부처님이 서원을 세워 만들어놓은 서방 극락정토까지 반야용선을 타고 가는 여행. 얼마나 즐거우면 '극락(sukh?bat?,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고 했을까? 대성인 로왕보살이 앞장서 길을 안내해주시고 아미타부처님이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을 비롯한 여러 보살들을 대동하고 맞이하러 오신다. 얼마나 중생을 어여삐 여기셨으면 직접 마중 나오기까지 하실까?

가장 불안하고 가장 두려움에 떠는 순간을 위하여 불교는 가장 아름다운 세계를 준비해두었다. 이 국토를 아미타불의 타수용국토인 극락세계라고 한다. 이 세계는 아미타부처님이 전생에 법장비구였을 때 마흔여덟 가지의 서원을 세워 만든 것으로, 다른 말로 편안한 나라, 안양국이라고도 하고 청정한 땅, 정토라고도 부른다.

이 세계는 가시적으로도 아름다운 곳이다. 왜냐하면 그곳은 특히 아미타부처님께서 전생에 인행을 행할 때 삼계의 더럽고 탁한 모습에 마음이 쓰여 특별히 맑고 아름다운 세계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감각적인 것은 마음을 흐트려 트리는 미혹의 원인으로 간주된다. 〈노자〉에서도 아름다운 소리는 귀를 먹게 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눈을 멀게 한다고 경계한다.





고려불화 '아미타팔대보살도'〈사진 왼쪽〉와 통도사 극락전의 반야용선〈사진 오른쪽〉. 모두 서방극락정토와 관계된 도상들이다. 불교가 말하는 극락세계는 선택된 자가 아닌 모든 범부 중생이 갈 수 있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

불교의 서방극락정토
아미타불의 주석처
욕망없이 法悅 가득해
모든 존재 이르는 곳

자리이타 아우름이
불교 미학의 요체

불국정토를 만들려면
자신부터 청정해져야

그러나 극락정토에서는 감각적인 즐거움조차 법의 즐거움으로 전환된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새소리를 듣고 감각적인 쾌락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깨달음을 얻게 된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욕망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극락정토는 감각적 즐거움이 있더라도 욕망이 없기 때문에 욕계가 아니며, 여러 가지 궁전과 누각, 나무와 땅, 연못이 건설되어 있는 지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늘 세계인 색계가 아니다. 또한 소리와 형상, 향기, 감촉이 존재하는 감각의 세계이므로 무색계가 아니다.

하지만 그 세계는 끝없이 윤회를 계속하는 변화하는 세계, 거짓된 세계가 아니라 맑고 청정하며 진실한 세계이며 다시는 삼계의 고통의 바다, 윤회의 세상에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삼계의 제약을 벗어나 있다.

이처럼 삼계의 제약을 벗어났기 때문에 청정한 이 국토는 끝없이 넓다. 허공처럼 한계가 없기 때문에 이 정토에 궁전과 누각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으며 아미타부처님의 자비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곳이므로 모든 중생을 다 수용할 수 있다. 유마의 방처럼 병들어 아픈 중생, 죽음의 두려움에 떠는 중생을 모두 받아들여도 비좁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된다.

이곳은 아미타부처님의 청정하고 밝은 지혜로 가득 찬 빛의 나라이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궁전과 누각, 연못, 나무 등등 온갖 사물이 보배로 장식되어 있듯이 모든 중생의 마음도 보석과 같이 빛나고 있다. 이와 같이 밝고 청정한 마음에 세상의 만물이 비춰지면 세상 또한 마찬가지로 밝고 깨끗하게 빛난다. 마치 하늘에 달이 천 개의 강을 비추듯이 맑은 마음에 비춰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차별이 없다.

보석처럼 빛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부드러워서 만나는 사람마다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다. 마치 부드러운 풀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바람보다 먼저 눕듯이 청정한 마음은 중생의 인연과 근기에 맞추어 즐거움을 준다.

마치 여러 가지 꽃들이 한데 섞여 피어나더라도 조잡하거나 더럽지 않고 서로 어울려 더욱 아름답듯이 서로 다른 근기와 인연을 지닌 중생들이 함께 섞여 살지만 여러 가지 빛을 발하는 꽃처럼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서로서로 무한한 보배의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으며 그 그물에 달려 있는 구슬이 부딪힐 때마다 맑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이 세상의 중생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법의 음악처럼 아름답고 조화롭다.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 꽃과 하늘 옷, 하늘 향은 세상을 향기롭게 하고 아미타부처님의 지혜의 밝은 빛은 이 세계를 환하게 비추어 조금도 어두운 곳이 없다. 그렇듯 중생의 마음도 언제나 밝고 환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전혀 없으며, 범음으로 설법하시는 목소리가 항상 시방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다.

아미타부처님께서 무량한 겁 동안 수행하신 훌륭한 공덕, 무한한 자비로 만들어주신 이 세상, 여래께서 가시는 곳마다 청정한 꽃이 피어난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중생들도 또한 부처님의 법미를 만끽하고 선열로서 밥을 삼아서 몸과 마음의 고통을 완전히 극복하고 항상 즐거움이 넘친다. 이승이나 여인이나 장애자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으며 중생의 모든 욕망과 즐거움을 마음대로 하더라도 늘 흡족하여 만족하지 못함이 없다.

이와 같이 열일곱 가지의 청정한 공덕으로 성취된 극락정토는 불교의 이상향, 유토피아이다. 그곳은 고통을 지니고 아직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중생까지 받아들여주는 자비의 땅이다.

불교에서 미적인 것은 세속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중생의 아픔을 거두어주고 두려움을 덜어주는 자비의 방편이다. 지극한 즐거움의 세계는 부처님과 보살님들만이 즐기는 그들만의 세상의 것이 아니라 헐벗고 고통 받는 근기 낮은 중생들마저 껴안은 우리들의 세상이다.

청청한 세상, 정토를 만들려고 한다면, 〈유마경〉에서 "만약 보살이 정토를 얻고자 한다면 실로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그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도 청정하다."고 하였듯이 청정한 마음, 올곧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불교의 미학은 자리와 이타의 어울림이며 청정하고 맑은 세상을 가져오는 방편이다.

아미타부처님이 자비롭게 망자를 맞이하러 오는 장면이 묘사된 것으로는 삼성미술관 리움에 보관되어 있는 고려시대 〈아미타여래삼존내영도〉가 있다.

이 그림은 가장 경전의 설명에 맞게 그려진 그림이며 강진 무위사 극락전의 〈아미타성중내영도〉는 1476년 제작된 것으로 아미타여래가 여덟 명의 보살과 성중들을 거느리고 망자에게 내영하는 장면을 마치 구름을 타고 다가오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반야용선을 타고 가는 모습은 통도사에 소장된 〈용선접인도〉와 김해 은아사, 신륵사, 안성 청룡사에도 남아 있다. 반야용선에 타지 못해 밧줄에 매달려가고 있는 악착보살의 모습은 운문사 대웅보전과 영천 영지사 대웅전에서 볼 수 있다.



명법 스님 (조계종 교수아사리)

AMERICAN ORIENTALISM UNIVERSITY

기회 획득 · 자기완성 · 글로벌 약진 · 세계인 위상 · 원격 화상 개방 교육 · 미국학제

고교미필자인증입학과정/국가사회공로자고시과정/대학중퇴자학사단축과정/학사과정/석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박사과정

본교 2013년도 2학기 '학생모집'(수시가능)

- 동 양 학 과 (육임학/사주학/풍수학/경서학)
- 종 교 학 과 (불교문화학/기독신학/민족종교학/심령·신의학)
- 차 문 화 학 과 (한국차학/중국차학/일본차학/다기학)
- 약 초 학 과 (양방재학/한방재학/시장분석학)
- 물리치유학과 (신체학/향취학/물신학)
- 안 경 학 과 (검증학/재료학/제조학)
- 한방미용학과 (피부학/체질학/재료학)
- 전통식품학과 (장유학/효소학/재료학/주정학)
- 서예문인학과 (동양화학/문인화학/고미술학)
- 전통문화학과 (판소리학/고전무용학/사물학/제물학/도예학/전통의상학)

지원신청 webmail : aou.ac@aou.ac

특 전

The Board of Trustees of American Orientalism University AOU

- 가정사정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만38세이상 분에게 본교 심의를 통해 본교 '인증과정'(3개월)을 거쳐 본교 4년제 정규과정에 입학하게 함.
- 대학교 중퇴한 분에게 본교 심의를 통해 본교 단축 과정에 입학, 1년 만에 정규 학사과정을 마치게 함.
-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국가 사회에 끼친 공로가 크고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분에게 본교 심의를 통해 본교 대학원 정규과정에 입학하게 함.
- 본교 박사 과정을 수료한 분에게 심사 후 본교 교수로 우선 선발 함.
- 본교 박사 과정에 재학하는 분이 본교 교수에 발탁되는 경우 해당학 제출 논문심사 후 선 학위 부여 함.

교수초빙

본교는 국내 비인가 종립대학, 관련 학회, 사회단체, 개인도제, 사숙 등과 MOU체결을 통한 본교 소정의 커리큘럼 이수에 의해 학점을 획득, 졸업시키는 학제를 적극 시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과의 학사과정 / 석사과정 / 석박사통합과정 / 박사과정의 교수를 초빙합니다. 2013. 4. 30까지 미국동양학대학교 한국경영지원협회로 연락바랍니다.

이사장 · 총장 김 영 배

AOU 미 국 동 양 학 대 학 교

www.aou.ac

국내 안내 02)738-8683 / 주소 : Nauru Loop Susupe Saipan Northern Mariana Islands U.S.A. 96950 / Po Box10001
American Orientalism University (인가번호 : 99-3013255) / President Young Bai Kim
비영리법인 한국경영지원협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7길 33 남도빌딩 401호

“도덕·철학 빈곤한 정치 지도자는 실정” 역설



方山老의 無影樹 〈11〉

탄허 스님 탄신 100년 증언- 정념 스님



정념 스님 (월정사 주지)
동국학원 이사, 중앙승강대 총동문회장 역임

오대산 수도원 수강생은 사부대중
지도계층 인재양성 사회변혁 기대
돈오돈수 비판… 깨쳐도 보임해야
스님의 독특한 서체 전승 선양 필요

–스님은 언제, 어디에서 탄허 스님을 만나셨나요?

저는 1979년에 쌍계사에서 행자로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고시 공부를 하는 대학생으로부터 오대산에 가면 팔만대장경에 통달한 도인 같은 스님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서 저는 갑자기 오대산에 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그 도인이 바로 탄허 스님이었지요. 그래서 쌍계사를 떠나서 오대산 월정사로 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1979년 말이었습니다.

–1980년 가을에는 이른바 10·27법난이 일어났습니다. 그 무렵에 겪은 일과 탄허 스님과의 관련을 회고해 주세요.

저는 계를 받고 제 사형되는 혜광·현오 스님과 함께 그해 동안거 결제를 해인사 선원에서 하자고 약속을 하였지요. 그래서 방산굴에 계신 만화 스님에게 그런 취지를 말씀드렸더니 경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슨 참선 공부냐는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초 약속대로 함께 해인사로 갔는데, 방부 날짜를 잘못 알아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날짜 때문에 입방을 하지 못해서 학산 스님이 계시던 백련암, 월명암, 복천암을 거쳐서 대전 자광사로 갔습니다. 그때 탄허 스님이 그곳에 계셔서 인사를 드렸지요. 자광사에서 복천암에 방부를 들여서 참선 공부를 하기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참선 공부를 하려면 화두(話頭)가 있어야 하기에, 저는 인천 용화사의 송담 스님에게 화두를 받으러 갔어요. 그렇지만 송담 스님은 구산·성철 스님 같은 방장 스님들에게 화두를 받으라고 하면서, 화두를 주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자광사로 돌아오면서, 그럴 바에는 탄허 스님에게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탄허 스님에게 “정진을 하러 가는데 화두를 주십시오” 하였지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영운선사에 대한 수행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사미거 마사도래(驢事未擧 馬事到來)’ 화두를 주시고는 “열심히 정진하고 이 화두를 갖고 참구하라” 고 하셨습니다. 뒤에 가보니, 이 화두는 제 출가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경허 스님이 참구하던 화두라, 저로서는 인연이 많은 것을 느꼈고 그래서 애정 같은 것을 느꼈죠. 그래서 저는 그 화두를 갖고 복천암에서 참선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법난이 일어나고, 오대산의 스님들이 잡혀갔다는 말들이 들려오고 그랬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복천암에서 수행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래서 저는 복천암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대전 자광사로 내려왔습니다. 그래 자광사에서 두 달 정도, 1980년 말까지 있었어요. 그때 탄허 스님은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광사 거기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자광사 주지로 있었던 원명 스님이 탄허 스님의 환심을 사려고 여러 일을 하였어요. 자광사는 신도관리, 집수리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지내던 곳인데, 원명 스님이 그런 것을 해결하면서 지내니깐 탄허 스님이 좋아하신 것이지요. 또 탄허 스님의 원력이었던 동양학연구소 같은 것도 해드리겠다고 하면서 신임을 얻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스님(원명)이 탄허 스님의 유묵과 출판된 신화엄경 상당 부분을 빼내는 사고가 생겼어요. 그래서 탄허 스님이 크게 상심했어요. 그때 인근 대전지법에 있었던 김동건 판사가 관여해서 해결을 하고 그랬죠.

–탄허 스님에게 본격적인 강의를 들은 것인데, 소감이 어떠하셨는지요?

탄허 스님의 강의는 정말 대단했어요. 스님은 정말 막힘이 없이, 책은 전혀 보시지 않고, 칠판에 가득하게 쓰면서 하셨지요. 처음에는 중국의 구류철학부터 시작해서 동양철학의 대강을 설명하셨어요. 그때에 스님은 유가, 도가, 묵가, 음양가, 종횡가, 법가, 농가 등등을 대의까지 설명하셨지요. 이렇게 스님은 동양학 전반을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사교의 대의를 설명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여덟 시간을 하시다가, 피로하시면 안 된다고 해서 네 시간씩 하였습니다. 스님은 이런 것을 하시면서 강의 내내 원본 외에 책을 전혀 안 보시고 지속하셨는데, 무궁무진한 것을 들려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장자〉를 하시면서,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까지 망라하셨어요. 저는 스님의 강의는 폭이 넓고, 깊이가 있는, 신바람 나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참가 대중들도 다들 환희심으로 경청을 하고, 집중을 하였어요.

–졸업식 이후의 일화들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강의를 받은 일부 스님들은 스님의 강의에 환희심을 내서, 강의를 마치자 마자 상원사 선원으로 올라가서 참선 정진을 한 일도 있습니다. 졸업식을 마치고 학담 스님, 시봉을 하였던 환원 스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사람이 방산굴에 가서 스님을 찾아 뵈었지요. 학담 스님과 환원 스님은 그 이전에 같이 선방을 다녀서 친했어요. 그래서 같이 행동한 것 같습니다. 학담 스님이 스님의 강의가 감명이 깊었다고 하면서 상원사로 올라가서 더욱 정진을 하겠다고 하니까 스님은 아주 좋아하셨지요. 애정어린 시선으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경봉 스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봉 스님께서 부산의 구덕체육관인가 신도들이 모인 어느 법회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탄허가 가면 한국불교가 어렵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봉 스님이 돌아가셔서(1982.7.17) 스님이 경봉 스님의 비문을 짓기로 하였는데, 바빠서 아직 그것을 써드리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못 지으신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결국은 못 지어드리고, 그 후에는 병원에 입원하시고 바로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학담 스님을 비롯한 일행 10여 명은 상원사로 와서 참선 정진을 지속했어요. 당시 상원사에서는 만화 스님을 중심으로 하여 정진을 하고 있었는데, 학담 스님 일행이 기존 상원사 공부에 합류한 셈이지요. 제주도 출신으로 나이가 많았던 성관 스님이 입승을 보고, 지금 봉암사에 있는 지공 스님, 각윤 스님, 각일 스님, 환원 스님, 신룡·현오·현운·현성 스님 등등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상원사 원주를 보면서, 그 스님들과 함께 정진을 했어요.

–탄허 스님은 성철 스님의 돈오돈수 이론을 비판하였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그 강의 때에 스님에게 직접 들었어요. 스님은 바로 출판된 성철 스님의 책인 〈선문정로〉를 들고서 하셨는지 그것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책을 갖고서 하시지 않았나 합니다. 탄허 스님은 이게 잘못된 것이 많다고 하셨어요. 특히 돈오돈수 논리를 많이 비판했어요. 이치적으로는 무수무증(無修無證)이요 돈오돈수(頓悟頓修)라 부처님, 육조 혜능, 우두 법융선사 정도는 그렇다고 해줄 수는 있지만, 어느 누가 돈오돈수를 할 수 있겠는가 하셨어요. 깨달으면 끝난다고 하지만 그건 특별한 사람 정도, 설사 그런 사람들(부처님, 혜능, 우두법융)은 인정해 준다고 할 수는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중생의 업력은 깨쳐도 순간에 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보임이라는 더욱 정요로운 수행을 통해서 완전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수불이(性修不二) 성(性)의 자리에서, 닦아도 닦음이 없는 자리에서 돈오점수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탄허 스님은 교학의 대가이시지만 선사라고도 부르지요?

스님은 교학을 종지적으로 다루고, 유불선을 회통하는 안목이 뛰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록이나 경전을 두루 살피셔서 걸림이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활발발한, 무애한 그런 선의 가풍, 선적인 측면도 겸수하였다고 저는 봅니다.

–탄허 스님의 유묵은 선필(禪筆)로 부르지요?

그렇지요. 저는 월정사 주지 소임을 보면서 스님의 유묵을 오대산문화 차원에서 보존, 전수할 가치가 있다고 봤습니다. 스님의 유묵, 글씨체는 독특하고 독창적인 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서체, 서법이 담긴 유묵은 오대산 전통의 차원에서, 문화적으로 전승, 선양하기 좋은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탄허 스님을 기리는 휘호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스님의 서체에 대해서는 서예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독특하고, 살아 숨쉬고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또 스님의 서체를 기본·정도로 해서 서예 교본책이 시중에 나돌고 있어요. 이것은 스님이 살아 생전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작업을 한 분이 공군 장군이었지요.

–스님은 정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스님의 발언, 관심 등을 유의해서 살피면 정치적 관점이 많아요. 그것은 유년시절에 유교를 배운 것, 그리고 부친이 보천교라는 민족종교의 간부이었던 것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스님은 왕도정치, 제정일치를 많이 피력하셨습니다. 어떤 때에는 맹자에 나오는 것을 활용해서 토지·경제제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정치가 모든 분야, 전반적으로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정일치가 동서양에서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유효한 방안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스님은 지도자의 자질, 자격의 문제도 무척 강조했어요. 정치 지도자는 도덕, 철학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도덕, 철학이 빈곤한 지도자는 많은 실정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서, 제정이 불일치될 때에도 많은 문제가 나온다고 봤어요. 스님은 학문은 훈고학을 하셔서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을 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 있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고 미래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예언을 하셨는데, 이는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와 연결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생활에서도 격식이나 전통성에 구애받지 않으셨지요. 이것은 스님이 세상의 변화를, 이상세계를 실현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과거를 통해서, 과거를 배워서 미래를 전망하려는 것에 관심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스님은 정치를, 경세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큰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1982년 겨울, 특강 시에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스님은 신교육을 받았다면 진보 지식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님은 인재양성을 강조하셨지요?

그렇지요. 스님은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셨어요. 정치를 통해서 구체적인 현실을 바꿔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스님이 직접적인 정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님은 왕사 국사와 같은 위치에 계시고 엘리트, 인재를 발굴하고 키워서 그들로 하여금 정치를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도의적 인재, 즉 동양학 및 화엄사상을 배운 인재를 양성해서 그들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정신문명을 개조하시고, 평화와 이상세계가 깃든 사회를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도의적 인재양성을 통해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도의적 인재는 동양적 가치관, 세계관을 가진 지도자라고 볼 수 있지요. 스님은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셨기에 스님은 오대산 수도원을 여실 때에 수강생을 사부대중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 수강생을 사회 지도계층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재가 세상, 사회를 변혁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스님은 말년에도 대전 자광사에 그런 꿈을 실현시킬 무대, 공간을 만들려고 하셨지요.

–스님의 그런 꿈, 이상이 구현되지 않았던 것이 아쉽군요.

현해 스님께서 1992년에 월정사 주지를 맡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 10여 년은 오대산에 많은 분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문도들이 다시 오대산으로 들어오기 위해 많은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입니다. 오대산 일은 조계종단 차원에서 실랑이를 많이 하였고, 그러면서 그 일은 정치적으로도 관련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의 비서관인 김성한이 그때 우리 일을 정리해서 보고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오대산은 한암·탄허의 문손이 살아야, 그렇게 되도록 배려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종단과 우리 문도가 그런 문제를 갖고 비상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 문제를 풀어가는 중심 역할을 한 분입니다. 그 후에 노태우 대통령이 퇴임을 해서 월정사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해 스님, 도완 스님, 저 등이 노태우 대통령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었지요. 그때 노대통령은 자기는 매사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처리하는 기준이 전통에 입각해서 하였다고 은유적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저는 그 전통이라는 것의 의미를 오대산은 한암·탄허 스님의 권속이 오대산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노대통령은 자기는 어렸을 때에는 파계사의 고송 스님 무릎에서 컸다고 그러면서, 6공 치적을 북방외교로 말하고 거기에는 탄허 스님의 영향,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말을 했어요. 자기는 군인(수경사령관) 시절 평소 탄허 스님을 방문해서 탄허 스님에게 향후 한국의 30년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스님의 말씀이 가슴에 남았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때 탄허 스님은 앞으로 세계(북방, 러시아, 중국, 미국 등)가 변화되는 속에서 한국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그랬대요. 그런 세계사의 흐름, 미래가 전개되는 역사가 올 것을 준비, 대비하라고 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노대통령은 그런 스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북방외교를 하였다는 말을 우리들에게 하였어요. 또, 북방외교를 추진할 적에 어려움이 생기면 탄허 스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냈다고도 했어요. 이런 면에서는 탄허 스님이 국가에, 한국사에 기여한 종교 지도자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상원사에 와서는 당신의 호(일해)를 탄허 스님이 지어주었다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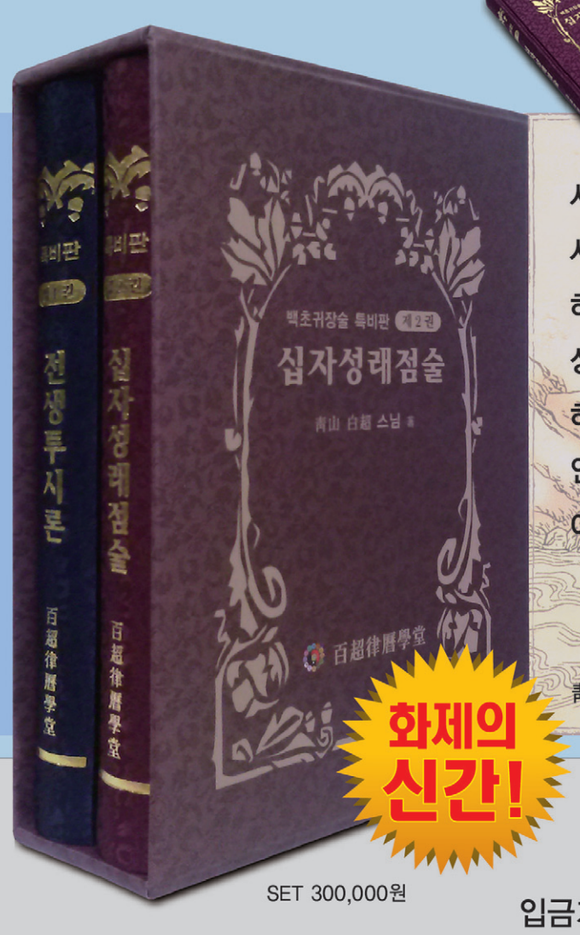
대담: 김광식 동국대 교수

백초귀장술 특비판 / 제1권

전생투시론

지금까지는 전생(前生)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론이 없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개개인의 사주를 토대로 획기적인 방법으로
전생에 어디에 살았으며, 무엇 이었는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현생에 고통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영혼투시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최면요법이 절대 아닙니다.
또 빙의가 되었는지, 어떤 조상영가가 지금 고통을 주는 것인지도
알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青山 白超 스님 著 | 신국판/양장본/제1권 345쪽



화제의 신간!

SET 300,000원

사차원운명둔갑술 백초귀장술 특비판 / 제2권

십자성래점술

사람의 운명의 길흉을 판단할 때 지금까지는 만세력으로
사주를 뽑아서 감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성래점술은 만세력으로 사주를 뽑지 않고도
상담자가 묻는 질문의 답을 알 수 있고, 된다 안된다와 하라
하지마라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신 비법을 공개합니다.
인도의 점성술 천궁도와 귀장술의 12신궁으로 만들어진 12궁에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알면 됩니다.

青山 白超 스님 著 | 신국판/양장본/ 제2권 350쪽

◆ 책 구입은 서점으로 배포되지 않고 백초율력학당에서만 판매합니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041)943-6882 / 010)3813-4443

百超律曆學堂

입금계좌 : 농협 302-4233-7099-41 예금주 : 김경석

마음에서 마음으로 '허공에 도장 찍기'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해 〈17〉



범어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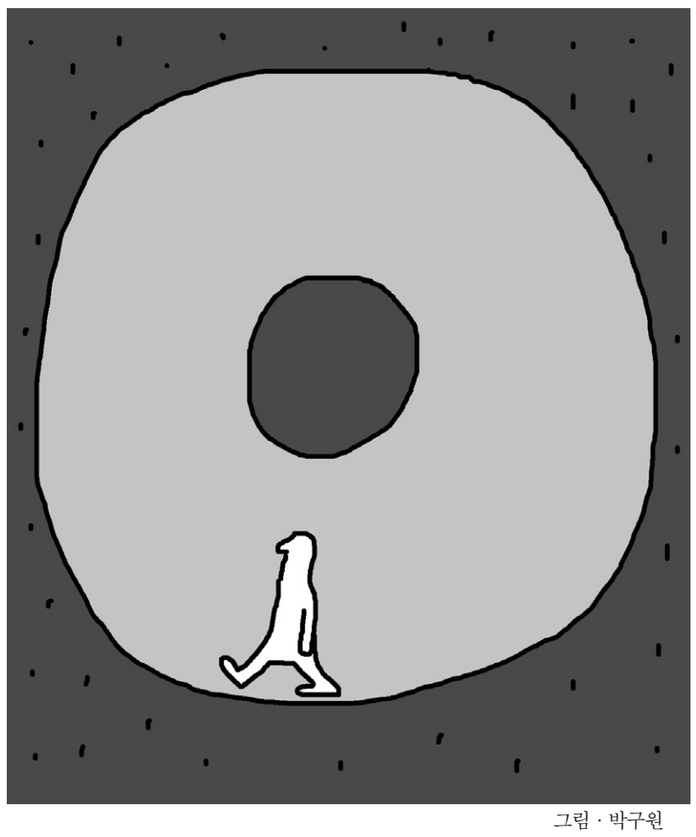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가섭존자가 부처님 만난 후
깨달음을 분명히 보고
법을 부촉 받은것 '염화미소'

부처님께서 꽃을 드니
가섭이 미소 지은 것에
천착하면 군더더기 불과

부처와 우리가 다름없음을
철두철미하게 알때
마음전해 받은 것

허공에 도장 찍으면 남지않듯
새가 종일 날아도 흔적없듯
'확철대오' 내려 놓으면 그만

구름이 허공 떠날 수 없듯
법신은 홀연히 일어나
천차만별로 움직인다

그런데 이 버림에는 세 등급이 있다. '큰 버림[大捨]'은 안팎의 몸과 마음을 다 버려 허공과 같아져서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은 다음에, 곳에 따라 중생에게 응하되 제도하는 주체도 제도될 대상도 모두 잊어버리는 것이다. '중간 버림[中捨]'은 한편으로 도를 행하고 덕을 펴면서 한편으로는 대가를 놓아버리고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다. '작은 버림[小捨]'은 착한 일을 널리 행하면서 바라는 바도 있다가, 마침내 법을 듣고 공(空)을 알아서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큰 버림은 밤길을 가는데 마치 등불이 바로 앞에 있는 것과 같아서, 더 미혹될 것도 깨달을 것도 없다. 중간 버림은 등불이 옆에 있는 것 같아서,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다. 작은 버림은 마치 등불이 등 뒤에 있는 것 같아서, 눈앞의 구덩이나 함정을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보살의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일체를 다 버린다.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이 과거를 버린 것이고, 현재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이 현재를 버린 것이며, 미래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이 미래를 버린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3세를 함께 버린 것이다.

버려서 버린 것이 아니다. 다만 취하지 않을 뿐이다. 취하고 버림을 다 놔버렸는데,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리겠나. 버림에도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한 생각 돌이켜 취하고 버릴 것이 없는 근본 자리에서 버리되 버린 바 없는 버림으로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다.

여래께서 가섭에게 법을 부촉한 이래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인가하였으니, 마음과 마음이 서로 다르지 않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했다고 하지만 전해 준 것도, 전해 받은 것도 없이 흘러온 것이다. 모양이 있어야 전해주고 전해 받을 수 있지만, 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단지 알고 모르고의 문제이다. 부처님계서는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깨달아 분명해졌고, 가섭존자도 부처님 만나서 깨닫고 난 뒤에는 그 길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법을 부촉 받은 것이다. 이것을 염화미소(拈花微笑)라고 하는 것이지, 부처님께서 꽃을 드니 가섭이 빙그레 미소 지은 것에 천착하는 것은 군더더기에 나가떨어진 것에 불과하다.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지만, 무엇으로 인연해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 깨닫지 못하면 갈피를 잡지 못한다. 그 성품이 둘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근본 성품은 부처와 우리가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알 때, 마음을 전해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허공에다 도장을 쩍으면 아무런 무늬도 남지 않는다. 그렇다고 물건에다 도장을 쩍으면 법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쩍는 것이니,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

도장을 안 찍는 것이 아니다. 찍긴 찍되 허공에 찍기 때문에,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수용한다. 그것은 변화했다고 할 수도 없고, 변화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다. 부처님의 마음이나 내가 쓰는 마음이 둘이 아니지만, 업이 달라서 서로 다른 작용을 갖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업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늘 그러한 것이므로, 수미산 같은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한 생각 돌이키는 순간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다. 업을 녹여 없애야 부처된다는 분별이 또 다른 허망한 기운을 만든다. 새가 하루 종일 날아도 흔적이 없듯, 확철대오 해서 내려놓으면 그만인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끌고 다니니, 거북이가 자신의 발자국을 지우기 위해서 꼬리로 쓸지만 다시 그 흔적이 남는 것과 같은 꼴이다.

도장 쩍음[能印]과 도장 쩍힘[所印]이 함께 계합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어서, 그것을 얻은 사람은 매우 적다.

계합하고 말고 할 것이 없다. 구름이 아무리 나타나고 변하고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모두 허공에 의지해서 벌어지는 일이지, 구름은 한 번도 허공을 떠난 적도 없고 떠날 수도 없다.

그러나 마음은 무심(無心)을 말하는 것이고, 얻음[得]도 얻었다 할 것이 없다.

〈반야심경〉의 '이무소득고(以無所得故)'이다. 근본 실상을 돌이켰을 때,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와 대상이 본래 없는 것이다. 우리의 분별하는 모습이 얻었다고 좋아하고 잃어버렸다고 싫어하는 경계를 만들지만, 본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얻는 것도 잃는 것도 아니다. 그것을 투철하게 알아서 허망한 기운에 끄달리지 않아야 한다.

부처님께는 삼신(三身)이 있다. 법신은 자성의 허통(虛通)한 법을, 보신은 일체 청정한 법을, 화신은 육도만행 법을 말한다.

부처님께 세 몸이 있다는 말도 허망한 소리다. 부처라는 말도 방편으로 붙인 이름인데, 부처를 나눠서 삼신사지(三身四智)를 말하는 것은 실로 허망한 소리다. 법신, 보신, 화신을 말할 때 흔히 달과 달빛, 그리고 달그림자에 빗대어 설명한다. 근본 실상의 모습은 온 우주 법계에 충만해서 남거나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공연히 달 모양을 그리면서 어떤 형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법신의 설법은 언어 · 음성 · 형상 · 문자로써 구할 수 없으며, 설하는 바도 없고 증득할 바도 없이 자성이 허통할 뿐이다.

법신은 그냥 온통 드러났다 해도 그렇고, 사라졌다 해도 그렇다.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뿐이다. 그런 입장에서 홀연히 움직임이 일어나 천차만별로 벌어진 것이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⑥⑦



나의 신력(神力)으로 밝은 빛을 비추어서 널리 모든 재앙과 고난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무량수경〉

지진과 죽음

지난 주 토요일(12일) 아침 5시 33분 경. 핸드폰이 울린다. 파랗게 번쩍번쩍 불이 들어온다. 열어보니, '지진경보'다. 효고(兵庫)현 앞바다에서 지진이 났다는 소식이다. 그 순간, 우리 집이 흔들린다. 다행히 잠시 흔들리다가 멈춘다.

진동이 멈춘 뒤, TV를 켰다. 생방송으로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다. 진원지는 아와지시마(淡路島)의 중심부이다. 진원지의 진도는 6.2도이고, 내가 살고 있는 코치(高知)는 진도 3이라 한다.

오전 7시에 기상청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관심의 초점은 '남해대지진'의 전조인가 하는 점에 있었다. 남해대지진은 일본의 와카야마현(오사카에서 남쪽으로 있는 현) 앞바다에서 일어나는 지진인데, 100년에 한 번 온다는 지진이다. 이미 60년이 지났다. 남해대지진의 진도는 9도 이상이다. 만약 남해대지진이 일어난다면, 코치 사람들은 2분 안에 대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발표이다.

이번 지진을 전하는 TV화면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은 다리의 진동이었다.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오사카 시내쪽으로 놓인 큰 다리가 있다. 그 다리가 좌우로 흔들리는데, 다리 형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신속한 속도다. 만약 내가 탄 차가 저 다리를 건너다가 저런 진동을 만난다면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더 심하면, 그 다리를 건너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일 아닌가.

타력의 의미

"일본에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0%다." 우리는 보지 않았던가. TV로 생중계되는, 저 '3.11 동일본대지진'을 말이다. 무슨 까닭에 어떤 사람은 지진으로 죽는가? 우리나라의 어느 교회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천벌을 받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가? 불난 집에 부채질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면 또 어떤가? 원인을 지어서 결과를 받는 것이니까, 지진으로 죽을 어떤 원인을 지어서인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 기독교의 목사님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지금까지 나는 수십 년 불교공부를 하면서, 모든 것은 다 부처님의 인과법(因果法)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렇지만 지진으로 죽는 현상은 이 인과법으로도 설명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과문의 탓인지 알 수 없지만, 부처님께서 지진을 경험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만약 지진을 경험하셨다면, 그 가르침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인과의 세계는 자기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세계이다. 하지만 지진과 같은 자연재앙은 인과의 세계도 아니고, 자력의 세계도 아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오늘 밤에 자는 중에 지진이 일어나서, 나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불안이나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信心), 혹은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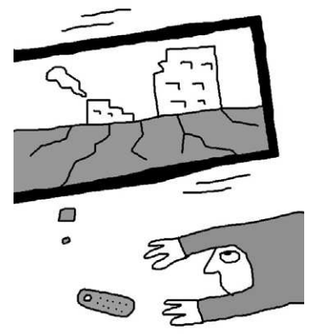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보살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에서는 타력은 불교적이 아니라는 생각이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의 세계, 자력의 세계는 아니다. 그렇지만 인과의 세계나 자력의 세계를 벗어난 곳에 재액이나 고난이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심(安心)하고 살아갈 수 있고, 안심하고 죽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신력으로 모든 재앙과 고난을 다 제도해주겠다"는, 또 다른 부처님(아미타불)에게 나의 생명을, 나의 죽음 여하를 다 맡기는 일밖에 또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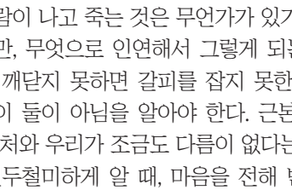
타력은 자력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자력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불교의 세계를 넓혀준 것이다. 이제 중생이라는 고기를 포괄하는 그물의 너비가 더욱 더 커졌다. 그 그물에 걸리지 않는 고기는 어디에도 없다. 나는 이런 생각으로 어젯밤도 편히 잠들었다. 잠들 수 있었다. 나무아미타불!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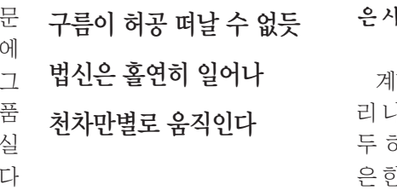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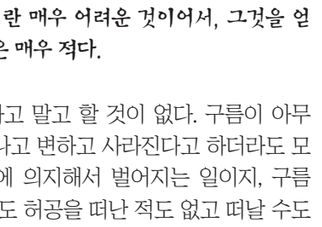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전국 법당의 앰프 신규설치 및 교체 전문,
사용중인 앰프, 스프커의 소리보완 클리닉!!

신제품!!
고급 엠프케이스 출시
• 가격 : 250,000원 (배송료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마이크
aV-620



• 무선 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마이크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 · 야 상담 합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무사히 건넜다는 소식 전해 주시오"

초의선사가 추사를 찾아 제주를 찾은 것은 1843년경이다. 당시 소치는 제주목사 이용현(李容鉉)의 막하(幕下)에 머물다가, 추사의 소개로 해남 우수사로 부임한 신헌의 막하로 옮겼다.

따라서 초의가 제주도에 머물 당시 소치는 제주 목사의 막하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소개하는 추사의 편지는 〈나가묵연첩〉과〈영해타운첩〉에 수록된 것으로, 〈완당전집〉 〈여초의〉에는 누락된 것인데, 이 내용으로 보아 당시 초의는 제주도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말을 타다 다친 상처가 더 심해졌던 초의는 한동안 제주 객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가 보다. 초의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던 추사였지만 유배된 죄인의 처지였기에 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마음을 졸이며, 하루라도 빨리 대흥사로 돌아가길 재촉하는 그의 편지는 이렇다.

아픈 곳이 더 심해져 차도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객지에서 손님으로 지내며 치료가 여의치 않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 졸이며 걱정하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다시 생각해 보니 병든 몸으로 어찌하여 빙빙 맴돌며 머물러 있기만 하고 곧 바로 돌아가지 않으십니까. 절대로 여기에 얽매여 방심하고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가령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떠나는 배가 있으면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손잡고 이별할 수 없는 것이 정말로 서운하기만 합니다. 먼 앞날을 생각 생각해서라도 병든 몸을 이끌고 오가다가 쓸데없이 몸만 망쳐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바로 떠나 이곳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에 침규를


〈영해타운첩〉

추사의 지척에 있고 싶은 초의 스님
초의의 아픈 몸 걱정 가눌길 없어
대흥사로 돌아가길 재촉하는 추사

보내 대신 작별을 대신합니다. 모든 것은 침규의 입에 (침규의 입이 어떻게 하느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배가 순풍에 따라 뜻한 대로 건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만 줄입니다. 돌아간 뒤에 바로 무사히 건넜다는 소식을 전해주십시오. 8월30일 늑편

(即聞患處添頓 不得差安 客中之客 調治知難如意 不勝憧憧懸慮 第更思之 以若病軀 何以低回遲留 不即歸去也 切勿以此牽礙 放心回旋 雖今明 如有船發 幸圖付歸 如何 不得把別 寔屬悵觸 百里前頭 又不可曳病來往 徒致觸扶 亦須斷意直往 無使顧係於此中 亦可也 玆以委送鍼虱 以爲替別之也 都在鍼之口致耳 餘只翼一帆隨順 如意波羅密 姑不具磬 惟歸後 即示安過回音 八月晦日 泐便)

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초의의 아픈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은 듯하다. 아픈 몸을 이끌고 이리 저리 전전했던 초의의 처지를 알고 있었던 추사는 "아픈 곳이 더 심해져 차도가 없다는 말을 듣고" "마음을 가눌 길이 없을"정도로 걱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의는 추사의 지척에 있으면서 지기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싶은 심정이 강했던 것일까. 좀처럼 제주를 떠나려하지 않았나보다. 지기의 이런 마음 모를 리 없던 추사였기에 "병든 몸으로 어찌하여 빙빙 맴돌며 머물러 있기만 하고 곧 바로 돌아가지 않으냐"는 것이다.

"절대로 여기에 얽매여 방심하고 돌아다니지 말고"곧 바로 배편이 되는대로 대흥사로 돌아가길 재촉하면서 "마음을 굳게 먹고" 바로 떠나 후일을 도모하잔다.

서로 사모하는 정을 나눈 벗, 추사는 뱃길을 떠나는 초의를 위해 자기를 대신해 침규(鍼虯)를 보내 초의의 무사안녕을 기원하였다. 침규는 뱃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준다는 바닷고기로, 공미라고도 부른다. 실제 침규가 뱃길을 인도했지는 알 수 없지만 초의를 위한 추사의 마음을 이렇게 절실한 것이었다.

풍랑을 헤치고 떠나는 초의, 성치 않은 몸으로 떠나야했던 당시의 상황을 잘 드러낸 이 편지는 "돌아간 뒤 무사히 건넜다는 소식을 전해"달라는 이 말은 초의를 배려하는 추사의 우정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 하겠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WORLD BUDDHISM LEADER

나라와 종단 어느 승가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는 분을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들이 역시 그 분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는 불교의 최고 어른을 선정하여 모시고자 준비하는

세계 법왕 및 승왕 추대 500인 추진위원회
세계 불교 지도자 高僧 및 元老 선정(宗師, 大宗師 급만 동참 가능)
법왕청 및 승왕청 임시 내각 구성을 시작했습니다
법하께서도 법왕청 및 승왕청에서 활동하시겠습니까?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내주십시오

한국 및 세계 고승 500인 한분 한분의 공적과 활동 내역을 기록한
고승 인명사전을 발간하여 지구촌 곳곳에 배포하여 간직하게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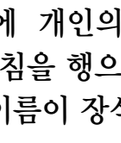
새롭게 거듭나는 승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불교의 대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 입니다.
세계 법왕청을 설립하고 법왕 및 승왕을 추대하고자 하는 불교사에 개인의 명예와 독선조차
하심으로 자신을 내려 놓으시고 헌신적 희생정신으로 무언의 가르침을 행으로 보여 주십시요.
법왕청 설립에 헌신하신 업적이 불교사의 한 페이지에 큰스님의 이름이 장식되었으면 합니다.

世界 法王 & 僧王 推戴委員會
법왕청 및 승왕청 임시 내각 구성 시작했습니다
世界佛教高僧團人名辭典
세계 불교를 움직이는 인물 1인 A4용지 1장 분량 소개
세계 고승단 인명 사전 편찬 진행중입니다.

법하께서도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세계불교 고승 및 원로 500인. 법왕청 및 승왕청 내각 580인
자랑스런 불교계 고승단 큰스님 총 1080인
추진위원으로 활동하심을 모든 스님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불교사의 영광이요 불교계에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서 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 소개서. 개별통지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이사장
한국불교 범종단 총연합 협의회 회 장
미얀마 연방정부 한국주재 미얀마 명예대사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 鐸 - 慧 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 팩스 02)733-5671

"불교 복지의 미래는 팽창보다 전문화 필요"

이건식 원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장)

"이제 복지도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종교계가 삼위일체가 되어 전문화되고 특화된 복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는 사찰 땅이 많잖아요. 이런 공간을 활용해 복지시설을 건립하고 복지 정책을 추진한다면 불교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무척이나 클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장은 불교 복지의 미래를 위해서는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장애인들의 자활과 재활을 책임지면서 장애인복지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고 있는 이 원장은 복지의 불모지였던 불교계에 복지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준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런 그가 불교를 만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의 일이다. 의정부중학교 시절 신실한 불자였던 국어 선생님이 불교학생회를 설립했다. 그리고 봉선사 조실 운경 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법문을 들었다. 의정부시 불자 학생들이 모인 이 모임의 이름은 삼보학생회였다.

이때 들은 법문이 '입지여산(立志如山) 안심사해(安心似海)-뜻은 태산처럼 굳건하게 하고 마음은 바다처럼 편안하게 하라', '몸 정성 마음 정성' 등으로 이 뜻을 새기며 불교에 입문했다. 리더십이 강했던 이 원장은 중고등부 불교학생회의 회장직을 도맡아 했다. 또한 경기북부 불교연합회를 조직해 조계사 학생회와 운동회를 개최할만큼 적극적이었다. 그런 중에서도 그가 가장 큰 자랑거리로 삼은 것은 문학의 밤 형식으로 진행된 백련예술제였다.

"이웃종교 학생회는 문학의 밤을 매우 성대하게 치루는데 우리는 왜 이런 게 없냐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도 이런 거 한번 해보자고 마음 먹었죠. 백련예술제를 만들어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다가 제 3회 때는 판을 좀 크게 벌였죠. 시민회관을 빌려서 공연을 했어요. 가수 송창식을 무료로 섭외했는데 2천여 명의 관중이 찾아와 시민회관을 꽉 채웠죠. 이후로 25회까지 이 행사가 지속되었는데 지금은 세월에 밀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1978년 이 원장은 고려대 심리학과에 입학하면서 자연스럽게 고대불교학생회에 가입하게 된다. 이곳에서 월정사, 송광사, 통도사 등에서 동·하계 수련회를 거치면서 탄허, 경봉 스님 등 당대를 대표하는 스님들을 만나 큰 가르침을 받았다. 또한 정릉 봉국사 불자와 스님들과 함께 청년회를 만들어 운영하기도 한다.

1980년 군에 입대한 이 원장은 육군 20사단 의무대에서 군복무를 하게 되는데 힘든 군생활에 무작정 종소리를 듣고 그 길을 따라 갔더니 거기에 호국득도사가 있었다.

"군법사께서 불교도냐고 묻더라고요. 그렇다고 답했죠. 풍금과 목탁을 칠 수 있다고 했더니 군종병을 시키더라고요. 동지 때는 팥죽 쏘고 부처님오신날은 등만들며 남들과 다른 군생활을 했어요. 또 인근 절에 들러 인맥이 닿았던 큰스님 이름을 대고 떡을 얻어와 부대 사병한테 나눠주곤 했어요"

하지만 대학졸업 후 대우그룹에 입사하게 되면서 이 원장은 평범한 불자로 돌아가게 된다. 하루하루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불교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듯한 서운함이 있었다. 1995년 보건복지부 장관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10년을 일했던 대우를 떠나게 된다. 그리고 복지라는 새로운 분야에 발을 들여 놓게 된다. 이는 복지의 불모지였던 불교계 복지의 틀을 잡을 수 있 계기를 마련하며 조언자 역할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당시 불교는 복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잡혀 있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 있다보니 이웃 종교가 복지 예산을 다 타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답답할 수밖에요. 그래서 스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불교계가 이 분야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게 됐죠"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전신인 생명나눔실천회 창립, 봉선사 불교 어린이집 개원, 승가원 정식법인 등록, 노인요양 시설인 양양 보리수 마을 설립 등의 국가 예산 지원을 돕는다. 이는 불교계 복지가 자리잡을 수 있는 길을 여는 계기가 된다.

이후 보건복지부 비서관직에서는 물러나게 되지만 이 원장은 복지 포교의 원력을 이어나가고자 결심한다. 의정부불교사암연합회의 '좋은일하는사람들의모임'이 만들어지고 이 원장은 여기서 사무국장을 역임하게 된다. 이 모임의 중점 사업은 자비의 음식 나눔이라는 슬로건으로 하는 푸드뱅크 사업. 즉 의정부 양주지역의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등을 위한 무료 급식과 도시락 배달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불자 국어 선생님 도움으로
불교와 인연 맺어 학생회 창립

의정부시 삼보학생회 조직
문학의 밤 백년예술제 개최

보건복지부 비서관 재직 시절
불교계 복지 예산지원 도와

자비의 음식 나눔의 집
불교의료법인 연화복지의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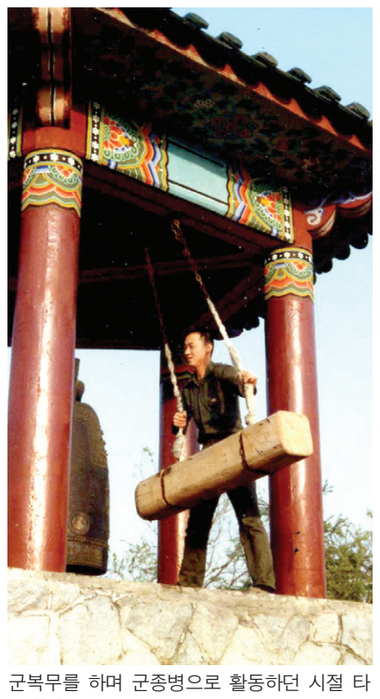
불교 복지 포교 영역 넓혀

"지역의 남는 음식과 식재료들을 거둬와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도시락 배달을 했어요. 처음부터 후원자가 있어 시작한 일이 아니어서 모든 것이 부족했죠. 그러니 음식을 준다는 곳은 어디든 찾아다녔어요. 배추가 풍년인 해는 수익성이 없어 밭떼기 그대로 버릴 판인 배추를 회원들과 직접 찾아가 뽑아왔어요. 한 오리농장에서 오리를 산 채로 준다고 하여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을 데리고 가 직접 잡아오기도 했죠. 그때는 자체 차량이 없어 제 자가용을 이용했는데 이렇게 음식을 실어나르다 보면 내용물이 흘러 냄새가 나기 마련이었죠"

이밖에도 '좋은일하는사람들의모임'은 불우이웃을 위한 자비의 탁발행사, 경로잔치, 장학생 지원, 무료김장봉사, 무료 이·미용서비스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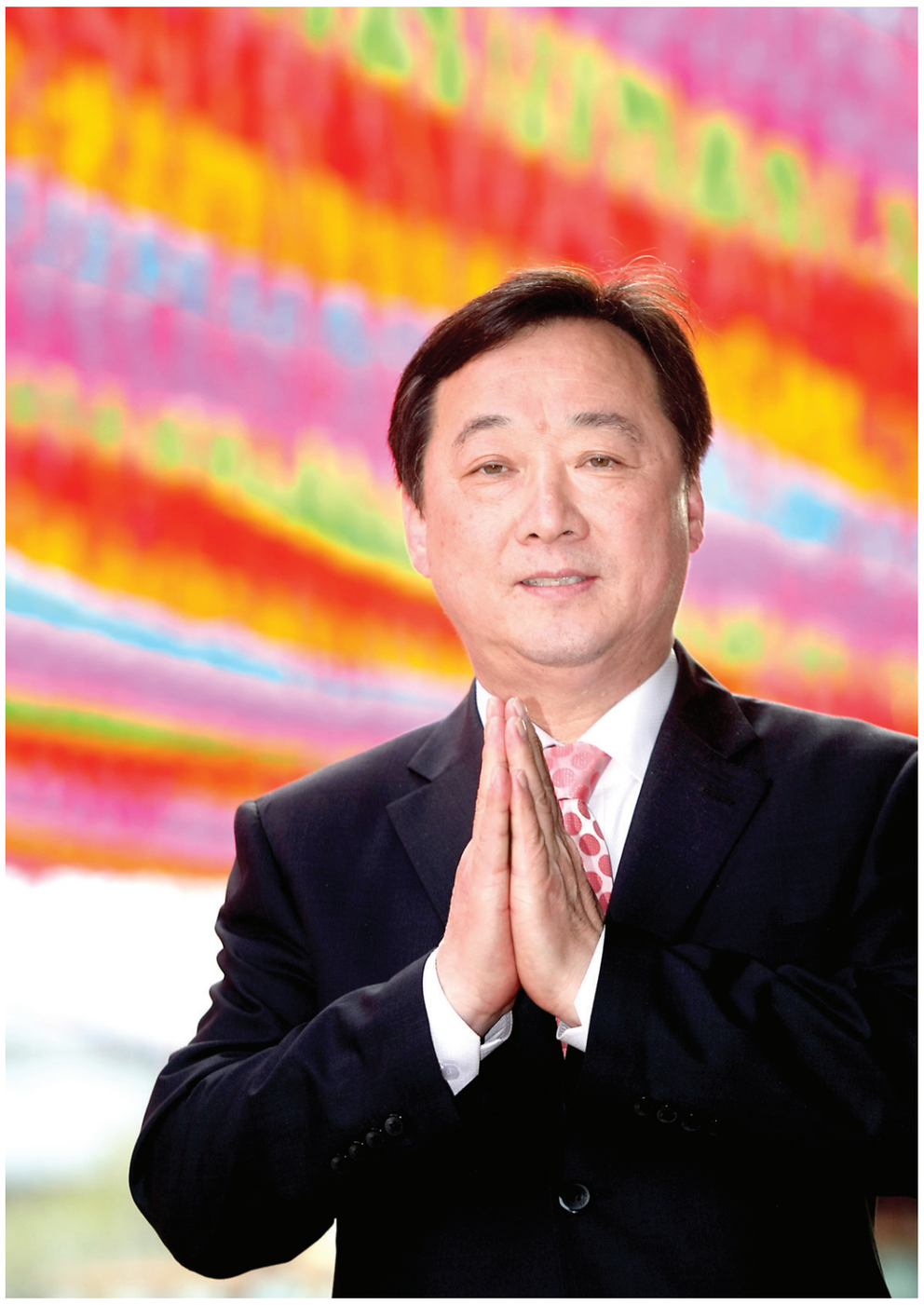
그리고 99년 이 원장은 복지의 영역을 넓혀 불교의료복지사업 연화복지의원 행정원장에 취임하게 된다. 연화복지원은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복지병원으로 초창기에는 전액 무료로 진료를 실시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인근 병원들이 클레임을 걸어왔어요. 돈을 안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최소 비용인 1500원 정도만 진료비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현실은 1500원이 없어 병원을 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


군복무를 하며 군종병으로 활동하던 시절 타종 모습.


삼보 불교학생회 지도법사 운경스님에게 감사패를 드리는 장면


연화복지의원에서 환자물리치료를 돕는 장면



이건식 원장은 … 1958년 경기도 양주군 의정부읍에서 출생, 의정부 중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 심리학과와 정책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단국대 행정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대우그룹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비서관을 역임했으며 '좋은 일하는 사람들의 모임' 사무국장, '자비의 음식 나눔의 집' 소장, 연화복지의원 행정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원장으로 재직중이다. **사진=박재완 기자**

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화복지원의 의료장비들은 세월만큼이나 낡았다. 후원자를 모집해 앞으로 의료장비의 재정비를 해야할 시점에 온 것이다. 하지만 이런 낡은 시설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르신들은 이곳을 찾는다. 그 이유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의료장비가 많이 낡았지만 어르신들은 이 병원을 좋아해요. 간호사들이 10여년 함께 하다보니 얼굴만 보고도 환자의 차트를 찾을 수 있을만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또 초파일날은 떡과 단주를 하나씩 선물해요. 종교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이날만큼이라도 부처님 오심의 의미를 지역민들에게 되새겨주기 위해서죠.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의료활동을 이어나가다 보니 지역 어른신들도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 원장은 이후 2005년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 파키스탄 지진피해 해외 자원봉사에 불교계를 대표해 의료 구호를 펼치기도 한다.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기반으로 이 원장은 지난해 1월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이끌어주는 일산직업능력개발원장으로 취임한다.

이 씨는 최근 이곳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종교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불교모임의 대표를 맡아 11명의 불자 장애인을 데리고 불교모임을 만든 것이다. 인근 절을 빌려 법회를 시작했고 초파일 전에 창립법회를 따로 가질 예정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불교계는 장애인들을 환대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며 이 원장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불교계가 수탁 받은 복지관은 노인복지관이 많잖아요. 기독교계가 많은 장애인 복지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불교계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죠. 이는 스님들 스스로 장애인을 버거워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해봐요. 그 예로 불교계에는 장애인 학교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만큼 스님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장은 종교계와 지자체, 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장애인학교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불교계가 땅이 많다 많다 하는데 그 땅을 잘 활용하지는 못하잖아요. 불교계도 이제 장애인 학교 등의 설립을 통해 복지의 영역을 확대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복지라는 것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더 넓은 차원에서 소외 계층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는 복지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전문 능력 배양으로 취업알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일산직업능력개발원은 현재 컴퓨터, 디자인 등 장애인들의 전문 능력 배양과 재활치료를 병행해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사회 보조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교계도 장애인 복지에 좀 더 힘을 기울여 이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 복지의 미래를 늘 걱정하는 이 원장은 고려대 정책대학원, 단국대 행정학과(박사과정) 등에서 꾸준히 공부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고려대 정책대학원에서 '통일이후 복지정책'에 관한 석사논문을 발표하면서 복지 미래의 앞날을 내다봤다. 이 원장은 "통일후 복지는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 불교는 어떻게 포교해야 하냐를 고민해야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2005년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 당시 응급구조단으로 활동



장애인 직업능력교육시설인 일산장애인능력개발원 체육행사.

전법일기

물거품 된 영화 포교의 꿈

영화감상회와 영화제

나는 5년 전 보성선원에 온 이래 도심사찰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편을 써야 할 것인지 고민해왔다. 그래서 세 가지로 방향을 잡았다. 첫째는 신행공간, 둘째는 복지공간, 셋째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이었다.

신행(信行) 공간으로서의 역할은 어느 절이나 다 하는 거니까 특별할 건 없다. 문제는 복지(福祉)와 문화(文化)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불교를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보면 불자는 대부분 여성인데다 노령층이 많다. 나는 젊은이들을 절에 오게 하기 위해 어떤 방편을 써야 할지 깊이 생각했다. 문화의 여러 분야 가운데 영화와 음악에 눈길이 갔다.

영화는 시간과 공간의 틈을 좁혀준다. 뛰어난 상상력과 과학기술을 동원하여 선사시대의 이야기나 수천 년 후 인류의 미래를 생생하게 보여주기도 하고, 아프리카 오지부터 뉴욕 중심가는 물론 우주공간까지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영화를 통해 우리는 과거 · 미래와 만나고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영화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소재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상하는 모든 것이 표현 가능한 매체이다. 우리나라는 관객이 연간 1억 명을 돌파할 만큼 영화를 좋아하는, 세계 6위의 영화대국이다. 이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영화나 음악, 그 자체가 신심을 일으키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그걸 즐기기 위해 한두 번 절에 오다보면 절 문턱이 점차 낮아질 것이고, 인연을 만나면 신심이 생길 수도 있다. 교회에 투표소를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다.



그림 · 박구원

영화상영으로 청소년 포교 발원

참여자 줄어 중단, 아쉬움만 남겨

나는 절에 영화감상 설비를 갖추었다. 빔 프로젝터와 150인치 스크린, 5.1 채널의 서라운드 앰프, DVD 플레이어와 블루 레이 플레이어까지 장만했고, 형편이 나아지면 바꿀 요량으로 중고 스피커도 구했다. 음질이 썩 뛰어난 건 아니지만 전쟁영화에서는 전투기가 머리위로 날아다니고 음악영화에서는 오케스트라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난다.

창문에는 두꺼운 암막(暗幕) 커튼을 쳐서 낮이나 밤이나 영화를 볼 수 있게 했고, 좋은 영화로 꼽히는 DVD나 블루레이도 준비했다. 신도들에게 매주 토요일 좋은 영화를 상영한다고 공지하고, 영화에 해박한 시인 한 분을 초청하여 상영 전후로 영화해설을 해주는 시간도 넣었다. '잉글리쉬 페이션트' '신데렐라 맨' '마더' '내 어머니의 모든 것' '밀양' '자전거 도둑' 등의 영화를 틀어주었다. 처음부터 참여인원이 많지 않더니 시간이 갈수록 더 줄어들었다. 토요일이라서 그런가 생각하고 평일에 해봐도, 시간을 밤에서 낮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가 영화감상회는 중단됐다.

기왕 내친 김에 봄 · 가을로 '영화제'라는 걸 시작했다. 처음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전쟁을 주제로 한 영화를 7일간 보여주었다. 다음엔 미술가, 음악가, 치매를 주제로 한 영화도 일주일씩 상영했다. 물론 전문가가 영화를 해설해 주는 자리도 마련했다. 지역 언론에 보도하게 하였더니 생각보다 많은 분이 오셨고, 참석자들은 "참 좋다!"를 연발하였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횟수를 거듭할 때마다 참가 인원이 적어지더니 이 또한 문을 닫았다.

영화를 상영한 곳은 약사여래불을 모신 법당인데 조립식 건물이어서 냉난방을 하더라도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웠다. 게다가 날마다 공양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안락한 의자를 설치할 수도 없었다. 지금은 영화설비가 어린이법회 때 가끔 활용된다. 영화를 통한 전법의 꿈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몇몇 사람들은 음악감상회와 더불어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졌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서울만 됐어도 성공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내가 우리 신도들의 감성이나 취향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닌지, 아쉬움이 크다.



한북 스님((재)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찬덕불교 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 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미얀마 갈등, 국제사회 "불교 자성" 촉구

불교와 무슬림 간의 유혈 충돌이 40여년 만에 찾아온 미얀마 민주화의 봄을 퇴색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 사회에서 미얀마의 이번 종교 간 유혈 충돌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 주목되는 가운데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 아웅 산 수치(Aung San Suu Kyi) 여사가 종교 간 유혈 충돌에 대해 미온한 태도를 보여 국제 사회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로이터(Reuter) 통신은 4월 8일(현지시각) 미얀마 유혈충돌에 대한 특집기사를 내고 "미얀마 사회에서 일고 있는 불교민족주의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고 경고하고, "그 중심에 불교계가 깊이 개입해 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이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퇴색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도했다.

CNN은 23일자 보도에서 "최근 전개된 미얀마 유혈 사태에 대해 '평화를 위한 폭력'이라는 미얀마 불교계의 설명은 '정치적 수사학'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국제사회는 종교 · 종족 갈등이 미얀마가 민주화 과정에서 넘어야 할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며 "이번 갈등으로 미얀마 민주화 개혁이 좌초될 수도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전했다.

ABC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말을 인용, "미얀마 사태는 매우 슬픈 일이며,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부처님은 용서와 관용에 대해 가르치셨다"며 "마음 한 구석에서 분노와 살의를 느낄 때,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할 수 있어야 진정한 불제자"라고 덧붙였다.


미얀마 승려를 감시하는 미얀마 군인. 불교 • 무슬림의 유혈 충돌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웅 산 수치의 '미온한 반응' … 국제사회 '우려' 불러

로이터 통신, "종교 · 종족 갈등, 민주화 발목 잡을 수도"

휴먼라이트와치(Human Rights Watch)는 지난 22일 미얀마 특별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얀마에서 무슬림 소수 민족에 대한 인종 청소라는 만행이 저질러 지고 있다"며 "미얀마 당국 이 사태에 대해 국제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수치 여사가 지난 17일 야당 지도자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해 마련된 도쿄대학 특별 강연에서 미얀마 사태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태도를 보여 세간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수치 여사는 도쿄대학 특별 강연에서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민족 분쟁이 있어 왔고,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 수는 없다"며 "먼저 법치가 바로 서야, 종교 · 민족 간의 폭력적인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마법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수치 여사는 민주화 운동의 '어머니'로 미얀마 국내는 물론 국제 사회에서도 절대적이라고 할 만큼 큰 존경을 받아왔다"고 전제하고 "국제사회는 미얀마가 종교, 종족 갈등을 해소하고 민주화 개혁을 계속할지, 지난해 4월 정계에 진출한 수치 여사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보여줄지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치 여사는 미얀마에서 무슬림 소수민족 탄압과 인권유린, 과잉진압 우려가 제기된 뒤에도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국제 사회의 실망을 초래했다. 이번 4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메이크틸라 유혈 충돌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시아타임즈(Asia Times)는 지난 23일 '수치 여사의 무슬림 도덕적 딜레마(Suu Kyi's Muslim moral dilemma)'라는 주제의 보도를 통해 "수치는 미얀마 메이크틸라에서 불교계가 일으킨 유혈 사태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는 데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전제하고, "불교와 무슬림 간의 유혈 충돌에 대한 수치 여사의 결단이, 앞으로의 정치적 여정을 결정지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미얀마에 잠재해 있던 종교 갈등이 표면화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3월 22일 미얀마 중부 도시 메이크틸라에서 불교도 주민과 무슬림 주민 간에 유혈 충돌이 발생, 최소 20명이 사망했다. 사건은 3월 20일 무슬림 금은방 주인과 불교도 손님 간의 말싸움에서 발단이 됐다. 이 싸움으로 스님이 죽고, 이에 불교도들이 무슬림 주거지로 쳐들어가 방화한 데서 불교와 무슬림 간의 유혈 충돌이 시작됐다.

오종욱 편집위원

인도 공무원 시험에서 빨리어 사라진다

젊은 층 빨리어 '외면' 자명 … 인도 불교 쇠퇴 야기할 수도

인도 정부가 국가 공무원 시험 과목에서 빨리어를 제외시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인도 불교학자들이 이를 적극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

부디스트 채널(Buddhist Channel)은 16일 란카웹(Lankaweb)의 보도를 인용. "그동안 빨리어의 맥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인도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군의 하나인 공무원의 시험 과목이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인도 정부의 결정은 자칫 인도에서 불교의 쇠퇴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도 관광문화부는 지난 2006년 '고대언어'의 자격을 "1500~2000년 전 기록된 문헌상 언어로 당시의 일상어 유산의 가치가 크고, 동시대 사어(死語)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규정했고,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 과목의 고대어 분야에서 '빨리어'를 채택해 왔다.

한편 인도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불교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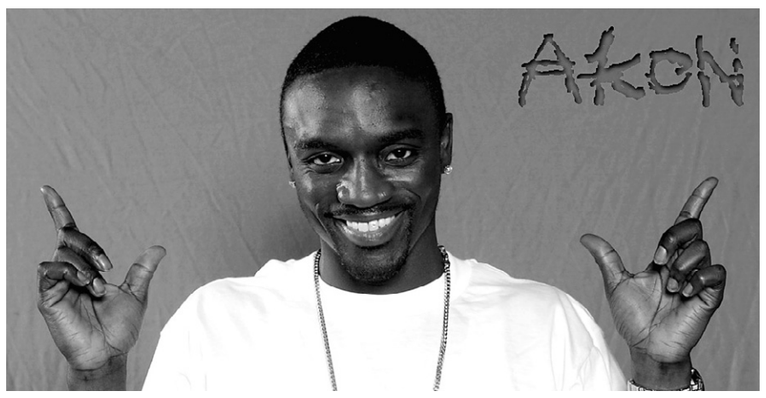
이들은 "빨리어와 그 문학이야 말로 인도 관광문화부의 고대어 분류 기준에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빨리어는 부처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삼장(Tripitaka)의 언어이고, 삼장은 불교문화의 보고라는 것이다.

부디스트 채널은 "인도 정부의 결정이 동시대에서 불교 연구 · 포교 분야에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데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불교학계의 반응을 전하고, "우리는 인도 정부의 결정이 부당하고 비논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인도 정부, 특히 관료주의자들의 정치적 리더십 부재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는 학계의 입장을 보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부처님 좋아 팔에 문신했을 뿐인데…"

스리랑카, 부처님 이미지 훼손 금기… 입국 금지



인구 70%가 상좌부 불교를 따르는 스리랑카에서는 부처님 이미지 훼손을 금기하고 있다. 2010년 미국 가수 아콘(Akon)은 불상 주위에서 반라의 여인이 춤추는 뮤직비디오를 발표해 입국을 취소당했다.

팔에 부처님 두상을 문신한 영국 관광객의 입국이 거부되는 일이 발생했다.

스리랑카 지역신문 랑카데파 싱하레세(Lankadeepa Sinhalese)는 최근 "영국인 안토니 랫클리프(42)가 부처님의 품위를 손상하는 문신으로 스리랑카 입국이 금지됐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관광객은 문신에 대한 이민국 질문에 무례하게 반응하고 불교를 폄하했다고 전해진다.

콜롬보 반다라나이케(Bandaranaike) 국제공항 이민당국은 "무례한 행동으로 지역주민과 마찰이 번질 것을 우려하고 신변안전을 위해 입국을 불허한다"고 했다.

BBC는 "런던에서 말레이시아로 이동 중이고 스리랑카를 경유하고 있어 현지 주민에게 무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여러 해 동안 불교를 믿어왔고 문신으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해 부처님을 문신으로 새겼다. 단순히 가벼운 마음으로 문신한 것은 아니다"고 관광객의 말을 전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의하면 스리랑카는 인구의 70%가 상좌부 불교 신도국가이며 부처님 이미지 훼손을 금기시 해외국인들에게도 현지 법례와 종교적 분위기를 따라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엄격한 종교적 분위기로 인해 스리랑카는 2012년 8월 불상에 키스하는 포즈를 취한 프랑스인에게 6개월 강제노역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2010년에는 미국 R&B 가수 아콘이 불상 주위에서 반라의 여인들이 춤추는 뮤직비디오 발표 이후 스리랑카는 입국을 허락하지 않기도 했다.

이어 BBC는 "한해 10만 명의 영국인들이 스리랑카를 방문하며 전체 관광객의 10%를 영국인이 차지한다"고 전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태고종 해외교구, 정기수련대회 열어

종무원장에 미국인 혜도 스님

태고종 북미 · 유럽교구(회주 종매)는 교구본사가 소재한 미시건 머디워터선원(Muddy Water Zen Center)에서 4월 12~14일 '미동부지역 정기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수련대회에는 미북동부 및 캐나다 태고종도 및 태고종 종립대학인 IBS USA 불교대학 학생 등 28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종매 스님(로욜라 메리마운트대)의 참선지도와 발우공양, 법문 등으로 이루어진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종매 스님은 올 초 2007년에 설립된 태고종 해외교구를 미국인 제자 혜도 스님(Gary Schwocho)에 종무원장직을 위임해 한국불교 사상 최초의 외국인 교구 책임자를 배출했다.

이번에 수련대회를 개최한 미시건 주에는 교구사무실이 소재한 머디워터선원(Muddy Water Zen Center) 뿐 아니라 그랜트래피드선원(Grand Rapids Zen Center, 주지 덕운), 라이징로터스선원(Rising Lotus Zen Center, 주지 법해), 보디마인드선원(Bodhi Mind Zen Center, 법안전 법사) 등 4개의 사찰이 있다. 이곳에

해외교구 800여 미국인신도 등록

5월 31일 중 · 서부 수련대회 예정

만 약 800여 명의 미국인 신도들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종무원장 혜도 스님은 전직 장로교 목사이자 축의과 박사로서 2001년 삼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나, 2007년 종매 스님을 은사로 태고종으로 전종(轉宗)해 태고종 소속으로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

태고종 북미-유럽교구는 2013년 현재 22개 사찰과 47명의 승려 및 전법사로 구성돼 있다. 이밖에 교구 종무원(미시건)과 지방종회(캐나다) 그리고 호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구의 지회는 미국동부-북부-남부-중부-서부-캐나다-유럽 등 7개소에 개설돼 있다.


4월 12~14일 미시건 머디워터선원서 열린 '미동부지역 정기수련대회'에 참가한 태고종 해외교구 사부대중.

회주 종매 스님은 "해외교구 설립 이래 이번 수련회에 가장 많은 종도들이 동참한 대회를 성공적으로 회향함에 따라 북미지역의 태고종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는 것을 느낀다"고 전했다.

한편 태고종 북미-유럽교구는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보광사에서 중-서부 수련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기사 · 사진제공= 미주한국불교

법문집, 주제가 있는 에세이집, 구도기, 자연치유 경험담, 여행기 등

현대불교가 진리의 법문을 담는 소중한 그릇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산하대지 온 천지가, 심지어는 한 송이 풀꽃마저도 법을 노래하지 않은 적이 한시도 없건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눈 뜬 장님마냥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사바세계를 힘겹게 건너가고 있으니, 자기 등불을 이미 밝힌 불자는 깨어 있음의 기쁨으로 종을 치고 북을 쳐서 세상을 향해 돌이키라는 외침을 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말로 표현하면 곧바로 그것이 허물이 됨을 알면서도 말과 글을 쉴 수 없는 까닭은 이미 원만구족해 있는 우리안의 佛性을 깨우는 촉매가 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 때문일 것입니다. 현대불교에서는 우리 안의 불성을 깨우고 자극하는 법문집이나 에세이, 구도기 등, 모든 형태의 佛書를 기획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날로 어려워져가고 있는 출판의 대외여건상 초기에는 저자가 일정 부수를 소화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게 되지만, 광고와 인터뷰 기사 등으로 더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한편, 독자로부터 반응이 좋을 경우 에는 소정의 인세를 지불하여 저작권을 적극 보호할 것입니다. 단행본 출판은 현대불교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여시아문

(문의 : 02-2004-8213, 010-7755-2261) 현대불교

보시



현대불교신문사와 삼환양초는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양초를 무료로 보시합니다.
이 초는 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는 육각초 (길이 45Cm, 판매가 25,000원 상당)입니다.

전국 사찰에 한하며, 선착순 500여 사찰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팩스주문만 받사오며, '제목 양초 보시', '받으실 사찰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 후 현대불교신문사 또는 삼환양초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 택배비는 받으시는 사찰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선착순 500셀 한정!! → 현재 남은 수량 228셀

신청 : 삼환양초 FAX 031)766-0233 / 현대불교신문사 FAX 02)737-0696

목 각 단 청 운 각

(간편조립)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 3 자 : 1판



▣ 2자 : 4판



▣ 1자 : 4판

※ 단청운각 1세트 17자 (5m, 10cm), 가격 90만원

법당장엄 5층 목탑





▣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가로, 세로 20cm
가격 35만원

▣ 크 기 : 높이 120cm 하단 가로 45cm
보급가 : 900,000원 (배송비 포함)
* 내부 조명등 있습니다.

주문문의 고전상사
전화 : 031)442-3168 / 010-5599-3165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02-0519-1995-01 예금주 장돈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

(주)에스굿
마하연 투어







성지순례

품 격 ■ 지장도량 / 관음도량 성지순례 7일 – 139만원
(구화산. 황산. 보타산. 낙가산)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 성지순례 4일 – 99만원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 성지순례 4일 – 109만원
■ 문수도량 (오대산/석가장) 성지순례 5일 – 119만원
■ 보현도량 (아미산/낙산) 성지순례 5일 – 119만원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19만원
품 격 ■ 은둔의 나라 라오스 성지순례(직항) 6일 – 139만원
품 격 ■스리랑카 정통성지순례(직항) 7일 – 199만원

불탑의 나라 미얀마

초특가 확정출발 5월22일, 29일 (단2회) 양곤/바고/시리암 5일 90만원
양곤/바고/시리암(직항) 5일 – 99만원
양곤/바간/헤호 5일 – 159만원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169만원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황금파고다/철야기도 가능) 7일 – 요금문의

(주) 마하연 투어 ☎02)365-7747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대명빌딩 303호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불교용품
불교서적
불교달력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림등
빨강,연분홍,진분홍,주황,보라,흰색



청사초롱



공단·바림 칼라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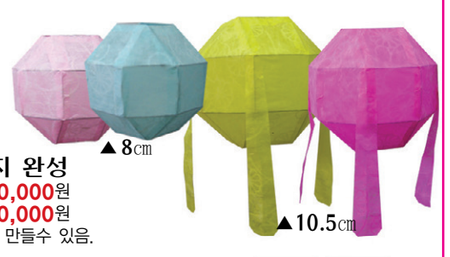
연 등 할인가

비닐만월등
파랑, 진분홍, 노랑, 분홍, 초록

비단접등
10.5㎝/12㎝



한지칼라등지 완성
8cm 30,000원
10.5cm 40,000원
※1묶음당 50개를 만들수 있음.



▲8㎝
▲10.5㎝

- 바림등(6㎝) @2,700원 (50개이상)
- 바림등(8㎝) @3,200원 (50개이상)
- 바림등(10.5㎝) @6,000원 (24개이상)
- 바림등(13㎝) @13,000원 (12개이상)
- 바림등(20㎝) @35,000원 (4개이상)
- 바림등(30㎝) @80,000원
- 공단등(6㎝) @2,700원 (50개이상)
- 공단등(8㎝) @3,200원 (50개이상)
- 공단등(10.5㎝) @6,000원 (24개이상)
- 공단등(13㎝) @13,000원 (12개이상)

- 비닐만월등(100개) 150,000원
- 영가만월등(100개) 150,000원 (1Box)
- 청사초롱등(100개) 250,000원 (1Box)
- 오색청사초롱(100개) 240,000원 (1Box)
- 비단접등(10.5/12㎝) 350,000원 (100개)
- 등철사(100개) 6㎝/8㎝/10.5㎝/12㎝ 75,000원/80,000원/85,000원/90,000원

★국산★ 방수전선 (한줄50구)
23㎝ / 25 ㎝/ 30 ㎝ 5줄이상 @ 70,000원
50 ㎝/ 1m / 2 m 기타주문생산



봉축카드[21종]
@300원(1,000장 이상)
구성 : 봉투, 내지 인쇄포함
내지 : 18.5×25.6cm



LED전구
100,000원[국산]
1BOX : 50개 (0.87W)
색상 : 촛불색/주광색/빨간색



고추전구/대추전구
22,000원/30,000원
1BOX : 100개
고추전구:10W / 대추전구:8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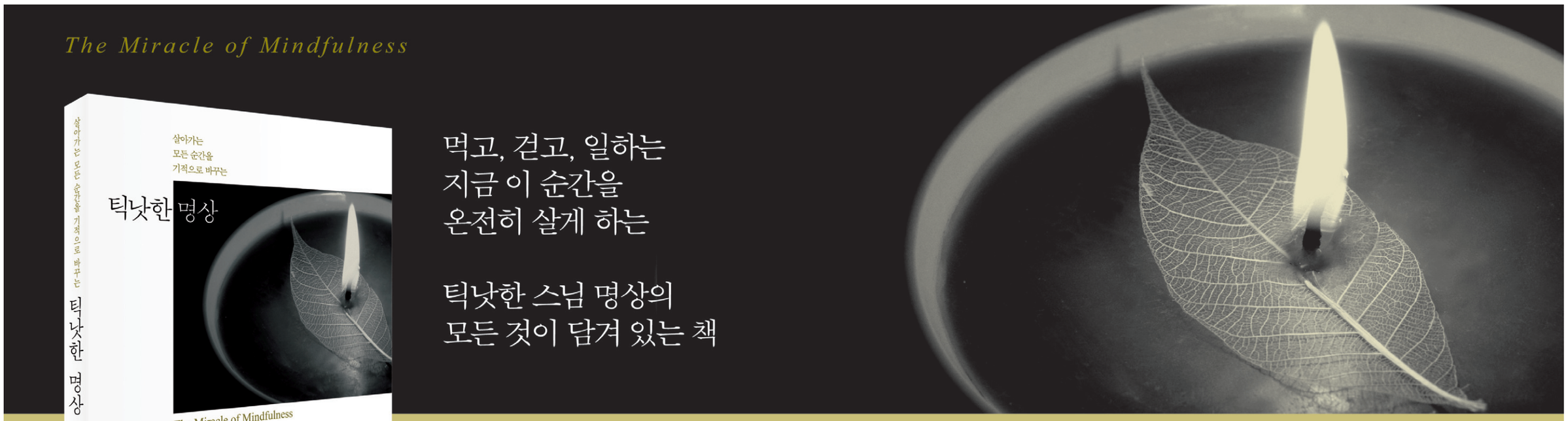
연꽃봉축리본/고급봉축리본
18,000원/25,000원
1BOX : 100개
진분홍 / 진분홍,오렌지,빨강



PVC등표
12,000원
(100개)
크기: 8.5×21cm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515-8888-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틱낫한 명상

이현주 옮김 | 160쪽 | 11,000원

유나방송 정목 스님 추천!

"스님 책을 읽는 동안 나 자신도 몇 번씩 호흡을 의식하며 책 읽는 나 스스로를 관찰하게 되니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마치 관찰 수행 같기만 합니다. '출렁이는 물결도 물이듯이 어지러워진 마음도 역시 마음이고, 마음으로 마음을 붙들 수 있을 때 미혹된 마음이 참마음으로 바뀐다'는 그 말씀 되새기며, 스님 책이 많은 이의 미혹된 마음을 참마음으로 바꾸어놓기를 기대합니다."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여산 스님의 회상으로 본 5.18

연극 '푸르른 날에' 남산예술센터서…5월 4일부터

남산예술센터와 신시컴퍼니가 공동제작하는 '푸르른 날에'가 오는 5월 4일~6월 2일까지 남산예술센터 무대에 다시 오른다. 푸르른날에는 2011년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에서 초연된 이후 그해 대한민국 주요 연극상을 휩쓸며 평단의 고른 호평을 얻은 바 있다.


연극 '푸르른 날에' 한 장면

차밭이 보이는 암자에서 수행 중인 스님 여산(과거의 오민호)이 조카이자 '딸'인 운화의 결혼 소식을 듣는 것으로 시작되는 연극의 역사적 배경은 5.18광주민주항쟁이다.

이 작품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21세기 신파극'이라는 과감한 시도로 새롭게 조명해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왔다. 특히 10대 청소년과 20대 대학생 등 신세대들에게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지난해 연일 매진을 기록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푸르른날에는 2013년 좀더 디테일한 신파로 관객들을 찾는다.

연출가 고선웅 씨는 "신파는 더욱 디테일해질 것이며 더욱 통속적으로 연출 될 것이다. 처음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창작연극이 이렇게 관객들의 사랑 속에서 매년 5월, 세 번째 무대까지 올릴 수 있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완성도 있는 작품을 기대해도 좋다"고 전한다. (02)758-2150

정혜숙 기자

빛을 찾아 떠나는 마음의 여정

서현 첫개인전 스페이스선

서현 작가의 첫개인전 '빛을 찾는 여정'이 5월 13일까지 삼청동 스페이스 선+에서 열린다.

두려움을 안고 세상 밖으로 첫 발을 내디딘 20대의 작가 서현은 불교의 교리에 자신을 녹여 만든 설치작품을 선보인다.

서현 작가는 "마음의 본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독실한 불자이신 부모님의 영향도 있었지만, 마음의 시작점을 찾아 방황하고 있을 무렵 우연히 불화를 배우게 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서현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전시장의 공간에 놓인 반사재질의 조형물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 벽면에 자유로운 빛그림의 모습들이 투영된다. 이 빛그림은 내면의 자아 즉, 마음의 움직임이 현실에 반영되는 모습들의 찰나를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이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성찰시키고 있다. 서현 작가는 "종종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는 불안한 마음에서 오는 고통에 의문을 품는다. 그리고 그 마음의 시작점을 찾으려는 것이 내 작업의 과정"이라고 말한다. (02)732-0732

정혜숙 기자

연꽃으로 피어난 불심의 향기

한국불교사진협회회원전…5월 6일부터 서울 메트로미술관서


하호숙의 '열반'

한국불교사진협회(회장 박봉수)가 주최하는 '제 18회 한국불교사진협회회원전'이 5월 6일~26일까지 서울 메트로미술관을 비롯 봉은사, 대구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열린다.

연꽃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는 전국 각지의 다양한 연꽃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박봉수 회장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우리의 전시가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불심을 기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전시 취지를 전했다. 전시는 1차 5월 6일~10일 서울 메트로미술관, 2차 5월 11일~16일 봉은사, 3차 5월 21~26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된다.

찬불가와 선화가 만나 부처님 예경·찬탄

불자가수 야운 전승은 현대불교음반 '산솔바람' 발매


불자가수 야운이 현대불교음악집 '산솔바람'을 5월 17일 부처님오신날 발표예정이다.

"노래를 불러 돈을 많이 벌거나 유명해지고 싶어서 음반을 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좋았고 그래서 늘 가수가 되고 싶었죠. 저의 노래가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찬불가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제 기쁨이죠"

불자가수 야운(본명 전승은)이 현대불교음악집 '산솔바람'을 5월 17일 부처님오신날 발표예정이다. 이번 앨범에는 옴마니반메훔, 꽃들이 만발한 곳에, 나비꿈 등 10여 곡을 담았다. 특히 이번 신보에는 석골사 주지 도심 스님의 선화가 곡마다 어우러져 불교음반의 운치를 더해준다.

"17살에 통도사 청소년 수련을 가서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됐죠. 그즈음에 알게 된 분이 양산 통도사 사명암에 주석하시는 단청 탱화의 대가이자 중요무형문화재 48호 단청장 동원 스님입니다. 그분한테서 불화를 배우며 그곳에서 1년 반을 살았습니다. 동원 스님의 상좌이신 도심 스님이 이번 앨범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야운은 오대산 상원사, 송광사, 통도사, 봉은사 등을 찾아다니며 매년 3천배를 한다. 그리고 지극히 기도를 하다보면 내면 깊은 곳에서 눈물이 우러나온다고 한다.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하고 새엄마 밑에서 자라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일찍부터 아르바이트하면서 일찍 독립을 하게 됐죠. 부모님 보호아래 편하게 공부하는 아이들 보면 제 신세가 서러울 때도 있었어요. 집밥이 그리울 때는 절밥 먹으로 절에 갔어요. 덕분에 절에서 운력도 많이 하고 공양간 보살님들이랑 친해졌죠. 지금은 어린시절의 기억이 아프지 않았요. 낳아주신 분도 길러주신분도 모두 고마운 분이죠"

그래서 지난해 낸 1집 음반에 이어 이번 새앨범에도 담은 '모(母, 작사곡 야운)'는 대중가요지만 관세음보살님과 부모은중경을 생각하며 곡을 썼다.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서정적인 멜로디로 담아 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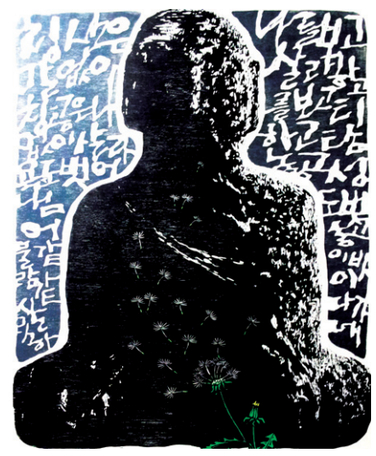
야운은 지난 17년 동안 그녀를 필요로 하는 곳 어디든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주로 노인복지관 등 어르신들이 많은 곳을 찾게 됐다. 부모의 정이 그리웠던 그녀는 어르신들에게 노래를 불러드리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이런 그녀가 첫앨범을 내며 정식으로 데뷔를 하는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난해 첫 대중앨범 '흑백낙서'를 냈

옴마니반메훔, 나비꿈 등 10여곡 담아
도심 스님의 선화 앨범에 삽입
"작은 암자 돌며 공연하고파"

으니 말이다. "속세에 업이 많아 계속 회사를 다니며 노래를 불렀어요. 물론 밤무대 같은 곳에서 노래를 부르면 목돈을 받아 생계를 이어갈 수도 있지만 썩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작년에 직장을 그만 두고 들구름문화공작소라는 기획사를 차렸고 6년 전 준비했던 앨범을 지난해에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녀가 꿈꾸는 삶은 음원 사이트에 명상음악을 포함한 현대불교 음악 장르를 만드는 것이다. "기독교는 CCM카테고리가 있는데 불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불교음악 카테고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국 곳곳의 암자를 찾아다니며 작은 콘서트를 열어 많은 분들에게 찬불가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앨범에는 석골사 주지 도심 스님의 선화가 어우러진다. 그림은 '부처님이여'(그림 왼쪽)와 '합장 차한잔'

야운은 들구름문화공작소 대표 및 들구름악단 악단장,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홍보대사다. 음반 프로듀서, 작사·곡은 물론 산사음악회 기획과 공연을 해오고 있다. 첫 번째 앨범으로는 '흑백낙서'가 있으며 조계사 단독콘서트 '야운과 들구름 악단의 부처님이야기가 있는 콘서트 등을 기획·연출했다. (02)2052-1771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춤으로 풀어가는 부처님의 생애

파사무용단 '붓다, 일곱 걸음의 꽃'…5월 14·15일 세종문화회관서

"나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고 인간으로 성장하였으며 인간으로서 붓다를 이루었다. 첫 발, 그리고 두 번째 걸음, 사위를 두루 돌아보고 마침내 일곱 걸음.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 하늘과 땅을 비롯한 모든 것이 나 아닌 게 없고 나 또한 모든 사물들과 다르지 않으니 붓다(Buddha)는 세상을 향한 일곱 걸음만으로 이미 수천년의 꽃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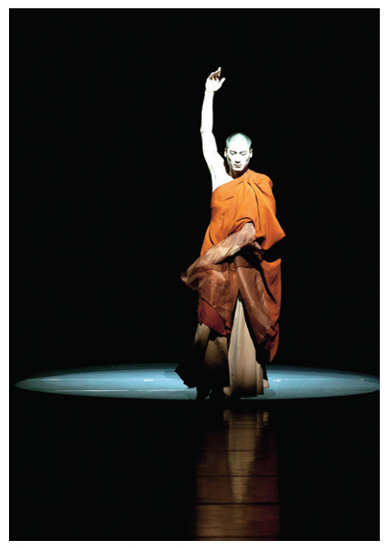
파사무용단의 2013년 야심작 '붓다, 일곱 걸음의 꽃'(연출 황미숙, 조주현)이 5월 14일~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막을 펼친다. 지난해 파사무용단 10주년 기념공연으로 초연된, '붓다, 일곱걸음의 꽃'은 2013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대중들에게 불교문화를 보다 쉽고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기획됐다.

공연은 시타르타로 태어나 붓다로 남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나간다. 파사무용단은 "세계적으로 관심받고 있으며 동양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불교를 탄생시킨 부처님의 행적을 현대무용으로 이미지화 시각화한 작품"이라고 설명한다.

'붓다, 일곱걸음의꽃'은 6장의 구성을 통해 인간이되, 다양한 문화와 예술로 다시금 피어난 여러 장르의 예술들을 불교문화 안에 모았다. 파사무용단은 "현대무용으로 새롭게 써내려가는 불교 문화의 또 다른 해석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현대무용만이 지닌 춤의 언어로 너무 극화시키거나 연대별 나열식이 아닌, 음악과 미술 거기에 춤이 중심이 되는 독특한 작품으로 승화시켰다"고 설명한다.

한편, 파사무용단은 한국적인 현대무용 개발과 보급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다양한 소재의 작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070)7558-5710

정혜숙 기자


'붓다, 일곱 걸음의 꽃' 공연 장면

생각-
그 이상의 한약향기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에서 향이 좋은 생약을 엄선하여 제조한
한방방향제로 생활공간에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천연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성분의 방향제와는 달리 심신을 안정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거실, 장롱 등
*행사, 선물용 대량 구매시 상담해 주세요



고요한 향기 퍼져~
고요해 지는 마음

제조원 수풀림 주문전화 (062)385-9954 010-5607-3313 입금계좌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건강한 자연을 담은 웰빙문화의 시작
히노끼 편백차탁



출시기념 할인행사 ~~150,000원~~ 40% → 90,000원

편백차탁 Healing
- 일본산 히노끼로 **100% 국내 제작**입니다.
- 전통가구 소목장이 **수공예로 제작**하여 정교하고 튼튼합니다.
- 편백(히노끼) 고유의 향은 **스트레스 완화, 심신안정의 효과가 탁월**합니다.
- **피톤치드의 항균효과**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들의 다과, 음료 등의 차탁으로 사용하시면 **건강까지 생각할 수 있어 더 좋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기술이전업체
수풀림숯침대(주) www.supullimbed.co.kr

친절상담 · 주문전화 ▶ 080-474-0011

시는 춤이 되고 춤은 시가 된다



창립 24주년을 맞은 동국예술기획의 제77회 '한국의 명인명무전'이 5월 9일과 10일 양일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펼쳐진다. 사진은 2010년 6월 27일 공옥진 여사의 마지막 공연에서 박동국 대표(사진 왼쪽)와 공옥진 여사의 공연장면.

동국예술기획 '한국의 명인명무전'

시와 한국춤이 만나 새로운 무대를 펼친다. 창립 24주년을 맞은 동국예술기획의 제77회 '한국의 명인명무전'이 5월 9일과 10일 양일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펼쳐진다.

승무, 바라춤, 소고춤, 이매방류살풀이춤, 진도북춤 등 우리나라 전통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이번 공연의 특징은 시낭송

22편의 시낭송과 춤 어우러져

5월 9 · 10일 국립국악원서

이 결합돼 새로움을 더한다. 이에 '시와 한국춤이 만나 춤을 추다'라는 부제 아래 공연 이틀 동안 총 22편의 시가 관객들에게 전해진다.

동국예술기획 박동국 대표는 "2009년 20주년 기념공연 전에 관객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시낭송과 함께 춤꾼이 나와 춤을 췄는데 관객들의 호응이 매우 컸다. 그때 이를 공연으로 만들며 어떨까라는 제안을 받았다"며 공연의 발단이 되었던 4년 전의 일을 떠올렸다.

그러다가 2010년 6월 27일 공옥진 여사의 마지막 공연에서 박 대표가 무대로 올라가게 되고 지병으로 힘이 소진돼 버린 공 여사는 박 대표의 팔을 잡고 함께 신명나는 무대를 펼친다.

박 대표는 "이 광경을 본 시인 명기환 선생님이 자신도 시로 춤을 한번 춰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다. 나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대답을 했고 이번 무대에서 새로운 장을 펼치게 되었다. 명 선생님께서 이번 무대를 위해 21편 춤의 시를 만들어주셨다. 무희들이 춤을 추기 전에 시들을 여류 시낭송가들이 낭송하고 이후 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방식의 공연을 구성했다"고 설명한다.

한편, 동국예술기획의 '한국의 명인명무전'은 1990년 서울에서 첫 무대를 연 뒤 24년 만에 제77회 공연 기록을 세웠다.

동국예술기획은 5월 서울공연을 시작으로 10월 울산(문화예술회관)에 이어 11월 거제(문화예술회관) 등에서 공연을 진행한다. 이번 77회 서울 국립국악원 공연은 5월 9일~10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된다. (031)902-2942 정혜숙 기자

선·자연·일상… 이철수 판화의 모든 것

광주시립미술관 '아이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황영성)은 이철수 목판화 32년을 결산하는 '아이들 뒤따라 올 텐데'전을 5월 5일까지 상록전시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32년 동안 작업한 대표작품들이 전시돼, 이철수 목판화 인생을 조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초기작품인 1981년의 투쟁적 민중미술의 목판화부터 최근에 일상에서의 평화와 존재를 나누고자 하는 선(禪)적인 목판화까지 총128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밥이_하늘입니다'는 밥그릇 안에 삼라만상의 우주를 담은 듯하고 '좌탈_봐라꽃이다'는 길 떠나기를 결심하는 구도자의 모습을 표현한 듯하다. (062)613-7150 정혜숙 기자



이철수의 '좌탈_봐라꽃이다'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취두(鷲頭)→용미(龍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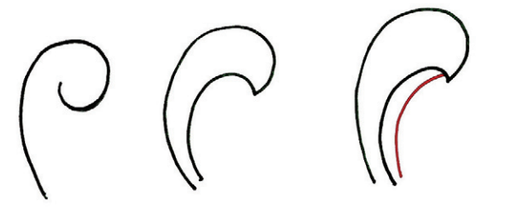
건축에 담긴 영기화생 사상 '용마루'로 극대화



그림①



그림②



그림③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취두(鷲頭)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전각이나 문루 따위의 용마루 양끝에 댄 장식'. 다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앞 서 다룬 치미(鴟尾)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전각이나 문루 등 전통 건물의 용마루 양쪽 끝머리에 얹는 기와'. 그런데 용미(龍尾)를 찾아보면 그런 건축과 관련된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왜 같은 조형을 두고 다른 두 가지 용어를 쓰고 있으면서 아무도 의문을 갖지 않는 것일까. 솔개꼬리와 독수리머리는 같은가? 그리고 용의 꼬리라고 증거를 대도 아무 감각이 없는가? 국어사전이라고 모두 믿을 수 없다.

솔개꼬리와 독수리 머리가 같다?

취두, 즉 독수리 머리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왜 그 부분을 독수리꼬리라면 몰라도 독수리 머리라고 보았을까 아무리 생각하여 보아도 알 수 없었다. 누구에게 물어도 모른다면서 웃을 뿐이었다. 어느 날 나는 월지(月池: 안압지)에서 출토된 용미를 보고 무릎을 쳤다.(그림①) 연세대 박물관에서 독수리 박제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부리가 용미의 꼬리, 즉 제1영기싹의 조형과 같다는 것을 문득 떠올렸다. 그 박물관을 다시 찾아 살펴보며 사진을 찍었다. 언젠가 취두라는 용어에 대하여 쓸 때 자료로 쓰리라 생각했다.(그림②)

제1영기싹이 용의 꼬리가 되는데, 물론 제2영기싹이나 제3영기싹을 꼬리로 삼을 수 있다. 그 모두가 만물생성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1영기싹의 조형은 면(面)으로, 그리고 입체로 성립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전개하여 나간다. 다음에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드리기로 한다.(그림③) 여러분은 처음 보는 것이므로 무엇인지 모를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무엇인지 모를 형태들을 알게 됨에 따라 제1영기싹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력이 큰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동양 삼국은 건축 양식이 기본적으로 같은데 건축에서 가장 맨 위 부분을 '용마루'라고 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조선시대에 이르면 용마루 중앙에 보주(寶珠)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용마루의 중요성을 확실히 알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림④

한국의 건축은 영기화생(靈氣化生: 영기문에서 만물이 화생한다는 필자의 이론)의 전개의 원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중국에서도 용마루를 용의 입에서 나오는 부분이라는 개념은 있었음을 건축양식에서 알아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중국의 건물에서는 양 끝에 용의 형상을 두고 용의 입에서 무량보주와 덩굴모양 영기문이 엇갈려 나와서 용마루를 이루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용마루가 건축에서 얼마나 상징이 큰 부분인가를 웅변하는 것이다.(그림④)

무량보주를 칠보문(七寶文)이라 불러왔으니 일본의 악영향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알 수 있다. 흔히 용의 입에서 보주가 하나만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미술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모두가 보주 '하나'가 나온다고 말한다. 하나가 아니라 무량한 보주가 쏟아져 나온다. 그러니 중국은 한국보다 더 용마루의 본질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중국의 예를 보아 독수리 머리를 가리키는 취두란 용어는 얼마나 허망한 용어인가.

중국에서 용마루는 '용의 등골'

그런데 중국에서는 용마루를 무엇이라 부르는지 알아보니 옥척(屋脊), 정척(正脊), 주척(主脊) 등 여러 가지 명칭이 있다. 내림마루는 수척(垂脊)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옥척은 통칭인 셈이다.

척(脊)이란 등골뼈인데 이에 따라 산마루를 산척(山脊), 즉 우리말로 등성마루라 부른다. 그러니 우리의 '용마루'란 용어가 얼마나 멋진 말인가. 용마루를 중국어로 바꾸면 용척(龍脊)이 되지만 절대로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용의 척추가 될 것이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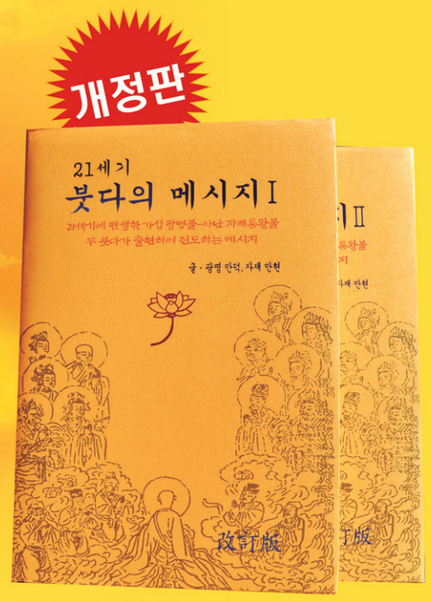
이 연재는 우리나라 문화를 바로잡는 첫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한국문화 바로잡기'에 동참하여 하나의 운동으로 삼기를 기원한다. 강우방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3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이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시고 불신으로
한국 땅에 오셨음을 증언한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춘천본사 T.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읽어야 할
영산 불교 현지사의 양서

영혼체 윤회론
[158쪽 10,000원]
2천년간의
무아와 윤회주체의
모순을 해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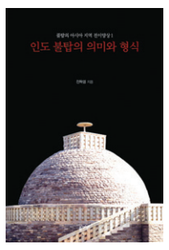
관음태교
[227쪽 10,000원]
영혼체 태교법인
관음태교의
이론과 실제

추천 도서

영산불교 새천수경
[131쪽 7,000원]
천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관음신앙을
바로 정립한 역작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도재
[33쪽 무료배포]
현지사 천도재 안내

불탑은 '조형물' 아닌 진리의 '상징'



인도 불탑의 의미와 형식
천득염 지음
심미안 펴냄
2만2천원


부처님은 성도후 녹야원에서 첫 설법을 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메크탑이 남아있다.

기원전 5세기경, 인도에서 불교를 일으킨 부처님은 80세에 쿠시나가라 사라쌍수 밑에서 입멸에 들었다. 다비를 치르고 수습된 8말 4되의 부처님6 사리는 제천과 용중, 그리고 인도의 여덟 나라에 나누어 전해졌다. 부처님의 입멸은 불교도들에겐 애통한 일이었다. 사리를 얻은 여덟 나라의 왕들은 각기 제 나라로 돌아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한 탑을 세웠으니 이것이 바로 불탑의 출발이다. 책은 인도 초기 불탑을 원리적 입장에서 고찰한 연구서다. 총 일곱 개의 장으로 구성된 책은 불탑의 의미와 기원, 부처의 삶과 가르침, 인도 시원불탑의 의미, 형식의 변화, 변모 양상, 주변국으로의 전래 등을 다루고 있다.

"여덟 나라의 왕들이 부처님의 유골을 봉안한 여덟 기의 탑을 세웠으니 이를 '팔분사리', '분사리', 혹은 '근본팔탑(根本八塔)'이라고 부른다. 이는 불교도들이 최초로 만든 의미 있는 조형물로서 불교미술사의 시작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이들 여덟 기의 불탑은 대부분 위치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책은 그동안의 연구가 양식사와 시대사 연구에 치우쳤다면, 이제 의미론, 비교론적 연구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인도 불탑의 의미와 형식을 아우르면서 초기 불탑이 어떻게 주변 국가들에 전래되었는지를 비교론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불탑의 아시아 지역 전이양상 1'이라는 부제를 붙인 것은 이 책이 인도 불탑의 형식과 의미, 그리고 전래 양상을 아우르는 총론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불탑의 의미는 무엇인지, 재료와 형태를 달리하여 왜 그러한 형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인도의 시원적인 불탑이 여러 나라와 지역을 달리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그들의 조형성은 어떠한지, 이러한 의문들을 원론적 입장에서 해명해보고자 했다. 다시 말해 불탑의 의미와 형상, 양식상의 조영원리, 국가 간의 변모와 차이를 통해 불교문화유산의 원리와 보편성, 그리고 특수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불탑은 부처님이 남긴 정신세계를 건조물로서 대신한 것이다. 인간으로서 부처를 떠나 법신(法身)으로 향하는, 이상적이며 절대적인 진리로 향하는 실체인 것이다. 따라서 중생들은 불탑을 숭배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공양과 공덕을 동시에 쌓고자 했다. 또한 탑을 세움으로써 정각을 이루고 해탈을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랐다. 중생들은 부처라는 위대한 성인이 설법한 진리를 깨닫고자 했고, 다른 세계로 가버린 그를 영원히 기리는 진리의 상징으로 그의 분묘인 탑을 성심껏 장엄하게 꾸몄으며, 부처의 실체로서 인식되는 탑을 만방에 세워 널리 진리를 편 것이다.

불탑은 불교미술을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다. 인도 시원불탑 연구는 19세기 서양인들이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인도의 문화, 예술을 연구하면서 시작되었고, 근세기 일본학자들도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다. 저자는 현대의 한국 불교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다양한 연구가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서양서적의 번역이나 일본학자에 의한 것이 주가 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한국에서의 인도문화는 불교미술과 건축적인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부분적이고 피상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라고 말한다.

한국의 불탑 연구는 근대기에 들어 국내외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불탑의 근본을 이루었던 인도불탑의 시원적 형식과 전이과정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고 현상적인 측면의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나마 근래 들어 불탑의 시원적 양식과 특징을 연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한국 불탑의 원리적 의미를 규명하는 데 귀한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책은 불탑의 의미와 실체 및 형태를 유기적으로 이하하며 종교적 상황과 인문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의도로 진행되었다. 즉 불탑을 단순한 조형물이 아닌 정신적 가치와 종교적 열망을 내재하고 있는 이데아로 이해하고 접근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불탑에 관한 지역 간의 비교를 한정된 지역과 전공의 경계를 벗어나 학제적인 틀로 수행하려 했다. 즉, 인도에서 비롯된 불탑의 출현과 그 변화, 인도 주변 불교국가들 간의 전이(轉移) 현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양식사 및 시대사적 입장에 치우쳐 있었던 불탑연구가 이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의미론적이며 비교론적인 고찰이 필요하고, 구조적인 부분과 부재 하나하나에 세부적인 고찰이 필요한 시점에서, 책의 출간이 연구자들은 물론 불교문화유산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요긴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는 수 년 동안 티베트, 미얀마, 스리랑카, 네팔, 라오스 인도 등 여러 나라의 불탑을 조사해 왔다. 총론적 성격을 지닌 이 책을 시작으로 스리랑카와 네팔, 티베트, 미얀마의 불탑은 물론 중국과 한국, 일본불탑에 대한 비교론적 연구를 지속하여 출간할 계획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화택에 갇힌 중생을 위해

한글 법화경

송월 스님 옮김 | 관음출판사 펴냄 | 2만원



부처님의 가르침에 순위와 경중이 있을 수 없겠지만, 〈법화경〉은 그 중 최고의 가르침(경전)로 불린다. 구마라집의 한역 〈묘법연화경〉을 한글로 풀이했다.

〈법화경〉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한역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강량접의 〈법화삼매경〉, 축법호의 〈살예분다리경〉, 축법호의 〈정법화경〉, 지도근의 〈방등법화경〉, 구마라집의 〈묘법연화경〉, 사나굴다와 달마급다의 〈첨품묘법연화경〉이다. 그 중 현존하는 세 가지 번역본을 모두 〈법화경〉이라고 부르지만 구마라집역본이 가장 많이 유통되었기 때문에 보통 〈법화경〉하면 〈묘법연화경〉을 일컫는다. 〈반야심경〉, 〈유마경〉, 〈화엄경〉 등 정토계 경전 등과 함께 초기 대승불교의 주요 경전으로 꼽힌다.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본경의 28품은 '1~14품', '15~28품'의 두 부분으로 분류된다. 전반부는 '방편품'을 중심으로 일승(一乘)의 진리가 밝혀져 있으며, 후반부는 '여래수량품'을 중심으로 영원한 부처님, 곧 현실세계에 태어나 성도하신 석가모니부처님이 사실은 먼 옛날에 이미 성불했고, 본래 영원한 부처님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방편품'에서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종래에 성문, 연각, 보살 등의 삼승이 있는 것처럼 교설한 것은 일승으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이고, 일승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설하고자 하셨던 궁극적 진리라고 설한다.

'여래수량품'에서 카필라국에 태어나 붓다가야에서 성도한 석가모니부처님은 거짓 모습이고, 그 본체는 영원한 과거에 이미 성도를 이루고 그 이후 무량한 수명을 지녀 이 세상에 항상 실재하며 여러 가지 모습의 부처님으로 몸을 나타내면서 중생을 교화하시는 것이 부처님의 본체임을 설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부처님이 유일한 본체의 부처님으로 귀착한다는 사상은 후세에 들어서는 일반적이었지만 초기 대승불교 시대에는 본경에서 비로소 명확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방편품'을 중심으로 한 전반이 제법(諸法)의 통일을 지향했다면, '여래수량품'을 중심으로 한 후반은 제불의 통일을 지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글 법화경〉에는 전반부에 '제목 삼창부터 큰 소리로 시작한다', '삼귀의', '개경개', '무량의경 예찬'의 독송편과 후반부에 '천수경', '예불문', '반야심경', '업장참회 기도문'의 추가 경전 부록을 실어 법회 참석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경을 옮긴 송월 스님은 "연꽃 법화경은 사람마다 본디 갖추고 있는 지혜이기에 얻어 문자로써 억지로 말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신 까닭이 무엇인가. 이는 번뇌가 많은 중생들이 세간의 이치가 실상이며 현상으로 드러난 모습이 곧 오묘한 법인 줄 알지 못하므로, 불타는 집에서 아무 것도 모르며 불에 지지고 볶이기를 앉아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고 출간의 취지를 말했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17 ~ 4/23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지궁현지사
2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월호	마음의숲
3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4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5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6	지혜로운 삶(우학스님 신심명 강설)	우학	좋은인연
7	행복 119	성담	셀프컬쳐리서치
8	그대 보지 못했는가(서암 큰스님 회고록)	서암	정토출판
9	십지경(오리지널화엄경)산스크리트대장경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10	행복에 이르는 열가지 습관	정명	비움과소통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보리심'을 여법하게 논하다

샨띠데바의 입보리행론

샨띠데바 지음 | 청전 스님 옮김 | 담앤북스 펴냄 | 1만2천2백원



2003년 겨울,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는 한국인을 위한 법회를 열어 주기로 했는데, 그는 법회의 교재로 〈입보리행론〉을 선택했다. 이때 25년 간 달라이 라마 곁에서 수행해 오면서 그의 법문을 들어왔고 많은 통역을 해온 저자가 우리말 번역을 하게 된다. 책은 2004년 발행되었던 국내 최초의 티베트본 〈입보리행론〉의 개정판이다. 달라이라마는 3년에 걸쳐 이 논서로 법문을 했다.

7세기 인도의 불교학자 샨띠데바가 저술한 〈입보리행론〉은 달라이 라마가 "보리심에 대해 설한 것 중 이보다 더 뛰어난 논서는 없다."고 말했을 만큼 수많은 불교 논서 가운데서 보리심에 대해 가장 자세하고 광범위하게 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리심의 귀한 보석이여 / 보리심을 아직 일깨우지 않은 이들은 일깨우고 / 보리심을 일으킨 이는 기울지 않도록 하며 / 보리심은 항상 위로 위로 증장할지이다." 티베트의 다람살라에서는 달라이 라마가 집전하는 법회의 시작과 끝에 다음과 같은 티베트 게송을 함께 합송한다. 〈입보리행론〉의 가치를 가장 높이 치는 곳은 역시 보리심을 수행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티베트이다.

한국불교는 수행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유독 자신을 낮추는 하심(下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일체중생을 위해 깨닫겠다는 '보리심'은 어쩌면 낯설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티베트를 비롯해 미얀마나 스리랑카 등 남방불교에서는 하심보다 보리심이 더 강조되는 수행이다. 티베트의 경우 11세기 〈입보리행론〉이 번역된 이래 티베트 대장경에 포함된 주석서만도 8종이 넘으며, 현재까지 모두 130여 종이 넘는 주석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티베트불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책으로 인해 티베트 대승불교의 이념및 수행과 관련된 광범위한 학문의 융성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고, 티베트불교의 고유 수행인 로종(Lojong), 즉 '마음 바꾸기'라 불리는 새로운 수련법 역시 이 책을 기화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이나 한국불교에서는 최근까지 〈입보리행론〉이 수행자와 재가신도들 사이에서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입보리행론〉이 국내에 소개된 지 10년 만에 조계종에서는 2013년부터 〈입보리행론〉을 승가대학원의 정식 교재로 채택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역으로 된 〈입보리행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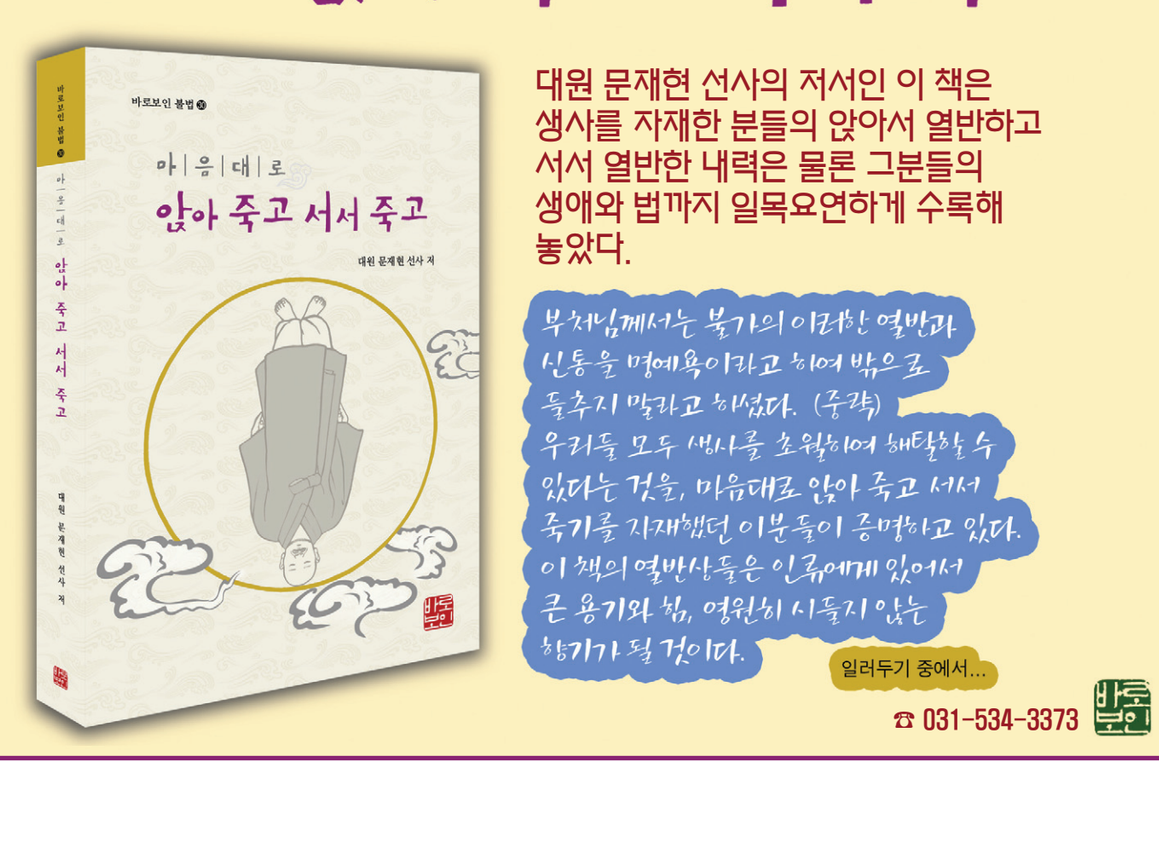
"1. 선서(善逝)의 법신을 지니신 보살과 / 예경 받으실 모든 분께 정례하오며 / 보살의 율의(律儀)에 들어감에 대하여 / 경에서와 같이 간략하게 말하겠습니다."

책은 모두 10장의 917개의 게송으로 되어 있다.

제1장 '보리심 공덕 찬탄품', 제2장 '죄업 참회품', 제3장 '보리심 전지품', 이 세 장은 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한 내용이고, 제4장 '보리심 불방일품', 제5장 '호계정지품', 제6장 '인욕품'은 보리심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며 항상 지니기 위한 내용이다. 그리고 제7장 '정진품', 제8장 '선정품', 제9장 '지혜품'은 보리심을 더욱 증장시키기 위한 장이다. 마지막은 '회향품'으로 마무리한다.

2013년 출간 10주년을 맞아 일부 번역 및 역주를 산스크리트에 맞춰 수정했으며,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역의 소지가 있는 곳은 문장을 삭제, 첨가했다.

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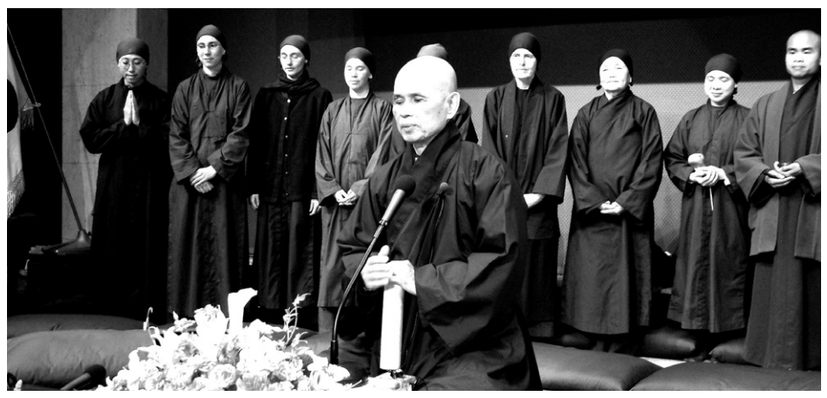


生의 연결 자각하면 죽음 두렵지 않아



오늘도 두려움없이

틱낫한 지음
진우기 옮김
김영사 펴냄
1만2천원



90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틱낫한 스님은 '알아차림의 호흡법'을 주제로 전세계를 돌며 순회법회를 연다.

깨어있는 삶에 대한 명징한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전달하는 틱낫한 스님이 신간을 펴냈다. 제목은 〈오늘도 두려움 없이〉이다. 정치적 탄압으로 조국 베트남을 떠나 프랑스로 망명할 수밖에 없던 개인적 상흔과, 칠십 년간 수행자로 살아오며 깨달은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이 더해져서 강물처럼 고요하게 우리를 이끄는 치유서 같은 책이다.

우리는 일상 속 감정서 한 발 떨어져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수많은 고통과 두려움, 불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현대인들에게 공황장애나 불안증, 대인기피증 등이 만연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한몫을 한다.

인생의 근원적 문제인 삶과 죽음에 대한 공포부터 일상 속 외로움의 문제까지 이 책은 자비로운 대처법과 해결책을 들려준다.

"위험이 외부서만 온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위험은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깊이 보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위험과 사고를 끌어당길 수도 있습니다."

우선, 틱낫한 스님은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에 대해서 말한다. 태어났기에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죽음 뒤에 우리의 존재는 완전히 소멸하는 것일까? 다양한 종교는 그에 대해서 각자의 답을 갖고 있다. 틱낫한 스님은 죽음은 이번 생에서 다른 생으로 넘어가는 문일 뿐 완전한 소멸은 없다고 한다. 존재가 영원히 사라진다는 두려움은 현재 삶에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생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형태만 다를 뿐 우리는 계속 이어져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받아들인다면 죽음조차 두렵지가 않고, 삶을 열심히 살 수 있는 동력이 된다. 심지어 소중한 사람이 죽어 상실감으로 고통스럽더라도 진정한 죽음과 태어남조차 없다는 것을 깊이 들여다본다면 고통스럽다는 감정조차 조금씩 사라질 것이다.

죽음은 영원한 소멸 아닌 순환
'알아차림' 놓지 말아야 두려움 없어져
걷기 명상만해도 에너지 충전돼

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두려움은 여러 가지 형태로 모습을 달리해서 일상을 지배한다. 집에 들어오면 보지도 않으면서 텔레비전을 켜둔다든지, 주말에는 만날 사람도 없으면서 카페에서 혼자 시간을 보낸다든지, 새 옷과 신발에 집착하는 것 등은 모두 혼자라는 두려움을 외면하기 위한 양상이다.

근본은 인식하지도, 해결하지도 못한 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을 외면하려고만 한다. 그렇다면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할까. 저자는 마음의 위대한 힘을 길러 두려움을 이겨내고 삶을 매순간 느끼고 깨달으라고 말한다. 실제로 저자는 이 책에서 "이런 순간이 오면 우선 알아차림의 호흡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화든 좌절감이든 두려움이든 그 존재를 부드럽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안하거나 근심하고 있다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수행합니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불안한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안다. 숨을 내쉬며, 나는 나의 불안한 마음에 웃음을 보낸다.'"라고 조언한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의식을 깊이 보는 것. 죽음이 영원한 소멸이 아니라 다른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란 가르침,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는 사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순환한다는 이해는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준다.

이 책은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법과 게송, 진언 등도 소개한다. 그런데 틱낫한 스님이 소개하는 수행법은 어렵지 않다. 과연 이것이 종교적 진언인가 싶을 만큼 일상적이다. 일반인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편하게 읽고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꼭 앉아서 좌선 할 필요도 없다. 호흡에만 집중을 해도, 좋은 감정, 두려움, 기쁜 감정 등을 단계적으로 알아차리기만 해도, 또 수행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걷기명상을 해도 평화로움의 집단 에너지가 생성되고 이 에너지가 우리의 감정을 어루만질 수 있다.

스님은 말한다. "두 사람이 함께 앉아 호흡하며 알아차림의 에너지를 합치면 고통을 인지하고 감싸 안은 다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공동체라는 강물의 일부이며, 홀로 고립된 한 방울의 물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저 바다에 도달할 것입니다."라고. 또한 저자는 가장 소중한 깨달음은 일상의 하루하루를 따뜻한 마음으로 살며 우리가 함께 두려움과 불안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하루에 꼭 한번씩은 자신의 몸가짐을 돌아보자"

1日 몸가짐

마스노 슌묘 지음 | 최수정 옮김
21세기북스 펴냄 | 1만3천원



주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몸가짐이 있는가 하면,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있다. 그것은 작은 행동이나 말투, 그리고 마음의 표현에서 생겨난다.

이 책은 사람 마음서 배어 나오는 아름다운 몸가짐에 대해 알아보고,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흐트러진 옷차림, 매일 아침 늦게 일어나는 습관, 언제 청소했는지도 모를 만큼 지저분한 방 안, 무심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우리 주변에는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흐트러진 몸가짐과 풍경이 넘쳐난다. 사람 만날 때도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상대방에게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매일 할 수 있는 일부터 조금씩 실천하려고 신경 써보자.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올바르고 아름다운 몸짓이 자연스럽게 체득된다. 이 책을 늘 가까이 두고 하루에 하나씩만 몸가짐의 기본을 갖추고, 작은 습관이 된다면 삶의 품격이 높아지고 인생 목표도 훨씬 더 빨리 이룰 수 있다.

하루에 한 번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자세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함으로써 자신의 인생 목표를 이루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그것은 곧 자기변화와 성공의 첫걸음이다.

이 책의 저자는 선 수행서 직접 체득한 말과 행동, 호흡 정돈법 등을 일반인들도 쉽게 따라하면서 생활습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지혜를 알려준다.

이 책은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 가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몸과 입과 마음이다. 그중 첫 번째는 '몸을 정돈해야 한다'는 것. 자세와 행동 하나하나를 바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 자기 몸을 아낌없이 쓰는 것, 즉 몸을 정돈하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성공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면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상대보다는 자기 입장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다. 어떤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날 때 손해 보지 않겠다는 식으로 행동하면 결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 하지만 스스로 몸을 낮추고 몸가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닌 스스로를 단정하게 가다듬고 작은 유혹을 참아내는 행동이야말로 성공에 이르는 길과도 통한다.

이 책에서 중요시하는 두 번째 덕목은 '입을 정돈하라'는 것. 똑같은 말 한마디에서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다. 그 사람의 나이, 입장, 인격, 역량 등에 말에 실려 고스란히 전해진다. 그뿐인가. 말 한마디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 한번 뱉은 말은 절대 주워 담을 수 없는데도 사람들은 매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하고 싶은 말을 생각나는 대로 내뱉지 말고, 그 말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부터 생각해보라.

1日 몸가짐…자기 변화 지름길
선수행서 체득한 말과행동 소개

상대를 행복하게 하거나 돌보거나 위로하는 말을 건네는 사람이야말로 신뢰를 쌓아가는, 작은 실천에서 큰 성공 자산을 움켜쥐는 최상의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정돈한다'는 것은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고 하나의 사상에 얽매이는 일 없이 언제나 유연한 마음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이는 곧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 매일 잠자기 좌선으로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지나가버린 일을 후회하지도 말고 앞날을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자연 속을 산책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거나 시간에 쫓기지 않는 습관 등도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가꾸는 작은 습관이자 지혜라고 이 책은 말한다.

이 책은 당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맑은 거울과도 같다. 업무 스트레스에, 피곤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자신의 몸가짐이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지 스스로 진단하면서 생활 속에서 몸가짐을 하나씩만 바로잡아간다면 당신의 인생은 분명 지금보다 더 좋게 변화할 것이다. **김주일 기자**

매일 '자각' 하면 평생 삶 변화시켜

하루습관

하마구치 나오타 지음 | 고경문 옮김
거름 펴냄 | 1만2천원



지극히 평범했고 상습 지각생이었던 저자. 그의 '인생 패자부활전'에서 승리하여 비범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여정이 시작된다. 어느 날 자신의 꿈과 목표를 발견한 이 용감한 저자는 '하루'를 자각한다.

그는 인생에 남는 하루는 없으며 하루에 새벽은 두 번 오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우친다. 그는 이 깨침과 각성을 통해 하루를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간다. 스스로에게 묻고 묻고 물어 가고, 일이 쉬워지고 재미있어진다. 그는 오랫동안 일기를 쓰고, 자신을 다잡는 '반성·꿈·목표 노트'도 늘 곁에 두고 있다. 아침 5시면 일어나고, 건강과 끈기를 기르기 위해 운동도 열심히 한다. 식습관을 확 바꾸고, 출근하는 시간 뿐 아니라 움직이는 시간을 허투로 보내지 않고 정보수집이나 독서를 한다.

그는 일이 쉬워지고 삶이 재미있어지려면, 목표가 있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일하는 요령과 기술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한다. 자신의 삶과 일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이 책에 다 담아냈다. 저자가 인생을 걸고 터득한 요령과 기술, 태도와 습관, 지혜와 깨침 등을 전부 담았다.

저자는 "일 잘하는 사람은 스스로 일을 만들고 알아서 일을 합니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은 구체적인 목표 설정입니다. 그것을 설정하면 자신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저자는 일이 쉬워지고 삶이 재미있으려면, 목표가 있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주일 기자

생활과 밀착된 수행 체험 들려줘

엄마의 마음공부

레이철 뉴먼 지음 | 허형은 옮김
책세상 펴냄 | 1만4천원



불교 교리에 무지하거나 명상을 해본 적이 없는 이들도 일상생활서 쉽게 따라 해볼 수 있는 마음챙김 명상법들을 소개한다. 레이철 뉴먼이 이 책에서 소개하는 명상법들은 거창하지 않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마음의 평화와 고요를 경험하고 싶어 템플스테이를 하거나 명상센터를 찾는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이런 일련의 노력들을 유지해나가기는 쉽지 않다.

저자가 제안하는 수행법들은 생활과 밀착되어 있다. 바쁜 가운데 생에 찾아온 중요한 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두는 법, 배우자나 자녀들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법, 일상에서 짧은 짬을 내어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가지는 법,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이던 통념들을 되짚어보는 법 등이 그녀의 경험과 버무려져 재미있게 소개되어 있다.

책에는 미봉책에 그치고 말 달콤한 위로를 건네지도, 완벽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한 매뉴얼을 제시해주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 책 안에는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행복하기를 갈구하고,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평범한 이들이 멈추어 곱씹어볼 만한 생각의 실마리들이 촘촘히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우리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여성으로서 저자가 경험한 상처들, 예컨대 행복하지 않았던 유년기의 기억과 예기치 못한 유산의 경험, 상실의 두려움으로 진지한 관계를 회피하던 젊은 시절, 미친 듯이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도망가고 싶은 이중적인 마음 등은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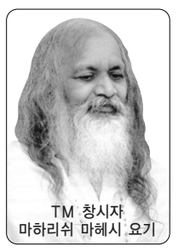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안 정 사
• 법 명 : 은규 (석은규)
• 승적번호 : 022-0042
• 주 소 :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67-10

위 사찰과 위인는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2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TM 창시자
마하리쉬 마헤시 요기

가장 쉽고 빠른 힐링과 깨달음!
20분 새에 잠보다 2~3배 깊은 휴식으로 피로 스트레스 신속해소, 원기회복하는 자가치유 비법
고혈압·심장병·우울증·불면·대사증후군 해소
KBS(마음, 생로병사의 비밀), CNN, TIME지 등에 소개
www.tm-korea.org

초월명상(TM) 강연회

"초월명상으로 암 사망률 50%, 심장병 사망률 30% 감소 입증되다"
2005년 5월 2일 SBS 8시뉴스, 중앙일보 의학뉴스
"초월명상은 당뇨, 고혈압 비만 등 대사증후군을 동시에 개선한다"
미국 심장협회지(JAMA)-2006.6.12

하버드 대학, 일본 노동성 등 세계 200여 연구소가 입증한 효과
불안, 노이로제, 강박증 해소 / 지능, 이해력, 집중력 증가, 대인관계 개선 / 고3병 퇴치 / 두뇌개발, 창의력, 학습력 증진 흡연, 음주, 분노, 습관개선 / 노사화합, 창조적 경영 내면의 평화, 삼매경 체험 / 자아각성(깨달음)

'저는 하루 두번 20분씩 TM이라는 보약을 복용합니다. 우리 회사원 300명도 TM을 배웠는데 그 결과는 너무 놀랍습니다. 숙면을 취하고 두통이 사라지고, 대인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우리 회사에 창의성과 생산성이 넘쳐납니다. 초월명상으로 여러분은 최고인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오프라 윈프리, 미국 최고 여성부호, 방송인

'참선을 하다가 TM을 배웠습니다. 불면증이나 혈압 치료는 문제가 아닐 정도입니다. 온 종일 잔잔한 즐거움에 휩싸이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명상에 들어가면 나오기 싫을 정도여서 부처님 이곳에서 입정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 김상호 교수, 대통령상 4회 수상한 교육자

때 : 매주 월요일 14시 30분. 목요일 19시 30분
곳 : 한국초월명상원 (서울 강동구 천호1동 4-2 세일빌딩 601호)
(명일역 1번출구, 사거리에서 우회전 250m, 강동삼성한의원 건물 6층)
참가비 : 첫 강의 참가비 2만원 (관련서적 증정)
문 의 서울 598-3152 / 010-7443-1296
(기업 및 지방 출장 강연 환영)

▶ 미국 6천여 의사 실시 및 최고 건강법으로 권유!
▶ 일본 150여 기업 등 세계 유수 기업들 도입!
▶ 세계 1천여 학교에서 시행, 초우수 학력, 학교폭력 근절!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확인 천도비법전수교육과정

그 자리에서 빙의환자와 가족이 확인하는 영적질환의 실체
빛파동법, 영언수련법, 영혼과의 수인법, 오장육부진동법 영가가 몸에 어디에 숨어있는지, 확인천도 방법의 핵심지도

1. 환자 몸에 영가는 있는데 확인해 줄수 없는 스님, 법사, 기공사
2. 영가의 상태파악, 조상 ,객영혼 ,지박령 저급, 중급, 고급
3. 몸이 아픈 정확한 이해 일반병, 마음의병, 업병, 다중빙의
4. 다양한 삶의 고난과 질병 뒤에 숨어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영가
5. 영가들이 천도되면서 보는 다양한 빛의 세계를 본다.
6. 보다 높은 차원의 기공능력과 영안이 열린다.
7. 자신의 영혼과대화로 삶의 목적과 깨달음에 대한 이해
8. 1-7차크라의 능력을 일깨워 우주와 교감하는 방법지도
9. 영적질환의 특징은 냉증이라는 사실입니다.

10회 과정의 교육과 6개월 2회식 보수교육을 통한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어드립니다.- 강의는 수강자와 상담 결정. 출장강의.
암, 우울증, 조울증, 강박 증상, 환청, 환시, 불면증, 현대의학으로 안 되는 질환은 몸속에 깊이 자리 잡은 마음의 응어리 한과 집착의 냉기
스님들의 사찰에 신도님들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효소찜질요법 기술지도 암. 여성 질환. 냉증. 관절 어혈 질환을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음. 방송에도 여러차례 소개됨.

인체전기 043)296-5258 / 010-9242-5259
파동의학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642-21 바우빌딩 5층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 소 식
당뇨·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생명공학 ※대리점 모집 중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신주'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신라시대 불교 신앙의례의 활성화 상징

1. 〈삼국유사〉 중 가장 짧은 〈신주〉편

〈신주〉는 전 5권 9편 138조목으로 된 〈삼국유사〉 중 가장 짧은 분량(3조목)을 담은 편명이다. 제 1권이 〈왕력〉과 〈기이〉(1편)이고, 제2권은 앞 권을 잇는 〈기이〉(2편)이다. 제3권은 〈흥법〉과 〈탑상〉편이고, 제4권은 〈의해〉편이다. 제5권은 〈신주〉와 〈감통〉 및 〈피은〉과 〈효선〉편이다. 전체 5권 분량 중 〈왕력〉, 〈기이〉, 〈흥법〉, 〈탑상〉, 〈의해〉가 실린 1~4권과 달리 제5권에는 가장 많은 편명이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전체 138조목 분량 면에서 보면 제5권은 〈신주〉(3조목), 〈감통〉(10조목), 〈피은〉(10조목), 〈효선〉(5조목)편을 합쳐도 28조목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적 관점과 불교적 관점을 통합한 〈삼국유사〉의 체제에서 볼 때 일연은 〈삼국사기〉의 기전체적 체제(本紀·表·雜志)에 견주어 〈왕력〉·〈기이〉·〈탑상〉편을 만들고, 〈열전〉편의 내용을 여러 고승전의 과목에 증광하여 〈흥법〉-〈유통〉, 〈신주〉-〈신이〉, 〈피은〉-〈망신〉, 〈효선〉-〈흥복〉, 〈의해〉-〈의해〉, 〈감통〉-〈감통〉의 편목을 만든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5권에서 주목되는 것은 전 5권 중 유독 제 5권에 적힌 '국존 조계종 가지산하 인각사 주지 원경충조 대선사 일연찬' (國尊迦智山下麟角寺住持圓鏡冲照大禪師一然撰)이라고 찬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 대목이다.

이 저술의 저자가 그의 제자인 혼구 무극(混丘無極名)이라고 알려져 온 것은 한동안 찬자명이 쓰인 인쇄본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이 지나 찬자명이 적힌 제5권의 인쇄본이 발견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이 〈삼국유사〉의 찬자를 일연으로 확정할 수 있었다.

오랫동안 저자가 알려지지 않음으로써 이 저술의 성격을 규정하기 힘들었고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제5권의 표기를 통한 저자의 확정은 우리 고대사를 혼자 담당하고 있는 이 저술의 가치와 무게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신주〉란 편명은 말 그대로 '신비한 주문' 즉 '신비로운 진언'이란 말이다. 밀교의 세 가지 (身口意密)가운데 주문 혹은 진언을 가리키는 구밀(口密)이라고 할 수 있다. 붓다의 성언량(聖言量)을 문자로 드러내는 가르침인 현교(顯教)와 달리 붓다의 가르침을 비밀스런 의궤나 다라니로 전달하는 밀교(密教)는 인도의 힌두교와 대승불교의 습합 과정 속에서 태어났다.

초기밀교는 현세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제사와 점술 및 주술 등의 여러 가지가 의례가 혼효한 잡밀(雜密)계통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중기 밀교는 불교의 합리적인 업설에 기초한 순수한 밀교(純密)계통으로 볼 수 있으며, 후기밀교는 탄트라 계통으로 흐른 좌도밀교라고 할 수 있다. 밀교는 교학적으로는 반야중관학과 유가행유식학의 사상을 계승하면서 독자적인 해석을 통하여 철학적이고 관념적으로 흐르는 현교를 다시 대중화시켰다. 〈대일경〉과 〈금강정경〉이 성립된 이후의 순밀(純密)에서는 즉신성불(即身成佛)을 목표로 한 출세간의 실지(悉地)에서부터 연명(延命)·식재(息災)·치병(治病) 등 세간실지(世間悉地)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사상과 작법(作法)이 조직적으로 교설돼 있다. 때문에 밀교는 어떠한 지역과 사상 및 역사와 문화와도 어우러질 수 있는 토대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교의 전래(527)에 이어 밀교가 신라에 수용된 것은 진평왕 27(605)에 북천축 오장국의 비마라진제(毘摩羅眞諦), 농가타(農伽陀)와 마투라국의 불타승가(佛陀僧伽) 등이 와서 황룡사에 머물면서 〈전단향화성광묘녀경〉을 번역해 간행한 것을 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이들이 전해온 것은 인도의 초기밀교(잡밀) 사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신주편의 대표적 밀교승 일화

〈신주〉편에는 혜통과 밀본과 명랑이라는 신라의 대표적인 밀교승이 등장한다. 그 일화는 다음과 같다.

밀본(密本)은 선덕왕대에 활동한 금곡사(金谷寺)의 밀교승이다. 선덕왕 덕만(德曼)이 오랫동안 병에 걸려 낫지를 않았다. 흥륜사 법척(法?)이 임금의 부름을 받아 병의 치료를 맡았으나 효험이 없었다. 이에 선덕왕은 밀본의 덕행이 온 나라에 소문나 있었으므로 법척을 대신해 밀본을 궁중으로 맞아들였다. 밀본은 왕의 침실 밖에서 〈약사경〉을 읽었다. 경을 다 읽자마자 가지고 있던 육환장(六環杖)이 왕의 침실 안으로 날아 들어가 늙은 여우 한 마리와 법척을 찔러 뜰 아래로 던져 거꾸러뜨리니 왕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이때에 밀본의 머리 위로 다섯 색깔의 신비로운 빛이 뻗치니 보는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당시 승상이었던 김양도(金良圖)는 어렸을 때 갑자기 입이 붙고 몸이 굳어져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였다. 김양도가 보니 큰 귀신 하나가 작은 귀신을 거느리고 와서 집안의 상 위에 있는 음식들을 맛보고 먹는 것이 아닌가. 병을 고치기 위해 무당이 와서 제를 지내면 그 귀신들이 떼를 지어 모여들어 무당에게 욕 만했다. 김양도는 귀신들에게 물러가라고 명하고 싶었으나 입이 굳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의 부친이 법류사(法流寺)의 승려를 청해 경을 읽게 하자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시켜 쇠몽둥이로 승려의 머리를 쳐 땅에 넘어뜨리니 승려는 피를 토하고 죽어버렸다. 김양도의 부친이 안되겠다 싶어, 며칠 뒤에 사람을 보내 밀본을 초청했다.

보낸 사람이 돌아와 "밀본법사가 우리 청을 받아들여 곧 올 것입니다"고 하자 귀신 무리들은 모두 얼굴색이 변했다.

작은 귀신이 말했다. "법사가 오면 이로울 것이 없으니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큰 귀신은 거만을 부리며 태연하게 말했다. "무슨 해로운 일이 있겠는가?"

조금 뒤에 사방에서 모두 쇠로 된 갑옷과 긴 창으로 무장한 대력신(大力神)이 와서 귀신의 무리들을 잡아 묶어 가지고 갔다. 그 다음에는 수많은 천신들이 둘러서서 기다렸다. 그 후에 밀본 스님이 도착했다. 밀본이 경을 펼 사이도 없이 김양도의 병은 나아 말을 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김양도는 불교를 독실하게 믿게 돼 한평생 게으르지 않았다.

일찍이 밀본은 금각사에 머물고 있었다. 김유신(金庾信)은 연배가 높은 거사 한 사람과 교분이 두터웠는데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였다. 이때 유신공의 친척되는 수천(秀天)이 나쁜 병에 걸리자 유신공이 그 거사를 보내 진찰해 보도록 하였다. 수천의 친구인 승려 인혜(因惠)가 그 거사를 보더니 업신여기며 말했다.

"그대의 형상과 거동을 보니 간사하고 아첨하는 사람인데 어찌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겠는가?" 거사가 말하였다. "나는 김유신 공의 명을 받고 부득이 왔을 뿐이외다."

인혜가 말했다. "그대는 나의 신통력을 보라."

즉시 향로를 받들어 향을 피우고 주문을 외우자 조금 뒤 오색 구름이 그의 머리 위를 빙빙 돌고 천화가 흩어져 떨어졌다.

거사가 말하였다. "스님의 신통력은 참으로 불가사의 합니다. 제자도 또한 변변찮은 재주가 있으니 시험해 보고자 합니다. 스님께서는 잠깐만 제 앞에 계십시오."

인혜는 그의 말에 따랐다. 거사가 손가락을 한 번 튀기는 소리를 내자 인혜는 땅에 박혀 말뚝을 박은 것처럼 우뚝 섰다. 옆에 사람이 밀거나 당겨도 꼼짝하지 않았다. 거사가 떠나가니 인혜는 거꾸로 박힌 채로 밤을 새웠다. 이튿날 수천이 사람을 시켜 유신공에게 알리자 유신공이 거사를 보내 그를 풀어 구해 주었다. 인혜는 다시는 재주 부리는 짓을 하지 않았다.

밀본과 거사가 보인 신통력은 〈관정경〉에 의한 약사경 계통의 주술신앙이라 할 수 있다.

명랑은 소판 무림의 셋째아들이었다. 명랑이 632년에서 635년 사이 당나라 유학을 가 밀교를 공부한 뒤 돌아와 자기 집을 희사해 금광사(金光寺)를 세웠다.

무진(668)년에 당나라 장수 이적이 대군을 거느리고 신라군과 합세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그 뒤 남은 군사가 백제 고토에 웅진도독부를 만들고 체류하며 신라를 습격해 멸망시키려 했다. 이 사실을 안 신라 사람들은 군사를 일으켜 이들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웅진도독부를 쳐 없앴다.

당 고종은 이를 듣고 크게 화가 나 설방(薛邦)에게 명해 중국 본토에서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치려 하였다.

문무왕은 이것을 듣고 두려워하여 명랑을 청해 비법을 써서 이를 물리치게 했다. 명랑은 설방의 50만 원정군이 정주해상(貞州海上)에 침입했을 때 경주 낭산의 남쪽 신유림(神遊林)에다 비단으로 임시절(사천왕사)을 짓고 풀로 오방신상(五方神像)을 만들어 유가(瑜伽) 수행이 뛰어난 12명의 승려를 뽑아 신인비법(神印秘法)을 행하였다.

그러자 양국 군대의 교전이 있기도 전에 바람과 파도가 크게 일어 당나라의 군함이 모두 침몰하였다. 그 이듬해에도 당나라 장군 조헌(趙憲)이 이끄는 5만의 군사가 침입하자 명랑이 역시 신인비법을 개설해 물리쳤다.

이로 인해 명랑은 신라 신인종(神印宗)의 시조가 됐다고 하였다. 명랑은 김유신 등을 위해 창건하였다는 호원사(虎願寺)의 창건 설화와도 긴밀히 연관된다. 이와 함께 고려 창업 때 명랑의 후예인 광학(廣學)과 대연(大緣)이 태조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다.

혜통은 명랑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승려였다. 당으로 건너가 선무외(善無畏, 637~735) 삼장과는 다른 무외(無畏)삼장 아래에서 3년간 물러나지 않고 섬기며 수행하던 끝에 인결(印訣)을 받았다. 이때 고종(649~683)의 공주가 병을 앓자 고종이 무외삼장에게 치료를 청했다. 하지만 삼장은 자기 대신 혜통을 천거했다. 혜통은 스승을 대신해 공주의 병을 고쳤다. 이때 공주에게서 떨어져 나오며 원한을 품은 병귀(病鬼)가 교룡(蛟龍)이 돼 신라로 와 많은 생명을 해쳤다. 혜통은 신라로 돌아와 그 교룡을 찾아 불살계(不殺戒)를 주어 교화했다. 그는 또 신문왕의 등창과 효소왕 공주의 병을 주송(呪誦)으로 낫게 했다. 이 일로 인해 혜통은 효소왕대에 국사가 됐다.

밀본, 거사의 약사경 계통의 주술신앙과 달리 혜통은 〈다라니집경〉의 모방주술(模倣呪術)을 펼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혜통의 주술은 과거세의 원한을 푸는 것으로 이는 무속의 해원주술(解寃呪術)과 불교의 인과응보가 결합된 것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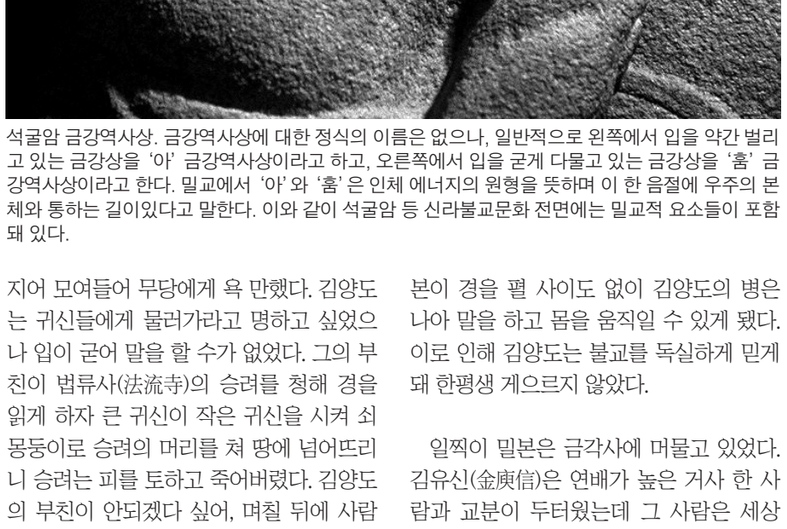
3. 밀교의 전래와 영향력

초기 잡밀에서 중기 순밀로 바뀐 뒤 후기 탄트라 밀교로 전개된 밀교사상은 동아시아 불교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밀교는 힌두교와 대승불교의 길항과 습합에 의해 형성된 이래 동아시아로 전래된 이후에는 점차 현교인 화엄종과 대응하면서 교리적 발전을 도모했다.

현교의 화엄종이 석가모니불(비로자나불)을 주불로 모시는 것에 대응해 밀교는 대일여래(대비로자나불) 즉 법신 중심으로 즉신성불론을 주장했다.

몸을 법신인 우주와 일체시하는 밀교는 철학적이고 관념적으로 인식되어온 현교에 종교성을 부여하여 신앙의례의 진전과 의궤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일연은 밀교승인 밀본과 혜통과 명랑의 순서로 신주편을 엮었다. 이러한 순서는 그가 느낀 밀교승의 존재감 순서가 아닐까 생각된다. 일연은 특히 밀본과 명랑을 김유신으로 상징되는 전통신앙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기술한 점은 또 다시 주목되는 지점이다.



석굴암 금강역사상. 금강역사상에 대한 정식의 이름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왼쪽에서 입을 약간 벌리고 있는 금강상을 '아' 금강역사상이라고 하고, 오른쪽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금강상을 '훔' 금강역사상이라고 한다. 밀교에서 '아'와 '훔'은 인체 에너지의 원형을 뜻하며 이 한 음절에 우주의 본체와 통하는 길이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석굴암 등 신라불교문화 전면에는 밀교적 요소들이 포함돼 있다.

진평왕때 신라에 밀교 전래

혜통·밀본·명랑 대표 밀교승

철학 종교에 신앙면모 불어넣어

김유신 상징 전통신앙과도 관계

참고문헌

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하)〉(2005; 2007).
고익진, 〈삼국유사〉 찬술고, 〈한국사연구〉38, 1982.
서윤길, 〈한국밀교사상사 연구〉(불광출판부, 1994).
정병삼, 〈삼국유사 신주편과 감통편의 이해〉,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제32집,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11.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사륙배판/컬러

온가족이 함께 읽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불교만화

만화고승열전 1-5

한국 불교의 중흥조, 경허스님
정수일 글, 그림/200쪽/12,000원
조선왕조 500년 숭유억불의 암흑 속에서 선의 등불을 밝혀 선풍을 떨쳐 일으킨 한국 선의 중흥조, 경허선사의 삶과 생애를 만화로 재구성하였다.

춤추는 스님, 원효대사
정수일 글, 그림/188쪽/9,800원
해동의 성자로 불리울 정도로 뛰어난 사상가이자 세계적 저술가, 한국불교사상 가장 위대한 승려로 꼽히는 원효대사의 삶과 사상을 경쾌하게 그려내고 있다.

만화로 보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
정수일 글, 그림/208쪽/9,000원
부처님은 전생에 강인한 용기와 지혜, 인내와 끈기, 자비와 희생정신 등을 보여주시는데,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교훈적인 내용을 간추려 재미있게 각색하였다.

독립운동가이자 시인, 만해 한용운
정수일 글, 그림/200쪽/12,000원
투철한 독립운동가이자 위대한 시인, 불교의 근대화와 대중화를 주창한 불교사상가, 만해 한용운의 치열한 삶과 숭고한 정신을 만화적으로 재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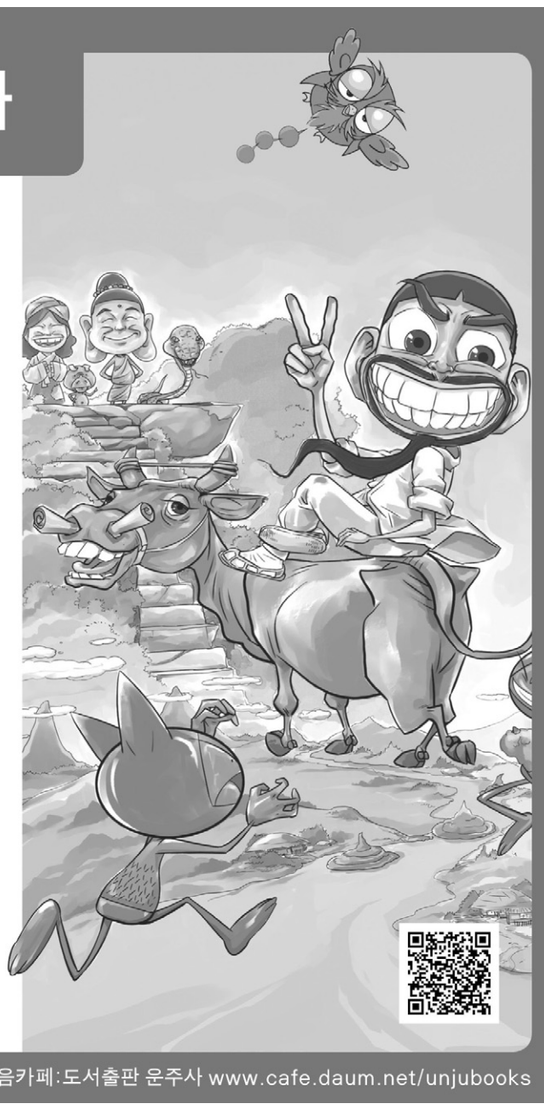
왕눈이 스님
정수일 글, 그림/단도/246쪽/7,800원
서산대사의 법통을 이어 한국불교의 흐름을 계승시킨 편양 언기스님의 치열한 구도정신과 보살행을 유쾌하게 그려내고 있다.

한국 사찰의 설화와 전설 1, 2
이규성 글, 그림/각 246·200쪽/각 10,000원
전국의 사찰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와 전설을 만화로 재구성하였다. 불보살님의 가피, 스님들의 치열한 구도행, 신비하고 기이한 이적 등이 흥미롭고 재미있게 그려진다.

나라를 구한 스님, 사명대사
정수일 글, 그림/183쪽/10,000원
임진왜란의 참화로부터 국가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난 사명대사의 승려로서의 삶과 승병장으로서의 삶을 재미있고 유쾌하면서도 진중하게 그려냈다.

부처님이 들려주는 옛날이야기
정수일 글, 그림/168쪽/9,800원
부처님께서는 재미있는 우화형식의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이 책은 어린이들이 보고 가르침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눈높이를 고려하여 재미있게 각색하였다.

부처님 지혜를 배우는 불교우화 41가지
정수일 글, 그림/206쪽/9,000원
백 가지 비유를 들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전하고 있는 『백유경』을 어린이와 어른 모두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재미있게 각색하였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혜는 수행에서 생기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지혜가 줄어든다.
지혜를 얻거나 잃는 두 길을 잘 알고
지혜를 키우기 위해 힘써 노력하라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1-829-7582

찬찬히 잘 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 (마인드원)
032)434-5990
010-8730-569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1-544-9777
051)721-6444

불교 범음범패 학인모집

실 전 교 육
– 사물(태징,목탁,송주북, 정근북,법고)
– 천수바라,작법(나비무), 49재,천도재,점안등
경남 양산시 주남동 금륜사 대진 합장
010-7579-8200

고통 받는 이들에게

(金) 작은 희망 드리고져 (金)
삶에 장애가 많으신 분
병고로 고통 받으시는 분
(전통 선가 비법 치유)
희망전화 043-652-3020
무료전화 070-4403-3021
白雲山下 藥泉寺 住持 : 法山 合掌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인로왕보살은 스님들입니다

소승은 세납 65비구입니다
불사와 기도정진 함께 하실
세납 60세 이상 조계종스님을
모십니다
(충북 제천 위치와 경관이빼어난 곳에 약 8천평의 땅과 서울에 약 100평의 포교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010-2127-4755

춤으로 인도 하십시오

승무 · 관음춤 · 지전춤
살풀이 · 오행춤 · 반야용선춤
길배춤 외 기타 의식춤
스님 직강
010-8510-0108 보성 합장

지리산 청학동 (자비수양원)

황토방과 건강치료설비를 갖춘 수양원에서 식이요법 및 유기농 식단 등으로 병을 치유하시고 건강을 되찾고 싶으신 분들께선 많은 연락바랍니다
* 또한 암자에서 참선수행 하실분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든찾아주십시요
011-759-0183
010-8484-6124

양 도 공 고

(등록된 불교단체 불교종단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단체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황토 누워서 허리뜸, 훈증침대

비만,허리뜸,관절통증,사고후유증, 아토피,비염,여성질환,혈액순환, 마음은 청춘 몸은 노령,건강,행복, 장수,인간의 수명은 화 사 냉 청소. 저는 약사여래 가피력 도승원력 암자 포교원 운영할 비구승 인연바람
011-573-4438

지장대사 원력으로

조상천도 빙의 퇴마
천병,신병,우울증,대인기피증, 틱장애,병명없이 몸이 아프신 분, 가정풍파, 엑스시스트에서도 치료 못하는 환자치료, 스님 법사 보살님도 상담환영
(천상을 여는 금강사)
010-2418-6222

무보시 공양주 구함

(女, 30~40대)
기수련 및
참선공부할 사람
(해인사)서울 성북구 돈암동 83-2
02)953-8532
010-3033-8532

절 운영하실 보살님 비구니, 처사님 모십니다

010-8943-3999

조그마한 절 입니다. 절 운영 하실 스님이나 기도스님 모십니다

(경주 강동)
011-534-3345

경북 봉화 청정기도 수행도량 산중계곡물 상구보리. 하화중생

여생을 함께할
비구니 스님 2분을 모십니다
보시금도 드립니다
010-6370-6769
010-6227-6510

원력과 신통력

• 이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에게 일러드립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010-5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男 女 행자스님 모십니다

051)721-0449

60대 후반 비구가 주석할 절을 찾습니다

010-3221-0839

신심있는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울산, 55세 이하)
011-875-631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합천)
010-9506-5706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사) 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오공양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행사 출전 실무
3) 다계 • 운심게 작법반
사찰행사 전문 (점안대법회, 산신, 수륙대재, 천도(49)재)
부전스님 사찰 연결드림 총무스님 010-5511-7000

수정사 노인 요양원

• 최적의 자연환경 (수정산 산책로)
• 최신시설, 아늑하고 쾌적한 시설
• 등급 내, 외 어르신 모두 환영
• 최고시설, 최저의 비용으로 모시겠습니다
상담문의 031-333-5014. 010-7105-5013
(성심 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주)골든 안치단 전문제작회사

미니납골당 건축 전문
▫ 장인들의 노하우로 개발한 명품입니다.
▫ 조립식이 아닌 개별함으로 조립식 함의 단점들을 100% 해결 했습니다.
▫ 황금색 안치단으로 품위와 디자인이 최고입니다.
▫ 가격 품질 시공 관리 타사 제품과 꼭 비교 하십시오.
▫ 화재 지진 무거운 중량에도 안전합니다.
골든 안치단 본부장 010-3390-1161
골든 안치단 공 장 031-767-1308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으로 장례전문인력의 맞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치매, 암 예방 – 건강관리

술, 변비, 지방간, 비만
어려운 문제해결
대전에서는 누구나 와서 주야기도 함
대불정능엄신주 특별지도
꿈바위불교 교 육 원
대전, 서울, 부산, 대구
010-6789-5008 / 010-2353-2010
02)739-5008

사찰 운영에 고심이 많으신 스님들께 한 소식 올립니다

❁ 절에 신도가 줄었다.
❁ 한번 온 사람이 다시 오지 않는다.
❁ 절 살림이 어렵다.
❁ 부처님 호상이 前전 같지 않다.
❁ 천도재를 지내고 성불보기 힘들다.
❁ 법당에 기운이 썰렁하다.
❁ 법당에 도둑이 들거나 잔손이 탄다.
❁ 주지스님이 건강이 나빠진다.
❁ 스님이 마음이 떠서 밖으로만 돈다.
❁ 공양주가 붙어있지 않는다.
❁ 사찰을 매매하고 떠나고 싶다.
이런 문제가 있으신 스님들께서는 좋은 처방비법이 있으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41)943-6882 / 010-4233-7099
전 화 白超律曆學堂

자성주(靈珠) 수익사업

선망 조상님의 유골에 어떠한 광물질을 혼합하지 않고
섭씨 2,3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아름답고 품위있게
고인의 유골을 自性珠(구슬사리)로 생성하는 기계입니다.
납골사리 1기당 150만원. 지사 및 사업동반자 환영
1899-1042. 010-3679-1080
(주) 보은의 사랑

불자정보 938호

TEL 02) 2004-8215(直)
FAX 02) 737-0696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리니다.

창건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임실 섬진강 회문산
• 평수 : 법당 2동(대지 300평)
• 종교용지 허가 대지, 총 5000평 중 300평
• 부처님 세분 모셔져있음. 현대식 입식 한옥 목조 기와 시설. 섬진강 명당 위치
• 비구니 스님 환영(일체시설완비) 몸만오시면 됨 • 호남 최고의 명당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총 건축비 2억 1천만원 소요)
010-9647-0723
010-6505-8004

암 자 안 내

• 위치: 충북 영동
• 평수 520평
• 건물 목조 기와 약 40평
• 별채, 창고, 산신각 등
• 산중암자, 가격절충
• 가액: 2억 5천만원
010-9422-1233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인근 20분거리
• 대지 299평 총평수 637평, 전건축물 목조
• 대웅전 29평 요사채 20평, 방4, 욕실1, 공양간 10평, 방1개, 해우소3평, 방3칸
• 지하수 130m 물수량 100톤 일급수 CC카메라 9대시설
• 사찰경내지 계곡물흐름, 조경완벽
•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IC 5분거리
• 가액: 3억 5천만원(꼭 하실 분만 전화요망)
※ 장난전화사절 ※
010-9338-0118

포 교 원 안 내

• 위치:경남 양산.시장옆 2층
• 40평 시설최고 방2개
• 보증금:1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1천8백만원 (절충가능)
• 삼존불.신중.지장.칠성.산신.탱화
• 비품일체 몸만오시면 법회함
010-9945-2030

대구도심속 山 포교원

어려운스님 및 누구나 불사되는곳
말이 필요없다. 최고시설, 부처님(진사리) 몸만 오세요, 현 법회 중
시설 보증금 일년세 양도
7천만원 임야, 토지, 부동산일체
전철역 도보 5분거리
010-8943-3999 보해

토 굴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 양동 금왕리
• 건물 2동 (법당1, 요사채1)
• 땅은 문중땅 건물은 건물등기 有
• 도지세 연 20만원
• 건물 가액: 4천만원
010-9849-7727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경안로
• 4차선 도로
• 반야월 지하철역 5분거리
• 핵심도시 대단지 확장중
• 목조건물 한옥 39평
• 법당(부처님 3분 모셔져있음) 삼성각 별도
• 가액: 9500만원, 몸만 오시면 됨
010-3113-300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량진
• 총평수 827평, 건물 법당 요사채 합쳐서 약50평
• 산신각 약5평, 용왕당 약2평
• 가액: 3억 3천만원
010-8034-8309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33년의 역사와 자산825억원의 형산새마을금고는 변함없이 전국의 많은 사찰과 좋은인연을 맺고 있으며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어 좋은 인연되기를 소원합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대출이자 ☞ 1억 대출시 최고 58만원
❷ 대출기간 ☞ 5년 (만기시 연기 가능)
❸ 근저당설정비 ☞ 면제
❹ 대출지역 ☞ 전국 (제주도포함)
❺ 단체명의, 종단 소속사찰 모두가능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 강 욱
☎ 010-9842-4200
과장 김 상 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불 자 정 보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 누구에게도 원망을 풀지 못한다.
다만 원망을 떠남으로써만 원망을 풀 수 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다.
- 법구경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
- 법당 : 25평
- 요사 : 70평
- 부지 : 130평
- 가액 : 3억 3천

- 위치 : 경기도
- 법당 및 요사 75평
- 부지 : 350평
- 가액 : 6억2천

- 위치 : 경남
- 법당 : 4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1,200평
- 가액 : 11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삼 보 사 찰 안 내

삼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서울
- 법당 : 40
- 요사 : 30
- 대지 : 100평
- 산신각,건평 150
- 가액 : 15억

- 위치 : 경산
- 법당 : 30
- 요사 : 50*2동
- 대지 : 300
- 종각,가액 5억

- 위치 : 의정부
- 법당 : 28평
- 요사 : 28.방4개
- 옛날구옥2채
- 1.3백/70권리금

※서울 경기 근교 포교당 전세암자 급히 구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 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상담환영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 전망 좋은 절

- 총 대지: 약 2.700
- 법당 약 40평, 요사채 60평 주지실30평
- 산신, 노천불, 대형버스운행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양도가액: 12억

토 굴 안 내

- 총부지 : 970평
- 법당 및 요사채, 산신각, 용왕각, 독성각
- 계곡 물 철철, 산세 최고
- 양도가액: 1억 5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전원주택 또는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 대지 : 2,670평
- 진입로 6M이상 확보,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득
- 경치 수려하고 부지내 연못 있음
- 경부고속도로 수원IC, 기흥IC, 용서고속도로 청명IC인접
- 서울, 분당, 동탄 접근성 (10~20분)용이
- 동탄2기신도시, 보라택지지구 중간 지역
- 가액 협의 (방문 상담 후 결정 희망)

010-5624-0878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보령시 남포 저수지 앞
- 법당, 산신각, 요사2채
- 개금, 탱화 불사 새로 하였고 손볼곳 없는 완벽한 도량
- 즉시 입주가
- 가액: 5억

041)934-8497
010-4222-68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 대웅전, 칠성, 산신, 용왕각
- 요사채 2동
- 아파트 단지 도심 사찰
- 먼 바다 보이는 좋은 전망
- 대지 390평
- 가액: 3억 5천만원

010-5346-413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안양 명학시장 2층
- 안양역. 명학역 도보 10분
- 평수 5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전세 6천만원
- 법당, 주방, 침실, 삼존불 모심
- 시설비 없음 (시설비 3500만원 이상이나 사정상 임대함)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010-5495-4678

사찰(급)안내

- 위치: 강원도 홍천읍
- 교통 편리하고 동향인 사찰
- 법당목조 60㎡, 요사채 124㎡
- 대+전 2,500㎡ 창고와 차고 있음
- 스님이 건강상으로 양도함
- 가액: 3억만원

010-3426-9393
010-7347-101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청학 2동
- 평수 : 57평
- 완벽한 시설로써 스님, 법사, 보살님 적합함
- 1층 : 요사채(도시가스 시설) 2층 : 법당과 스님방

010-3732-5237
051)412-0400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남해안 소재 사찰
- 토지 : 종교용지 430평, 임야/전 10,523평
- 시설: 납골추모관, 무량수전, 종무소, 요사채, 공양간, 창고, 일반주택 등 주차장 완비
- 가액: 4억 8천만원
- 읍내 유일 추모관 운영, 예상가는 8억 이상이나 건강상 이유로 급 안내

010-5444-080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 북안면 당리
- 대지 97평
- 건물 20평
- 대출 1천 1백만원
- 가액: 3천만원 조용히 기도하실 분

010-4601-1255

현재 전원주택 노인 요양원 적지

땅을 알고 터를 잡으세요

- 위치: 경남 사천시 사남면
- 주택: 스틸하우스 (29평)
- 대지: 554평, 정남향(명당터)
- 가액: 1억 9천 5백만원

011-9517-852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칠곡군 경북 과학대학 근방
- 부지 2500평, 건물 70평
- 방6개, 폭포수 가까이 있음
- 경관 화려함
- 고사리 약 800평
- 가액: 3억 7천만원 (융자 1억 6천 포함)

011-556-550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 본사 소임관계로 급안내
- 평수 약 9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상담
- 방2, 종무소1, 서재1, 공양간1
- 즉시 법회 가능

010-8606-791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 3층건물 중 2층 40평 (별도등기)
- 대로변, 미남전철역에, 동래역전철 5분거리
- 법당 30평, 방+주방 10평
- 시설완벽, 법당시설비 1억이상 소요
- 건물 양도가 2억(시설비 포함)
- 큰절 소임관계로 급 양도

010-2531-1961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보령시 남포 저수지 앞
- 법당, 산신각, 요사2채
- 개금, 탱화 불사 새로 하였고 손볼곳 없는 완벽한 도량
- 즉시 입주가
- 가액: 5억

041)934-8497
010-4222-68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 대웅전, 칠성, 산신, 용왕각
- 요사채 2동
- 아파트 단지 도심 사찰
- 먼 바다 보이는 좋은 전망
- 대지 390평
- 가액: 3억 5천만원

010-5346-413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남 양산시 시장옆 2층
- 40평 시설최고 방2개
- 보증금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천5백
- 삼존불.신중.지장.칠성.산신.탱화
- 비품일체 몸만오시면 법회함

010-8774-2040

사찰터안내

-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 대지 526평 중 30평 신축허가
- 평당 60만원
- 1급 주거지역
- 전원주택이나 사찰가능

017-855-6717
017-856-2344

건 물 안 내

- 포교원 최고의 자리
- 부산아파트 12,000세대 및 주거 밀집지역
- 대지 60평, 건물 150평
- 동향 주차용이
- 버스 지하철 역세권
- 가액: 5억 7천만원
- 대출 3억 가능

010-8676-2278

사찰(급)안내

- 경기도 의정부 호원1동
- 대지 27평
- 법당 2층 조립식 약 20평
- 요사 1층 방 3개 화장실-세탁실
- 창고-소각장
- 부처님6분, 신중, 칠성, 산신, 영가단
- 교통편리 - 전철 10분, 버스 2분
- 주변에 주차할 수 있음
- 양도가액: 2억 3천만원

010-8900-4874

사 찰 안 내

- 현재 사찰 운용중 (다용도 (사용) 가능)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덕정리 (약수터내)
- 대지 197평 ●건물 2동
  1. 건평 98평 2층건물 (방11칸)
  2. 70평 1동 - 법당 약 30평 (공양 15평) 식당 15평
- 시설 : 아미타불, 관음, 약사, 지장 , 소불 후불탱화, 지장, 신중 삼선각(칠성, 나반, 산신)
- 양도가액: 2억 8천만원

010-3170-0183

사 찰 안 내

- 위치: 경관이 수려하고 좌청룡 우백호가살아있는곳, 갓바위 뒷자락
- 대지 3천평 ●건물 60평 1동,컨테이너건물1동 화장실2칸1동
- 마당까지 대형차진입
- 평탄하게 완료된 전,답
- 가액은 6억

010-6253-3107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서대문구(북한산 밑)
- 평수 77평
- 법당, 삼성각, 방5개, 화장실 2개
- 텃밭, 창고 2개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4천만원(조정가)

010-7466-7701

사 찰 안 내

- 위치: 영덕군 영해면
- 평수 : 73평
-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 가액: 전화 상담

010-2510-0955

포교원(급)안내

- 대구지하철 1호선 3분출구 3분거리, 동대구역 10분 거리
- 3층건물 중 2층
- 50평 시설. 최상급 삼존불
-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칠성탱화, 지장불 외 소불다수
- 방 2칸, 살림가능
- 보증금 3백만원 / 월 35만원
- 시설비 2천만원 절충가능
- 몸만 오시면 법회 바로가능

010-2296-0108

포교원안내

- 안산 , 아파트 마트, 병원 밀집지역
- 분양평수 64평, 실평수 41평
- 법당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칠성탱화 영가단 250분
- 방사는 상담실외 2, 김치냉장고2대, 대형냉장고,소형냉장고등, 각방 에어컨 3대
- 양도가 1억 6천만원
- 월세 1천 3백 / 월 55만원
- 시설비 3500만원

010-4760-8791

포교원안내

- 양산시 북부동 동양산 농협 옆
- 평수: 90평, 방5개, 법당 35평
- 삼존불, 산신용궁, 영가단, 후불탱화, 소불 206불
- 전세 4천 5백만원 / 월 50만원
- 시설비, 비품 5500만원

010-8384-7754

포교원안내

- 강북 세무서 뒤 기업은행 사거리
- 2층 25평
- 법당, 상담실, 방, 주방 겸 거실
- 에어컨 2대, 정수기
- 합 1700만원(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500만원 / 월 35만원(조절가)

010-3834-5800
010-9496-3689

주 택 안 내

- 위치: 충북 단양군 단성면 고평리
- 대지 171평, 전 합 1050평, 건 30평 외
- 황토방 약 15평, 아궁이 온돌방 3개
- 뒤는 산 조용하고 전망좋고 교통편리
- 광희나루 선착장 1분 자연 암반수
- 가액: 1억 6500만원

010-3288-131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칠곡군 경북 과학대학 근방
- 부지 2500평, 건물 70평
- 방6개, 폭포수 가까이 있음
- 경관 화려함
- 고사리 약 800평
- 가액: 3억 7천만원 (융자 1억 6천 포함)

011-556-550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칠곡군 경북 과학대학 근방
- 부지 2500평, 건물 70평
- 방6개, 폭포수 가까이 있음
- 경관 화려함
- 고사리 약 800평
- 가액: 3억 7천만원 (융자 1억 6천 포함)

011-556-5507

포교원(급)안내

- 대구지하철 1호선 3분출구 3분거리, 동대구역 10분 거리
- 3층건물 중 2층
- 50평 시설. 최상급 삼존불
-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칠성탱화, 지장불 외 소불다수
- 방 2칸, 살림가능
- 보증금 3백만원 / 월 35만원
- 시설비 2천만원 절충가능
- 몸만 오시면 법회 바로가능

010-2296-0108

사찰터안내

-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 대지 526평 중 30평 신축허가
- 평당 60만원
- 1급 주거지역
- 전원주택이나 사찰가능

017-855-6717
017-856-2344

사 찰 안 내

- 충북 옥천군, 옥천읍까지 7분거리
- 대지 505형 등기 필
- 요사채 38평, 후면 창고 15평
- 요사채 위 법당 20평 2층
- 옥외화장실 6평 내 창고재중
- 6층석탑 (제주석)
- 가액: 방문시 절충 요
- 불필요 전화 특히 사절

010-7517-7037

사찰터안내

- 경남 함양군 병곡면 자연휴양림 입구
- 평수: 전 약 1,600평
- 도로 양호 (2차선) 남향 지곡 IC, 함양 IC근접
- 함양 상림숲 10분
- 전원주택, 힐링센터, 사찰터
- 가액: 1억 2,000만원

010-9403-74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진해에서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대출 1억 포함
- 가액: 2억 7천만원

010-8725-3196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150평
- 법당 : 40평
- 요사 : 40평
- 양도 : 16억5천

- 위치 : 전남토굴
- 부지 : 220평
- 법당 : 40평
- 요사 : 40평
- 양도 : 5천만원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선 ~ 정토 터(부지)

- 위치: 경북 영주 시내에서 15분 거리
- 산에 위치하나 지목이 밭으로 관리지역임
- 산 정상까지 묘, 송전철탑 등이 전혀 없음
- 구포란형(龜抱卵形)으로 백두대간이 보이며 전망 경치가 좋음
- 도로(주차장포함), 전기, 부지 정리 완료
- 12년생 금강송 9백그루(3억 상당) 무상 양도
- 총 5,266평(평당 6만 3천원) (금 , 토, 일 중 방문예약 요)

016 - 573 - 2032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남구 용호동
- 시장통 사거리 ,위치 좋음 1층
- 법당, 삼존불, 산신, 신중, 후불탱화 다 맞춤
- 방1, 다락2개, 주방, 화장실 겸 샤워실
- 약 20평
- 보증금 2천 5백만원, 월 15만원 시설비 1200만원(답사 후 절충)

010-4747-8796

포교원 안내

- 위치: 인천부평 큰시장 안
- 평수 약 95평
- 법당 40평, 방4개, 창고 큼
- 월 10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삼존불, 소불 각탱화
- 유동인구 많음, 즉시법회가능
- 꼭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8754-6762

포교원안내

- 위치 : 서대문 홍은동
- 3층 건물 중 3층, 50평, 옥상전체 사용
- 삼존불, 후불, 108불 소불, 산신각 방 2, 접견실, 샤워실, 화장실
- 에어컨 2대포함,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700만원 / 월 70만원
- 시설비 4500만원

010-9231-46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 3층건물 중 2층 40평 (별도등기)
- 대로변, 미남전철역에, 동래역전철 5분거리
- 법당 30평, 방+주방 10평
- 시설완벽, 법당시설비 1억이상 소요
- 건물 양도가 2억(시설비 포함)
- 큰절 소임관계로 급 양도

010-2531-196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봉화군
- 등기평수 4423평 중 종교부지 375평
- 사과밭 2700여평, 나무 7년생
- 법당 19평, 기타 9평, 대지 180평
- 건물 3동, 철구조물 판넬, 창고, 외부화장실
- 가액 : 평당 13만원
- 금액이 맞는분만 전화요망

010-4726-6496

마음에 걸린 것 발표… 상담 병행

연중기획 마음산업

‘신행 · 포교 地圖’ 바꾼다

〈8〉 대원불교대 명상학과

이론과 실습 병행…강사진 화려
불교교리 강좌 · 방학특강도


대원불교대학 명상학과는 2011년 신설 사마타수행의 이론과 실습, 불교명상학, 알아차림과 자아등 명상의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고 있다. 사진은 4월 25일 수업장면.

“열심히 시를 쓰는 저를 보고 아들이 왜 엄마는 시인도 아닌데 시를 쓰냐고 타박을 했어요. 순간 속이 많이 상했어요. 시가 좋아서 오랫동안 시를 썼지만 일류 시인이 되지 못한 열등의식이 남아 있어서였지요. 유명 시인이 되지 못했을 뿐이지 제 시도 나름 인정도 많이 받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말에 많이 초연해지기도 했고 또 아들의 말을 잘 들여다보면 밥 줄 시간에 밥 안 주고 시 쓰는 엄마를 나무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죠”

4월 25일 마포 다보빌딩 2층, 대원불교문화대학 명상학과 윤희조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의 수업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윤 교수의 수업은 한주간 자신이 마음에 걸렸던 부분에 대해 한 두명의 학생이 자발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뭐 그리 거창한 발표가 아니다. 일상에서 느꼈던 화 짜증 분노 등의 감정을 일으켰던 사건을 말하고 이에 대해 마음공부 차원에서 이론과 상담을 병행해 풀어주며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윤 교수는 이 수강생의 질문에 어떤 결론을 내려 주었을까? “만(慢) 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편보다 우월할 때 온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내가 상대편 보다 못하다는 열등의식도 잘 들여다보면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라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아라한의 단계가 되어야 이 만(慢)이 끊어지는 것이죠. 선정에 들어가 나를 바라보는 작업을 꾸준히 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이런 마음도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대원불교대학 명상학과는 2011년 신설되었다. 매주 수 · 목요일 주 · 야간반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사마타수행의 이론과 실습, 불교명상학, 알아차림과 자아, 선의 이해와 실제, 명상과 치유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불교명상을 이해하기 위해 불교교리강좌와 방학 특강 등도 진행되고 있다.

강사진도 화려하다. 심리학박사 서광 스님(미국 보스턴 서운사 주지), 이한구 성균관대 명예교수, 윤희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이남경 동국대 선학과 강사 등이 수업을 이끌고 있다.

수강생 한경호 (60) 씨는 명상을 통해 대인관계가 원만해졌다고 한다. 또한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명상을 통해서 제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중생심으로 끌려가던 마음을 다잡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제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이 바로 명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초보지만 열심히 수행해 그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8개월 동안 명상 공부를 해온 안수동(67) 씨는 명상을 통해 놓아버리는 법을 배웠다고 전한다. “치과의사로 오랜 시간 병원을 운영하면서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병원을 다른 의사한테 맡기고 명상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명상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뭔가 여지껏 바쁘게 살아오던 삶을 되돌아 볼 있게 해주고 생활 습관도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겼죠”

윤희조 교수는 명상을 통해 자아를 바라볼 수 있는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명상을 하며 자신의 문제를 알아차리고 이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존의 관념들이 깨지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긴다는 얘기도 종종 듣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개개인의 문제를 직시하고 이에 맞는 수행법을 찾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한편, 대원불교대학은 지난 1973년 개원 이래 △불교인문학 △불교 문화학 △불교명상상담심리학 △불교학 등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17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02)707-1072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올라오는 화 바로 바로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스피치 강사 신향지 씨



“2년 동안 명상을 공부하면서 제 삶과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알아차림을 통해 제 내면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화와 짜증이 나면 그 순간을 알차리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그 화와 짜증이 순간적으로 사라지죠”

스피치 강사 신향지(사진 · 49) 씨는 대원불교대학 명상학과에서 2년째 명상공부를 하고 있다. 그녀는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 힘이 생기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졌다고 말한다.

“늘 동생과의 관계가 서먹했었어요. 명상을 공부한 이후 동생과 많은 대화를 나눴죠.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저는 동생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동생은 그게 불편했나봐요. 문제의 실마리를 푸니 불편했던 관계들이 스르륵 풀리게 되었고 동생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일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명상을 수업에 적용한 것이다. “강의 시작전에 명상을 시켜요. 수강생들도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좋아해요. 저 또한 제 마음이 밝아지니 수강생들에 대한 배려심이 더 많아지고 소외된 분이 없도록 노력하게 되었죠”

함박웃음을 띠는 신 씨의 얼굴에는 명상으로 찾은 행복이 한가득 담겨져 있었다.

정혜숙 기자

서구의 마음수행 현장

〈6〉 스코틀랜드 홀리아일랜드 세계평화센터

티베트 불교 분위기…건강·생태 프로그램 운영

샘과 수도원이 있는 평화로운 섬

스코틀랜드 서부 해안, 아란(Arran) 섬에서 멀지 않은 홀리(Holy) 섬은 오래전부터 성스러운 땅으로 여겨져 왔다. 치유 효과가 있다는 샘과 13세기에 지어진 수도원이 있는 평화로운 곳이다.

티베트 불교 소수 종파 ‘카규파’의 승려인 라마 예세 로살 린포체(Lama Yeshe Losal Rinpoche · 70)는 1995년 이곳에 ‘홀리아일랜드 세계평화센터(Holy Island Center for World Peace)’를 건립하고 휴양센터를 겸한 명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티베트 점령으로 미국으로 건너온 라마 예세는 1960년대 후반 미국평화봉사단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서구에 관심을 갖고, 스코틀랜드의 삼예링(Samye Ling) 수도원에 정착했다.

이후 1990년, 아일랜드계 여성이 수도원을 찾아와 특이한 요청을 한다. 그는 아란 섬 옆의 자그마한 홀리 섬의 주인으로 성모마리아로부터 “삼예링 수도원의 불교도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계시를 받았고 홀리 섬을 팔고 싶다는 것이었다.

섬을 둘러 본 라마 예세는 고향인 티베트를 연상시키는 풍경에 즉시 친화력을 느끼고 1992년 4월 섬을 매입했다.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추구를 원칙으로

홀리 섬에서 라마 예세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나무 심기, 모르타르(시멘트와 모래를 물로 반죽한 것) 없이 돌 벽 쌓기, 건물 짓기, 정원 가꾸기 등을 시작해 1995년 센터를 완성했다.


옴마니반메훔이 새겨진 바위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라마 예세 로살 린포체. 그는 홀리 섬에서 티베트를 느끼고 섬을 매입하고 세계평화센터를 세웠다.


홀리아일랜드 세계평화센터 주변에는 스투파(티베트불교탑)와 오색깃발, 룽타가 걸려있다.

카규파 승려 라마 예세가 섬 매입 설립
명상, 태극권, 요가 등 코스 다양
안거 기간에는 오계 꼭 지켜야

처음부터 그는 섬을 생태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배경이나 종교에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내면의 평화를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그의 원칙으로 홀리아일랜드 세계평화센터는 섬의 환경보호를 위해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어떤 곳은 섬에서 서식하는 새와 동물을 보존하기 위해, 또 어떤 곳은 나무를 심기위해 구역을 정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를 위해 섬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섬 에는 티베트의 정취가 묻어나는 룽타(lungta, 세상의 5가지 주요 요소를 다섯 까지 색깔로 담은 천)와 타라보살(티베트에서 숭배하는 여성보살)의 바위그림이 곳곳에 있다.

홀리 섬 북쪽에는 세계 평화와 건강을 위한 센터가 있다. 3월부터 10월까지 휴양 및 안거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불교의 오계(五戒)를 지켜야 한다.

세계평화센터는 기숙사를 비롯해 싱글 · 트윈 룸 등 60개 이상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다.

각 객실은 중앙 난방식으로 소형 세면대가 비치돼 있으며 묵언수행을 하기 좋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의 도서관과 벽난로가 있는 식당, 그리고 소모임을 위한 장소 등이 마련돼 있다.

약 100명 정도를 수용하는 평화의 전당(The Peace Hall)에서는 명상, 태극권, 종교 간 대화 등 다양한 워크숍과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고 있다.

하루 종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코스는 매일 프로그램이 짜여 있다.

‘마음챙김 집중과정’ ‘취침 중 마음챙김하기’ ‘아나타 요가’ ‘소리명상치유’ 등이 있으며 채식 요리, 불교 강의는 물론, 자신과 자신의 영적 자아를 연결시켜 주는 코스들도 있다.

코스 기간은 보통 4~7일을 기본으로 하며 요금은 140파운드(한화 약 24만원)부터 많게는 358파운드(한화 약 61만원) 정도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한다.

일을 도와야 한다거나 하는 의무는 전혀 없지만 방문객이 나서서 참여하겠다고 하면 대환영이다. 그냥 앉아서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끽하다가,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에 슬슬 지루해지면 주위의 아름다운 자연 탐험을 해도 좋다.

멕시코 만류가 선사하는 온화한 기후 덕분에 희귀한 식물과 야생화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며, 에리스케이(Eriskay) 섬의 야생 조랑말과 염소, 양 떼들이 돌아다닌다.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해안의 물 역시 스펙터클하다. 다양한 종류의 바다표범, 돌고래, 심지어 돌묵상어까지 볼 수 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항공)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뭄바이 – 엘로라 / 아잔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가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인천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야(시기리야성채)
– 플론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야 – 콜롬보 – 인천

4.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7일 (대한항공)
▶ 부처님의 나라, ‘실론섬’ 이라 불리는 스리랑카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야(시기리야성채)
– 미힌탈레(마하세야 다고바 – 부처모발) – 플론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마탈레(500비구)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야 – 콜롬보 – 인천
상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8대 佛教聖地 지역 안내 ▶
- ❶ 보드가야(Bodhgaya) :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 ❷ 사르나트(Sarnath) : ‘초전법륜지’ 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 첫 설법을 하신 곳, 佛 · 法 · 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 ❸ 스라바스티(Sravasti) :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 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 / 능엄경 / 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 ❹ 라즈기르(Rajgir) :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 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축산(영취산)이 있는 곳.
- ❺ 바이샬리(Vaishali) :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 을 설법하신 곳, 원왕봉밀(猿王奉蜜)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 ❻ 쿠시나가르(Kushnagar) :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 ❼ 룸비니(Lumbini) :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룡못이 있는 곳.
- ❽ 상카시아(Sankasya) :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1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2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3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4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5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팁 포함
6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7 전일정 매일 1인 1병 생수 증정
8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9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10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마루 티에스 Maru Tour Service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252-1 대신빌딩 10층 1002호 (110-111)
대표자 : 김 영 곤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 maru@maruts.co.kr

srilanka WONDER OF ASIA |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아라한 된 가섭부인이 90일간 임금수청 든 '업'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18)

가섭부부의 출가이야기

훗날 가섭의 아버지가 되는 니구율타는 마갈국의 바라문 집안에서 태어나서 전생의 복과 덕으로 인하여 큰 부자가 되었다. 재물이 나라 안에서 국왕 다음일 정도였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으나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는 아이를 갖기 위해 집 근처의 수신(樹神)에게 제물을 올리며 기원했다. 하지만 여러 해가 되었어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는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만약 7일 안으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 나무를 당장 베어서 불살라 버리고 말리라."

이 말을 들은 수신은 두려운 마음에 식의천왕(息意天王)에게 올라가서 고했다. 천왕은 이내 수신을 데리고 가서 천제석에게 말했다. 제석은 이내 천안으로 욕계 안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아직은 그의 아들이 될 만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 제석과 천왕이 다시 두루 살펴보다가 한 범천이 막 수명이 다하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했다.

"네가 이제 염부제에 가서 니구율타의 아들이 되어야겠다."

그러자 범천이 그의 아들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제석은 이내 수신에게 일렀고, 수신은 돌아가서 니구율타에게 말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인께서 7일 후에 아들을 잉태하게 되실 것입니다."

7일이 되자 수신의 말대로 그의 부인은 임신을 하게 됐다. 열 달이 되어 아들을 나았는데, 몸은 황금색이면서 광명이 있었다. 가섭이다. 관상쟁이가 말했다.

"이 아이의 전생의 복에는 커다란 위덕이 있습니다. 뜻하는 힘이 맑고 넓어서 세상의 일을 탐내지 않을 것이니, 만약 출가한다면 반드시 성인의 도에 오를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부모는 크게 근심하기 시작했다. 부모는 아들이 출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이 열여섯이 되자 장가를 들이려 했다. 가섭은 그 말을 듣고 여러 번 부모에게 말했다.

"저는 출가에 뜻을 두었습니다. 아내는 필요 없습니다."

부모가 그 뜻을 받아주지 않자 가섭은 다시 간청했다.

"만약 정 그러시다면 범상한 여인은 필요 없고, 자금색의 여인을 얻어주십시오. 용모가 단정하여 견줄 데 없을 정도라면 제가 혼인 하겠습니다."

가섭은 부모가 도저히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없게 하려고 꾀를 내었다. 하지만 부모는 바로 나라 안에 방을 붙여 신부를 찾았다. 그를 돕는 바라문들은 많은 여인들을 보기 위해 금으로 신녀(神女)를 만들고 온 나라를 다니며 금신에 예배하면 후에 좋은 남편을 얻게 되고, 몸은 황금색이 되고 얼굴 모습은 예뻐지며 지혜가 생기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소문을 냈다. 그러자 마을 지날 때마다 여인들 모두 나와 금신에게 예배하고 공양했다. 그러나 몸이 금색이며, 단정하고 예쁜 한 여인만이 나가 예배하지 않았으므로, 주위의 여인들이 말했다.

"그 금신을 뵙게 되면 원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진다는데, 왜 나가 예배하지 않는 것이냐?"

그녀가 대답했다.

"나의 뜻은 한가하고 고요한 곳에 있습니다. 다른 원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여인들이 말했다.

"비록 소원은 없다 하더라도 잠시 함께 나가서 한 번 보는 것이 손해 될 것이 무엇이냐?"

여인들이 서로 이끌어 마침내 함께 나가서 구경을 하게 되었다. 이 금녀의 빛깔이 금신에 비치는지라 바라문은 돌아와서 가섭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가섭의 아버지는 중매쟁이를 앞세워 그 여인의 부모를 만나 그 간의 사정을 말했다. 그 여자의



삽화 · 강병호

부모도 가섭의 이름을 들었던지라, 그 뜻을 받아들였다. 그 여인은 근심스러웠지만, 부모가 이르는 일이라 마지못해 가섭에게 시집을 갔다. 두 사람이 서로 혼인을 했으나 뜻이 각자 단단하고 결연했다. 비록 부부가 되었다고는 하나 이성의 마음이 조금도 없었기에 함께 둘은 서약을 맺었다.

"나와 당신은 각기 다른 침대를 씁시다. 절대 서로 몸을 맞대지 않기로 합시다."

그리하여 부부는 각각 다른 침대에서 따로 자게 되었다. 얼마 후에 그의 부모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아버지는 바로 사람을 시켜 침대 하나를 내다 버렸다. 부부에게는 침대가 오직 하나밖에 없었기에 그 아내는 다시 남편과 약속을 했다.

"제가 만약 잠을 자고 있거든 당신은 산책을 하십시오."

여러 날이 지나고 가섭 부부는 서로 의논했다.

"우리들은 모두 출가에 뜻을 두고 있는데 이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멀리서 부모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함께 출가하여 산으로 들어가 수행하기에 이르렀다. 가섭은 곧 아내를 떠나 다른 숲에 가서 살았다. 그때에 어떤 바라문이 5백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역시 같은 산에 살고 있었는데, 가섭의 아내는 곧 바라문 문하에 들어가 수행하게 됐다.

가섭은 뒤에 부처님을 만나 법을 듣고 아라한이 되었다. 어느 날, 가섭은 아내가 아직도 범지들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곧 아내를 데리고 부처님께로 갔다. 부처님께서 그녀에게 법을 설하시자 그녀 역시 법을 듣고 아라한이 되었다.

그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불법을 전하다 마침 바사닉왕의 큰 모임을 지나게 되었다. 비구니들은 왕궁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서 부인들을 교화하여 모두가 하루의 재계(一日齋)를 지니게 하였다. 날이 머물러 왕이 궁중으로 돌아왔는데도 왕의 부인들 모두가 재계를 지킨다고 하면서 오려고 하는 이가 없었다. 왕은 크게 노하여 하인에게 물었다. "누가 나의 부인들에게 재계를 하도록 시켰느냐?"

하인이 가섭의 부인이라고 말하자 왕은 이내 그녀를 불러 90일 동안 부인들을 대신하여 수청을 들게 했다. 이것은 모두가 바로 옛날의 인연이며 서원으로 지었던 바였기 때문에 비록 아라한이 되었다 하더라도 면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잡비유경〉 제4권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⑱



타종교 가족과 맺은 불교인연

새 인연

내가 40대 초반이었을 때 이야기다. 나는 그 당시에 어디를 가든 항상 작설차를 우려 보온병에 담아 들고 다녔다. 그날도 차를 준비 해 갔다.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과 나눴다. 그 중 30대의 남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날 나의 차로 인해 인연이 시작 되었다. 나는 그를 '마 선생' 이라고 불렀다. 그는 내가 준비해간 차의 맛이 마음에 들었던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차를 구해 우려 보았지만 그 날의 차 맛과 같은 차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를 찾아와서 차를 구해 달라고 했다. 나는 곧 녹차를 주문했고, 며칠 후에 마 선생에게 차를 갖다 주러 갔다. 그 당시 나는 해마다 초파일이면 부부동반으로 회원들과 해인사에 가서 참배하고 지족암 일타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기념 촬영도 하고, 지낼 때였다.

나는 마 선생에게 마침 초파일이 되어오니 함께 가해인사에 가자고 했다. 그런데 그는 "우리 집은 모두가 교회에 나간다."고 하며 갈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왜 놀러갈 때는 절에 가면서 부처님오신날이라서 절에 가자고 하면 기겁을 하고 못 간다는 건가요? 종교가 달라도 기념이 되는 날이면 서로가

새 인연은 '새로운 나' 만드는 일
만나고 보내고 하는 것이 '삶'

축하해주어야 참 종교인이지, 내 것만 옳고 남의 것은 무시하면 종교인의 자세가 아니지요. 부처님 생신이면 교회에서 큰 등하나 만들어 달아줄 수 있어야하고 또 크리스마스 날에는 우리 불자들이 큰 트리를 만들어 교회에 드릴 수 있어야 평화로운 종교인의 모습이 아닐까요?"라고 했더니 마 선생이 무릎을 탁 치면서 "정말 그렇군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부터 마음을 달리 해야 겠습니다. 초파일에 가겠습니다."고 했다. 나는 기쁜 마음에 "마 선생님을 믿고 두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꼭 부부가 함께 오세요."했다. 며칠 후 초파일 아침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서 버스를 타고 있을 때 멀리 마 선생님이 보였다. 너무 반가웠다. 해인사를 다녀와서 얼마 후에 마 선생 부부가 함께 우리 집에 놀러왔다.

마 선생은 절에 가는 동안 동행했던 사람들과의 즐거웠던 시간들과 절에서 느낀 소회들을 털어놓았다. 나의 권유로 절에 오기는 했지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색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모두 법당에서 참배할 때 그는 법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법당 주위를 서성거렸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함께 와 준 것만으로도 그로서는 큰마음을 낸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법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미안해서 혼자 마음속으로 말했다고 했다. "저도 마음은 법당 안에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마 선생 마음,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에 가면 언제나 '태초에 하느님이 말씀하시기를' 로 설교가 시작되는데, 스님이 법문하실 때는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귀를 세우고 있었는데 우리들 일상생활의 지혜와 가피를 말씀하셔서 가슴이 찡 한 것이 기독교, 불교를 떠나 참 좋은 말씀을 듣고 있다는 생각에 참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 선생의 부인도 새로운 경험이었다며 내년에 다시 함께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정말로 두 부부가 함께 가게 되었다. 그 아내도 작년의 남편처럼 좋은 인상을 갖게 되어 기쁜 하루였다며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며칠 후 스승의 날이 되었다. 마 선생 따님이 지금은 여의사가 되었고 두 아이의 엄마이지만 그 당시는 중학교 2학년이었다. 그날은 선생님대신에 반장엄마가 한 시간 수업을 해야 하는 날이어서 나를 데리러 왔었다. 내가 엄마대신 수업을 맡아 달라는 부탁이었다. 마 선생 딸이 반장이었던 것이다. 나는 너무 당황스럽지만 평소 스님들께 들었던 법문을 생각해가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말을 찾아 해주었다. 의외로 반응이 좋았다. 그렇게 해서 마 선생 딸과도 인연을 맺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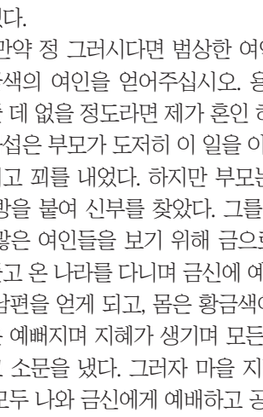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나와 친하게 지내고 절에 다니고 했던 일로 인해 마 선생 내외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은 모양이다. 그런데 한참 후에 들려오는 소리가 마 선생 어머니가 금강경을 보신다고 하고, 마 선생은 우리집 바깥양반과 이기영 박사 강의를 들으러 상주까지 다닌다고 하고, 마 선생 부인은 통도사 선다회 회원이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마 선생 가족을 생각하며, 내가 이제는 더욱 함부로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내가 그들을 나의 집으로 불러들였으니 함부로 살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새로운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새로운 '나' 를 만드는 일인 것 같다.

손자국 봄자국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쇼파에 앉아 창밖의 비를 바라보다 베란다의 유리문을 보게 되었다. 너무 더러웠다. 걸레를 들고 유리를 닦기 시작 했다. 유리를 닦다보니 여기저기 구석구석에 닦아야 할 것들이 많았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려고 마음을 먹으니 눈에 들어왔다. 그 중에는 며칠 전 놀러왔다 돌아간 어린 손주의 손자국도 보였다. 앙증맞은 손주의 손이 유리 위에 포개졌다. 물끄러미 손주의 손자국을 바라보다 이내 손주의 손자국을 닦아냈다. 손주는 어느 날 베란다 유리문에 또 손자국을 남기고 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또 손자국을 닦으며 손주 생각을 할 것이다. 창밖엔 봄이 와있다. 손주의 손자국처럼 언젠가 지웠던 봄자국이다. 지우고 또 만나고 그렇게 사는 가 싶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일반인과 수행자를 위한 행복 지침서
마음의 안락과 열반을 성취하는 실천수행



보시 · 지계 · 출리 · 지혜 · 정진
인욕 · 진실 · 결의 · 자애 · 평온
바라밀!

수행성취의 열 가지 조건, 십바라밀
행복에 이르는 열 가지 습관
Sujin Boriharnwanaket 저/ 정명스님 역
신국판 | 흑백 | 368쪽 | 13,8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괴로움의 소멸, 열반 증득을 위한 수행성취의 조건

불교에서는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를 닙바나(열반)라고 하는데, 열반을 증득하려면 필요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 조건이 바로 십바라밀이다. 수행의 성취는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조건을 만나야만 이뤄진다. 그래서 구도자는 그 조건이 무엇이고 나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안 다음에 하나하나 이 조건들을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 태국의 명상수행가인 Sujin Boriharnwanaket는 니까야 가운데 소부(小部)의 소송(小誦) 및 불소행장(佛所行藏)과 그 주석서를 근간으로 붓다의 수행법을 제시한다.

김천 성전사 www.jungmyeong.com 054-434-9090
비움과소통 출판 및 법공양(특별할인) 문의 02-2632-8739

"얼굴"만 보면 압니다!
한번의 인연으로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불교TV출연 정담스님>

전국 시 · 군 · 면 100회 강연!
〈현 불교TV 출연 중〉

◉ 이곳저곳 가서 점을 봐도 신통치 않아 답답하신 분
◉ 이름이 나빠서 성공 못하신 분
◉ 개인사업을 하시거나 구상주이신 분
◉ 건강이 나쁘신 분
◉ 조상천도재로 고민하시는 분
◉ 결혼문제로 고민이신 분
◉ 가정사 어려운점, 말못하는 사연
◉ 취업이 잘되지 않으시는 분
◉ 승진, 이직을 원하시는 분
◉ 학업문제가 고민이신 분
◉ 삼재에 들어있는 분
◉ 이사, 부동산(매매) 잘 안풀리시는 분

이제 기도의 기적이 일어난다!



· 대한불교 조계종 백양사 출가
· 서울 중앙 승가대학원 졸업
· 현 대한불교 종단 총무원장
· 주요저서 : 기도의 비밀, 불교척척박사, 바늘끝에도 남이 있다

찾아 오시는 길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산 171번지

백련사 전화 031)673-1087
Daum 카페 카페검색 | 치우천왕 힐링캠프

초절전형 슈퍼에너텍 전기 보일러
전국 사찰 300여곳 시공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대환영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태양광 발전사업 최고의 안정성 · 수익성

노후에 "연금이 따로 있나? 태양광이 연금이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개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여 안정적 소득 창출과 향후 노후대책은 물론 지속적으로 수입을 12년 동안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 50Kw 발전 기준시 년소득 약 3,000만원 (불자우대)

내일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慧峰 합장

직통 011-335-6389, 대표전화 1688-5687



대행 스님

여러분이 좀 더 마음을 탁 틔워서 훌떡 넘어가십시오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까 부모가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이구, 이거는 지겨워서 어쩌나.' 이런 생각 마시고 '아, 이것도 바로 내 탓이로다. 내가 이런 인연을 안 지었더라면 왜 내 앞에 왔을까? 그러니 얼마 안 있다가 또 모습을 타고 나오실 텐데 얼마 안 있다가 낸들 안 그러랴.' 하고 내 모습으로 생각하고 바로 그렇게 공경을 잘하십시오. 미워하지 말고 지겨워하지 않는 마음으로써 꾸준히 그냥, 잘하는 척하지도 말고 못하는 척하지도 말고 그냥 여여하게 그냥 나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대성공을 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자식들을 길러도 그렇게 해야 하고, 자식들이나 부모들이나 모두 살아나가는 게 상대가 모두 일체 만물만생이 전부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풀뿌리를 봐도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죠. 죽여도 죽여도, 아무리 그냥 묻어놓고 아무리 캐버려도 그냥 어디다가 뿌리를 붙이면 살고 그러거든요. '야, 그렇게 생명이 지겨울 정도로 튼튼하고 지겨울 정도로 끈질기게 이어가는 거는 참 처음 봤다. 우리의 인생 근본도 이렇게 영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깐 어느 거 하나 봐도 내 스승 아님이 없어서, 어저께도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삼세의 일체 부처님의 마음과 또는 일체 만물만생이 다 스승이 돼준 까닭에,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었으며 또는 행동 하나도 할 수 있었던 것이, 실천 한 번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모두 스승이 돼줬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거를 어떻게, 감사하단 말을 다만 말로만 얄팍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말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목이 말라서 허덕허덕해지는데 뭐, 지금처럼 먹는 거나 배불리 먹고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누구 말마따나 배는 등가죽에 가 착 달라붙고 땀은 뻘뻘 흐르고, 겨울에도. 아이, 물 한 방울을 얻어먹으려고 가니까 물고랑은 이렇게 있는데, 도랑이 있는데 아, 뱀이, 그냥 큰 뱀이, 그건 뱀도 아니고 구렁이었던 모양이죠. 아, 둥실둥실 틀고 앉았는 거예요, 그 옆에다. 그러니 웬만하면 기절을 했을 텐데 말입니다, 아주 침착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침착했던 게 아니고요, 내 바른대로 똑똑히 얘기하죠. 하하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건 누구나가 다 죽는 건데 그까짓 것 죽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우냐. 네가 인연이 돼서 네가 나를 물어서 죽인다 하더라도 너를 원망 안 한다.' 그러고는 딱 보니까 목마른 것이 싹 없어지면서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뭐,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그랬죠? 하하하. 아, 원이, 원이 보이는 겁니다. 원! 원이 뚝 보여서 그걸 보면서 무심코 '아, 이 세상은 모가 나지 않고 저렇게 둥글구나.' 그러고 있는데 어느 틈에 머리를 반짝 드는 겁니다. 그리고 혓바닥을 낼름낼름 하는 겁니다, 이제. '오, 고개를 들었으니깐 백(白) 자면서 바로 법이로구나. 고개를 일으켰으니깐 법이야. 혓바닥을 내밀었으니까 이 삼라만상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다 살아 있구나.' 이거를 느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들여다만 보고 있으니까 그것도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하하하.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고만 있으니, 가지도 않고. 그러니 그 뱀도 가만히 생각을 하니 오히려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그냥 몸을 끌고 가는 겁니다. 아, 그걸 보다보니까 '아, 이 원의 모든 진리는 하나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느꼈단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매사 게 하나하나가 스승 아닌 게 어딨겠습니까? 네? 꼭 말만 해야 스승입니까? 꽃이 피고 지는 것도 스승이요, 물이 흐르는 것도 스승이요, 밥을 먹고 똥을 싸는 걸 봐도 스승이요, 서로 악다구니처럼 싸움을 하는 것도 스승이요. 요새 뭐 뭐, 조사하고 이러는 것도 스승이요. 하하하. 이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그 감사함을 말입니다, 이렇게 느낀다면 누구를 원망할 수 있으며, 누구를 증오할 수 있으며,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이런 말을 하면은 날 건방지다고 하겠지만 나는 여러분과 둘이 아닌 마음, 이 세상천지가 다 둘이 아니게 전달을 하고 돌아갑니다. 마음과 마음이 말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은행나무와 은행나무가 사랑하는 거 보셨습니까? 꼭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만 보십니까? 사과나무와 사과나무가 사랑하는 거 보셨습니까? 진달래나무와 진달래 나무가 사랑하는 거 보셨습니까? 싸리나무와 싸리나무가 사랑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 사랑 빼놓고 없습니다. 모두가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을 하는데 귀정적으로 이 마음을 너그럽게 이렇게 굴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자동적인 자유자재권이 있어야 되는데, 곤충들은 자유자재권이 없어서 꼭 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한테 자기 몸을 다 바쳐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모두 자기를 뺐다 끼었다 하는 그 지혜에 달려 있는데 그걸 뺐다 끼었다 둥글릴 수가 없고 자유자재할 수가 없으니까, 곧이곧대로 그냥 사니깐 곤충으로밖엔 못 살죠. 어떻습니까?

사람도 좀더 마음을 탁 틔워서 훌떡 넘어가십시오. 이거 그렇게 무서워서 어떻게 삽니까? 귀신도 무섭다. 아니, 귀신이 친구지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예? 아, 모두 친구 아닌 게 어딨습니까? 사람이 살다 죽은 것이 귀신인데 아, 귀신이 뭐가 무섭습니까, 그렇게. 공동묘지에 가서 밤을 새라면, 아마 그믐밤에 새라면 무서워서 쩔쩔매실 거지마는 그것도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 마음을 좀 훌떡 열면은 아, 우리 몸뚱이는 문으로 열고 닫고 다니지만은, 마음이라면은 이 벽도 소용 없고 봇장도 소용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믿으세요, 좀! 진짜 진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좀. 왜 믿지 못하고서는 줬다 뺏았다, 줬다 뺏았다 이러십니까? 지혜롭게, 좀 한번 믿었다 하면 밀고 나가세요!

내가 건방지다고 그럴 거지만 이렇게 말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거닐다보니까 빗방울이 뚝뚝 떨어져요. 오늘은 비 오면 안 돼! 그것도 이 '안 돼.' 하는 요건이 적합해야 됩니다. 응. 이거는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내가, 내가 '안 돼.' 하기는 했으나 그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삼라만상 대천세계에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고, 통신이 전달되고, 교류가 전달되고 그 모든 것에 전달이 되는데, 비가 오면 부처님들이 비를 맞아. 부처님들께서, 하하하. 우리 하나하나 아주 소중한 부처님들이십니다.

내가 여러분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지혜를 넓히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주시고 했기 때문에 이 지혜를 넓혔고 또는 사랑도 할 줄 알았고, 네 자식 내 자식 그런 것도 없는 것을 알았고, 네 부모 내 부모가 따로 없다 하는 것도 알았고, 여러분이 정말 저에 대해선 스승이시며 부처이십니다. 그러니 어디 따

☞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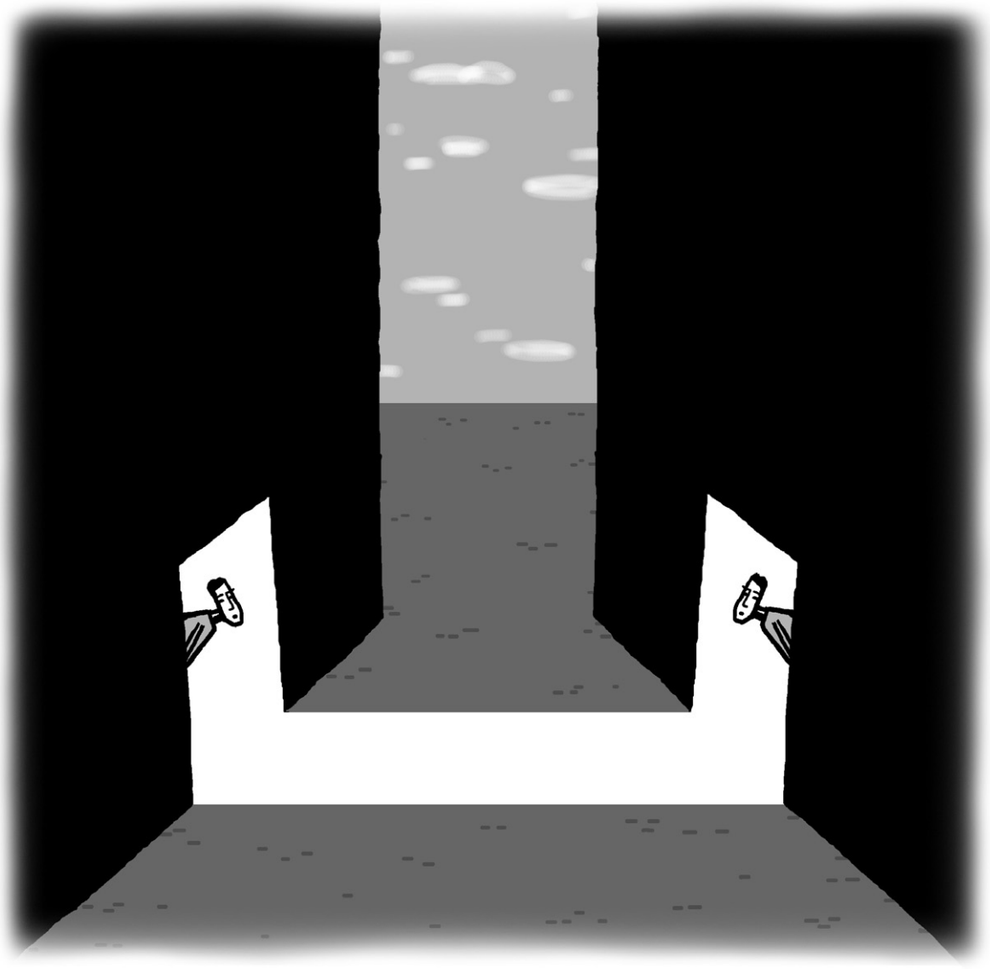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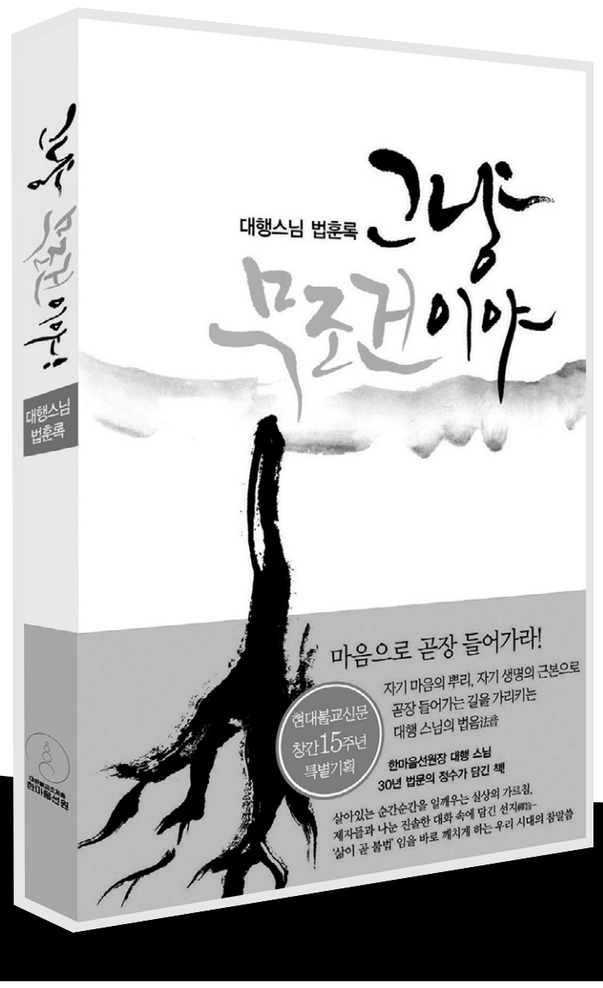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지혜롭게, 한번 믿었다 하면 그냥 밀고 나가세요

☞ 29면에서 계속

로 있습니까? 더불어 같이 도반이요, 더불어 같이 지금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공부하시면서 어떠한 체험이라든가 또는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자1(여): 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나오게 된 것은 스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선원에 나오면서도 버스 안에서 내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연발하면서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15년 동안 앓던 류마티스 관절염을 제가 나오기 시작한 지 2년 밖엔 안 됐지만 지난 3월서부터 한 1년 넘게 이 한마음 주인공 공부를 하면서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모든 것은 다 스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15년이나 양약으로 시달리고 그러면서도 끊지 못하던 약을 한마음 공부를 하면서 하루 아침에 약을 끊고, 약을 끊으면서도 좋아지는 과정을 스스로 느끼고 볼 때 얼마나 신비하고 고마운지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낫는 기간이 조금 걸리긴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한마음 주인공 공부를 함으로써 모든 것이 이렇게 깨끗이 나은 것을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솜씨가 없어서 잘 못합니다마는 아무튼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 마음공부를 잘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사람에게 이 기쁜 마음이 전해지고, 또 모든 사람이 다같이 이 한마음 공부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러니까 차가 망가지면 운전수가 기름도 넣을 수 있으며, 또 차도 고치죠?

질문자1(여): 네.

큰스님: 그런 도리를 완전히 얼른 알았더라면 얼른 고칠 걸 그랬습니다.

질문자1(여): 네.

큰스님: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느끼고 체험하고 이렇게 매사에 모두 용도에 따라서 일체를 다 그렇게 이끌어가십시오.

질문자1(여): 네. 감사합니다.

질문자2(남): 큰스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신도분들을 대표해서 큰스님께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옛 선사가 이르시기를 "처음에 나였다가 나중에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부처였는데 나중에 내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제 나름으로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가 있습니다만 큰스님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큰스님: 지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첫번에…, 하하하.

질문자2(남):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선사가 이르시기를 "처음에 나였다가 나중에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부처였는데 나중에 내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제 나름으로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가 있습니다만 큰스님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큰스님: 네, 그래요. 부처는 나중에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그냥 부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부처인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부처를 구하고 또 어리석지 않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구하다보니까 부처를 구해서 나중에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구하니까 그대로 부처가 되더라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 아닌 부처죠, 그러니까. 자유인이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나를 발견했으니까 그 나를 찾은 거 아닙니까? 나를 모르고 있다가 나를 찾았다 이겁니다, 이제.

질문자2(남):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큰스님을 모시고 가르침을 듣는 법회 때마다 저희들 중에 몇 분이 나서서 의문나는 점을 여쭈곤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어서 답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의정을 들고 주인공의 답을 들을 때까지 참구해 들어가야 함이 옳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의 이런 생각이 바른 지견인지 가르침 바랍니다.

큰스님: 네. 그것이 바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스님네들은, 스님네들이나 물론 살림하시는 여러분이나 다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살림하시는 분들은 더, 지금 수행자들은 여기다가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거기서 답이 나올 때를 바라기도 하지만 또 듣는 것도, 물어서 질문하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질문이 아주 없어서도 안 되고 아주 물어보기만 해도 안 됩니다. 이 질문을 해서 바로 거기에 놓고서 그 요량을, 길 가는 요량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길 가는 요량을 알아서 반드시 거기 맡겨놓고 가야 된단 얘깁니다. 길을 알아가지고 맡겨놓는 거하고 모르고 그냥 맡겨놓는 거하곤 다릅니다.

질문자2(남): 세번째는 다시 옛 선사의 말씀으로 여쭙겠습니다. 한 선사가 깨달음의 경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경계(境界)를 인식하는 주체가 남아있는 한 인식된 모든 것은 속임수다."라고 하셨습니다. 인식하는 주체가 사라진 경지란 어떤 경지일까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그때는 주인공만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제 나름대로 헤아려봅니다만 이에 대해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그러니 아까도 얘기했죠. 물맛을 알려면 내가 직접 먹어봐야 안다고요. 정말 뜨거운지 미지근한 건지, 따뜻한 건지 찬 건지 그거를 먹어보는 사람이나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먹어보지 않는 이상에는 모두 거짓말이라는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얼른 쉽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로만 듣고, 책을 보고, 경전을 보고, 모두 봐도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해나가면 모두 거짓말이 되고 모두 헛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딱 마셔보고 (물컵을 들어 보이시며) 딴 물은 또 거짓말인지 모르니까 내가 딱 먹어보고 그 물을 그냥, 그 물을 가지고 '야, 이건 먹으니까 시원하더라.' 하고 주는 것이 바로 이게 약사가 감로수를 주는 거와 같은 겁니다. 하하하.

그런데 이걸 먹어보지도 않고 저 물맛이 어떻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어디고 누구든지 나 아님이 없고 이럴 때는 물도 바로 내가 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맛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물을 줘도 그때는 아주 톡톡한 맛이 나고 그게 감로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깐 그 지혜를 얻으려면요, 나부터 먼저 알아야 지혜가 자꾸 늘어가요. 나부터 알아야….

이 우리 형제 법우님들께서 이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트여야 남도 이끌어갈 수 있지, 내가 눈을 뜨지 않고 내가 귀를 뜨지 않고 남을 이끌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들 해서 남을 진짜로 보시해라 하는 거. 금(金) 한 덩어릴 주고서 늘려라 이랬더니 그걸 늘리지 않고 그 금이 없어질까봐 늘리지 않았다 이런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다 놓고 체험하고 가면서 남들한테 그 마음공부를 전달해주게 되면요, 그만큼 공덕이 큰 겁니다. 이건 세세생생에 공덕입니다. 올바로만 관법을 일러준다면. 그런데 한 사람을 이끌었는데 수십억의 중생들을 이끈 셈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집합소 하나를 포교했는데 집합소 안에 들어있는 중생이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하하하. 그 집합소 안에 있는 자생중생들이 전부 바뀌어서 화(化)해서, 보살로 화했으니 그건 뭐 얼마나 그게 공덕이 되겠습니까? 지금 뭔 말을 하다가 이렇게 됐죠? 하하하.

질문자2(남): 예. 세 가지 질문에 답해주신 데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큰스님: 그런데 말입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질문을 할 때는 그냥 그 옛날에는 주먹을 번쩍 들거나 내리치거나 이런 등등 문제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띔을 해줘가면서 이렇게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산이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되는 도리를 어찌 알아서 산은 산대로 있고 물은 물대로 있는 도리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틔워주면서, 귀를 틔워주면서…. 하하하.

질문자3(여): 큰스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질문이 있어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저한테는 딸이 둘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10년 만에 임신을 했어요. 지금은 삼개월째인데 기왕이면은 아들을 낳고 싶은데 이것도 욕심이 되겠는지요.

큰스님: 음, 아들을 낳고 싶은데 십 년 만에 애가 있다! 아, 그랬으면 그거 뭐 뻔하지 않겠소? 하하하.

질문자4(여): 큰스님, 감사합니다. 저 부산에서 왔습니다. 제가 이 공부 한 지는 한 몇 개월밖에 안 됩니다.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 동안 제가 너무나 고통 속에 살다보니까 이리저리 헤매다가 큰스님 법을 만났습니다. 그래 오늘도 큰스님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처사님이 아픔의 고통을 당하고 그 인연들이 또 자식들까지 다 인연을 마치고 가니까 아무리 주인공한테 제가 마음을 돌리고 관(觀)하고 해도 제가 너무나 약한가봅니다. 항상 저 혼자서 울면서 주인공한테 관하여도 마음과 뜻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망설이다가 오늘은 큰스님 앞에 용기를 내어서 나왔습니다.

큰스님: 전체 놓고, 죽으려고 믿고 거기다 놓으세요. 살 양으로 믿고 놓으니까 그렇죠. 살 양으로 놓으니깐 그렇고, 아예 그냥 죽어버리려고 거기다 놓으세요. 그래야 됩니다.

질문자4(여): 네.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큰스님: 그냥 놓는 게 놓는 게 아니잖아요. 살 양으로 놓으니깐 그놈의 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눈 뜨고 삼 년을 푹 쉬어라. 자거라.' 이런 말들도 많이 하고 그랬죠.

질문자4(여): 큰스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 예. 질문이 많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합장하시며) 여러분, 진짜 열심히 하십시오. 나중에 이 인간의 의식을 가지고 후회하시지 말고 열심히 해서, 우리가 지금 몇 발자국이나 떼어놓고 이 모습이 없어지겠습니까? 하여튼 이 모습이 없어지기 전에 이 도리는 꼭 알아야 묵은 빚도 갚을 수 있고, 새 햇빛도 줄 수 있고, 그 뿌리에 물도 줄 수 있고, 꽃도 피게 할 수 있고, 그 열매도 열려서 영원토록 굶지 않고 먹게 해줄 수 있는 바로 무종(無終)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시(無始)요, 무종이요. 이 모두를 간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영원토록 정신계의 어버이로서 이 혼란에 빠진 중생들을 다 제도할 수 있으니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위 법문은1993년 4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몇 발자국이나 떼어놓고 이 모습이 없어지겠습니까.
이 모습이 없어지기 전에 이 도리는 꼭 알아야
묵은 빚도 갚을 수 있고 새 햇빛도 줄 수 있고
그 뿌리에 물도 줄 수 있고 꽃도 피고 열매가 열려서
영원토록 굶지 않고 먹게 해줄 수 있는
바로 무종(無終)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스님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마이크 목걸이


A+B (1set) ₩100,000
택배비무료
주문전화
구 미 미륵사 (지연) 010-8631-3527
팔공산 정원사 (성봉) 016-849-8889
거제도 정토암 (진각) 010-6657-5522
대 구 포교사 (법일) 010-9591-8599
☆ 유* 무선 겸 용
입금계좌(예금주 : 미륵사)
농협 351-0251-7333-73
우체국 700914-02-063333

빙의 퇴마사례 생생하게 전하고 그 해결방법 밝혀 !!!
빙의에 걸리면 정신질환인 우울, 불안, 공포증, 또는 조울증, 정신분열 등 심인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한다. 심지어 요즘엔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희망이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제행 지음 / 신국판 / 319페이지 / 13,000원
이 책은 심인성질환의 치유와 퇴마의 권위자인 제행스님이 그간 치유했던 사례들을 담은 책이다. 스님은 마음의 병은 첫째, 지난 살아온 과정에서 잠재되어 오고 둘째, 전생으로부터 잠재되어 오고 셋째, 빙의되어 온다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빙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최면을 통해 퇴마했던 그 과정을 이번 책에 생생하게 담아냈다.
※ 전국 유명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 있습니다.
※ 입금계좌 : 농협 552-01-047918 대한불교비룡정사
역학·빙의 퇴마 (개인지도, 직접 상담)
* 상 담 : 1. 사주상담, 궁합, 택일, 신생아 이름, 개명, 부부문제
2. 최면심리상담, 우울, 불안, 공포증, 빙의 퇴마, 환청
3. 무속인 상담, 말문이 안터지는 분, 허주, 법당정리
* 개인지도 : 역학(기문둔갑), 성명학, 최면요법과 빙의 퇴마
*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
비룡정사 서울 포교당 제행스님
011-772-4606 / 02-588-4606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니르바나필 봉축음악회 '부처님을 노래하다'를 보고

서양적 기법 연주에도 객석 뜨거워



박종린
니르바나필 후원회장
불력회 대표법사

부처님은 일체 존재의 근본이시고 참생명이다. 근본이 변할 수 없듯이 참생명 또한 변함이 없다. 참생명은 나고 죽음이 없기에 영원하고, 영원한 생명에 귀의함으로써 귀의하는 자가 참생명의 존재임을 아는 것이다. 일체 만물이 부처님의 화현(化現) 아님이 없기에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고, 진리의 말씀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음악만큼 효과적이고도 감동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 달리 없다고 우리는 믿는다.

14년 전에 창단된 불교계 유일의 교향악단인 니르바나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이하 니르바니필)의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 맞이 봉축음악회가 '부처님을 노래하다'라는 제목으로 4월 24일 저녁 여의도 KBS홀에서 열렸다.

니르바나필이 부처님오신날을 즈음하여 봉축음악회를 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불교가 얼마나 위대한 종교이고, 음악이 얼마나 전법(傳法)의 효과적인 수단인가를 일깨워주는데 있다. 음악이 배제된 전법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임에도 현재의 한국불교는 음악, 특히 서양음악은 경시하는 정도를 넘어 거의 무시하는 수준이나 다름없다. 사실 무시가 아니고 무지라고 해야 맞는 표현일 것이다. 이미 세계인의 보편적인 음악으로 자리 잡은 서양음악이라는 효과적인 수단을 외면하고서 제대로 전법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기 때문이다.



2013년 봉축을 맞아 열린 니르바나필의 음악회는 국악과 찬불가, 서양음악이 어우러진 자리였다.

니르바나필은 지난 3년 동안 법구경을 소재로 한 교성곡(交聲曲) '칸타타 담마파다'를 무대에 올려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대작을 기획하고 연주하기에는 니르바나필 단독의 역량으로는 힘에 겨운 일이었기에 그 열렬한 환호에도 불구하고 후속 '칸타타 숫타니파타' 같은 곡은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었고, 올해는 쉬어간다는 기분으로 비교적 가볍게 준비한 것이 이번 음악회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참석하신 분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열화와 같은 뜨거운 성원 그 자체였다. 쉬운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가벼운 것이 가벼운 것이 결코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우리 불자들이 음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갈증을 심하게 느끼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번 연주회를 통해 불자 청중들이나 불자 음악인들이 서로서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소득이 아닐 수 없다. 불교가 지닌 무궁무진한 컨텐츠를 서양적인 기법과 악기를 통해 표현할 수 있음을 안 정도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하고 가야할 길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는 데 큰 의의를 가진다.

음악이 지닌 힘이 막강하다는 사실과, 음악이라는 수단을 통해 사람의 심성을 순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무엇보다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음악이라는 선율에 담아 저 마음 깊은 곳에까지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니르바나필 같은 전문 음악연주단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社說

이치노헤 스님 방한, 한일관계 해법 찾자

일본 조동종 운쇼지 주지 이치노헤 쇼고 스님이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방한했다. 주요 목적은 자신의 저서인 〈조동종은 조선에서 무엇을 했나〉의 한국어판이 발간됐기 때문이었지만, 스님은 답사와 강연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그의 일정을 취재하면서 보인 언행들을 보면 파격적이다. 아베 수상이 대리인을 통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데 대해 "뻔뻔스러운 꼼수"라고 일갈하는가 하면, 우익의 공격에 위협을 느끼지 않냐는 우려에 "부처님이 곁에 계시니 두렵지 않다"고 호기롭게 말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일본 불교의 과오를 연구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자신의 참회"라는 이치노헤 스님의 원력에는 절실함마저 느껴졌다.

사실 현재 한국 · 일본 할 것 없이 역사에 관심을 가진 젊은 세대는 적다. 과거 역사에 대해서는 무지한 수준이다. 이치노헤 스님은 "과거가 있어 현재가 있고, 현재에 바탕해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올바른 역사인식이 비틀어져 버린 한일 관계를 풀어낼 열쇠라는 것이다.

특수성이 적지 않은 한일관계에서는 무엇보다 역사적 규명이 먼저 선행돼야 하며, 이 같은 노력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점철된 중앙 정부들은 할 수 없는 일들이다. 그래서 풀뿌리 교류가 중요한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교류가 활발하고 올바르다면 정부 차원의 교류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한일 정부도 불교 종단들도 이들의 활동을 살피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한일불교교류협회 등을 통해 전시 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상호 교류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아픔을 털어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일은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몫이다.

불교계의 색다른 자살예방

자살이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종교단체를 비롯해 각 시민단체서도 자살을 막을 예방 대책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대책이라는게 거의 대동소이하다. 심신의 안정과 심리상담 등이 대부분이다. 이런 현실에서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과 불교상담개발원이 공동으로 마련해 4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상연된 불교심리치유극 '나도 살고 싶었다'는 자살 예방책중 색다른 시도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살고 싶었지만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던 여중생 지혜의 이야기가 즉흥극 형태로 무대에 올려졌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절망감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관객과 함께 공유하고자 공연을 기획했다는게 주최측의 설명이다. 즉흥극 형식인 심리극(psychodrama)은 상담자가 등장인물인 내담자에게 역할과 상황을 주어 자신의 삶을 생각나는 대로 연기 하게해 억압된 개인의 심리적 문제와 사회관계적 문제를 탐구하는 형식이다.

이번 심리치유극을 기획한 마음숲심리상담센터 박희석 소장은 실제 내담자 대신 배우들과 함께 연극을 진행했다. 주인공인 지혜를 중심으로 둘러싼 학교와 가정환경에서 겪는 감정과 갈등을 표출하게 해 심리치유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10년째 자살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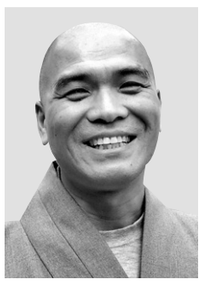
더 이상 자살은 남의 일이 아니고 가족을 포함한 주변 모두의 안타까운 일이자 비극이고 상처인 것이다. 자살은 개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 아픔을 고스란히 감내할 유가족들, 그리고 사회가 함께 지고가야 할 준엄한 과제다. 이번 불교심리치유 연극이 자살이라는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우리 사회에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앞으로도 이번 심리치유극을 계기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들이 불교계에서 시도됐으면 한다.

발언대

차별금지법 제정 무산

일부 개신교계의 주도로 반대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민주통합당 김한길 · 최원식 의원이 철회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사실상 개신교계의 상식 밖의 반대 운동에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와 불교계 입장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자 규범



퇴휴 스님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대표

대한민국 헌정이 시작된 1948년, 유엔은 12월 열린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공포한다. 인권의 가치가 어느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린 것이다.

인권 선언의 제2조를 살펴보면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기술했다.

이렇게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규범이다. 보편적인 가치를 들어 '차별하지 말자'는 법을 제정하자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취지이다. 이 법을 반대하고 철회한 일부 세력에게 '차별을 정당화 하자는 것이냐'고 되묻고 싶다

개신교계가 주장하는 동성애 논리도 맞지 않다. 이성애자가 다수라는 이유로 성적 소수자들이 계몽돼야 한다는 논리는 곧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다. 그들 역시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남들과 같이 살려고 왜 노력하지 않았겠는가. 다만 우리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

종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개신교의 공격적 선교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과 생각과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편하게 하고, 비방하며, 저주하는 것은 올바른 처세가 아니다.

종교인으로서 차별금지법이 종교적 문제보다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이야기가 풀어졌으면 한다. 보편적 규범과 가치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개신교계도 개신교 국가인 서구 국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길 바란다.

차별금지법, 불교계 참여 필요



박광서 서강대교수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차별금지법이 좌절된 것은 이번으로 세 번째이다. 19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잇달아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을 때에는 적지 않은 기대를 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교계에 내건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다.

일부 개신교계가 '동성애'를 차별금지법 제정의 반대 요소로 내걸었지만, 사실상 이는 표면적 이유일 뿐이다. 그간 대중에게 행했던 '불신지옥 예수천국'과 같은 공격적 선교를 막을 수 있는 법이 상정됐기 때문에 극렬히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높은 이해를 보여주는 나라는 개신교 국가인 미국 아닌가. 하지만 한국 국회의원들은 개신교가 벌인 상식 밖의 몽니에 백기로 투항했다.

사실 한국 사회의 일상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상대방의 몰이해는 버젓이 존재한다. 당장 얼마 전 비구니 스님이 도넛 가게에 들어가다 한 행인에게 '교회가 운영하는 곳에 왜 스님이 들어가냐'며 제지를 당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지하철의 고성 선교와 조계사 앞으로 '불신지옥' 십자가 매고 지나가기도 한다.

그럼에도 개신교의 몽니로 차별금지법이 좌초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제정을 바라는 곳보다 제정을 반대하는 곳의 세력이 강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불교계는 이제 사회를 어떻게 바람직하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자신이 겪는 차별을 사회 바깥의 문제로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한다. 사회문제가 자신의 문제이고 자신의 문제가 곧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중앙신도회 등 불교계 단체가 나서서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일에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 바로 선 '인권세상'을 불교가 앞장서 선도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국내산 '적하수오' 판매

■ 적하수오, 적하수오 된장 필하신분 연락바랍니다. (청도 불광사 사찰 內 재배)
• 하수오 : 1 kg 3만원 • 하수오 된장 : 1 kg 5만원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적하수오

1.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모종을 예약 분양합니다.
2.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서룡 농장 :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묘목 재배
계좌번호 : 농협 302-0332-7864-61 예금주 김남필

묘공당妙空堂 대행선사大行禪師

1주기 추모 다례재 및 부도탑 제막식

한마음선원에서는 한국 불교의 큰 스승으로서 참선의 생활화, 불교의 현대화,
불교의 세계화에 일생을 매진하셨던 묘공당 대행선사의 열반 1주기를 맞아
추모 다례재 및 부도탑 제막식을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도탑 제막식과 함께 노년에 주석하셨던 서산정에서
선사의 일상과 족적을 되새겨보는 사진전을 준비하였으니
제방의 대덕 큰스님들과 여러 불자님들께서 두루 동참하시어
법향 가득한 자리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교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고
나를 밝히는 것은
나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성품 중의 불성을 깨달으면
중생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 대행선사 법어 -

1부 추모 다례재

일시 _ 2013년 5월 10일 (금) 오전 9:30~
사회 _ 정목 스님
장소 _ 한마음선원 5층 법당
내용 _ 종사 영반 (집전: 동희 스님) • 영상 법문

2부 부도탑 제막식 및 사진전

일시 _ 2013년 5월 10일 (금) 오전 11:30~
사회 _ 정목 스님
장소 _ 서산정 (본원에서 차로 10분 거리)
내용 _ 부도탑 제막 • 선법가 음성공양

사진전 좁…물방울마다 향기 내음 되고
꽃송이마다 열매 되어

문의 _ (031) 470-3100 한마음선원 종무소

주최 묘공당 대행선사 문도회 • 한마음선원 신도회